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2월 23일(음력1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514호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3월 2일, 16일, 30일 64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지유 스님


진제 스님


혜국 스님


고우 스님


인각 스님


현산 스님


지환 스님


무여 스님


원융 스님


정광 스님

禪, 문 없는 문… 열쇠는 어디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생활 속 선수행 바르게 배울 기회"

3월 5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참선 체험도
범어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전체 참가자에 수료증 발급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說禪)대법회'를 봉행한다.

'문 없는 문을 열다'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설선대법회는 한국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사 10인이 초청돼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된다.

3월 5일 입제식에서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증명 법어를 내리고,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치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설선대법회의 의의'에 대한 입제법어를 하고,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회향법어 및 무차선(無遮禪) 법회를 맡는다.

조계종 정통 선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 수행의 고갱이를 열어보일 법주는 지유 진제 스님을 비롯해 혜국(석종사 금봉선원장) 고우(각화사 선덕) 인각(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무여(축서사 선원장) 원융(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정광(봉암사 태고선원장) 스님 등 10인. 선방에서만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한국불교 대표급 선원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선승들이 법연을 펼친다.

수행이력 4면

매주 법문의 주제는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선과 삶' '지혜와 자비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 '선수행의 바른 길' '생사문제와 선수행'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선수행의 단계' 등 실생활과 간화선을 접목해 명쾌하게 간화선 수행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회는 최근 '붐'을 타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법을 일반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법회는 질의법사 및 재가 질의자가 법회별로 두 명씩 지정돼 청중을 대신해 법주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법문 후에는 즉문즉답(卽問卽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회향법회가 열리는 5월 7일에는 지위고하와 승속을 가리지 않고 법을 묻는 무차선법회도 열린다.

질의법사에는 수십년 선방에서 공부한 선원장급 구참수좌 9명이, 역시 수십년의 수행이력을 자랑하는 재가자 10명 등 모두 19명이 대중을 대신해 질문자로 나선다.

법회후에는 참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 간화선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선실수의 장도 열린다. 매 법회가 끝난 뒤 희망자는 스님들의 지도 아래 참선실수(오후 7시~11시), 철야정진(오후 11시 이후)을 할 수 있다. 전체 법회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참선에 참가한 사람은 안거증을 받는다. 참가문의 (051)508-3636

천미희 · 김철우 기자

날짜	주제	법주	질의법사
3월 5일	입제식, 설선대법회의 의의	지유 스님	· 구주 스님(수좌) · 곽만연(동아대학교 교수)
3월 12일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혜국 스님	·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 · 김건웅(조계종 국제포교사)
3월 19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 수행	고우 스님	· 회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강동균(동아대학교 교수)
3월 26일	선과 삶	인각 스님	· 효암 스님(수좌) · 지호경(부산불교실업인회 감사,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4월 2일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	현산 스님	· 종대 스님(전 태안사 선원장) · 박근호(전 부산영남교정인불자회장)
4월 9일	선수행의 바른 길	지환 스님	· 강설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 최익두(부산시법우회장)
4월 16일	생사문제와 선수행	무여 스님	· 영일 스님(수좌) · 이대원성(연꽃모임 명예회장) · 류상영(대불청 부산지구회장)
4월 23일	화두는 조사공안이다	원융 스님	· 흥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 선감) ·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장 · 영광도서 사장)
4월 30일	선수행의 단계	정광 스님	· 지현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 · 설동근(부산시 교육감)
5월 7일	회향법어 및 무차선법회	진제 스님	

"해제는 스스로 의지해 걸어가는 것"

23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전 스님 법어 발표

갑신년 동안거 해제일(2월 23일)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지허 스님이 해제 법문을 발표했다.

법어 4면

법전 스님은 해제 법문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삼계(三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며 "공부하는 사람은 삼계에서 애착하는 일들을 몽땅 털어버려야 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애착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아직 결제가 덜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전 스님은 또"해제대중들의 만행길은 모두 형상 없는 도량이다. 형상 없는 도량에서 다니는 것 없이 다닐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법안선사의 뜻이요, 이 산승의 해제법문에 대답하는 일"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집계한 〈갑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1개 선원(비구 선원 60곳, 비구니 선원 31곳)에서 총 2115명(외호대중 285명 포함)의 정진대중이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얼굴' 이렇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大韓佛敎曹溪宗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조계종이 종명(宗名)을 보호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상표·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4년 9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상표·서비스표, 2004년 10월 7일 '대한불교 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종단 문장(紋章)은 '삼보륜(三寶輪)'이다. 삼보륜은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 이념, 사부대중의 화합,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정토 구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남동우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고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H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 原典專門學林 '三學園' • 학술연구사업 • 문화교화사업 : 정기 '수행문화포럼' •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 사부대중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뜻깊은 열네해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衆에게 廻向합니다 "

가산불교대사림 7권 근간!



● 회원들에게는 위의 본원 출간 수행논서들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증정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산불교대사림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0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

조계종 출가연령제한법 시행 1년… '제도보완' '폐지' 여론 고조

"부작용 많다"확산에 대안모색

출가자 감소 · 교리적 모순 불구 기초교육은 향상

심층 면접 · 은사 보장제 · 제한연령 상향 등 해법론 다양

2004년 3월 26기 행자교육원부터 적용된 조계종의 40세 출가연령 제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종 부작용에 따른 제도보완 내지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003년 9월 중앙종회 입법화 과정에서 연령제한 정책의 '도입'과 '반대' 주장이 서로 나름대로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팽팽히 맞섰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다. 당시 종회 교육분과위원장으로 제도도입에 관여했던 영배 스님 조차 "공청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최근 종단 안팎에서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출가자원의 질을 높이면서도 출가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잃은 것과 얻은 것

출가자 연령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출가 자원 감소다.

3월 16일 개원하는 28기 행자교육원 지원자는 210명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0여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0세 출가연령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 26 · 27기 행자교육원 입교자는 310명. 2002년 511명, 2003년 487명이 지원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 40%가 줄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타종단의 출가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또 진(眞)발심자의 출가제한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는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출가연령이 젊어져 생기는 이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기초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이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사와 교육원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4~50대 출가자 중 일부가 대중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승가의 위계를 손상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출가자원의 자질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적이다.

■시행 1년, 승가 구성원들의 반응

제도 도입 초기 출가연령 제한과 관련해 선원, 율원, 재가와 일반 사회인들은 매우 부정적 시각을 보인 반면, 중앙종회와 교육원, 강원 스님들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거나 동조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연령제한 목소리는 위축되는데 반해, 폐지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가는 양상이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출가연령제한에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모였다. 진구 · 도완 · 정인 · 지유 스님 등 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스님들은 "현실적인 면에서 출가자 연령제한은 꼭 필요하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교육분과 본각 스님은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본각 스님은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종회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도입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본각 스님은 "45세, 50세 등 두부 자르듯 나이를 기준으로 출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가 희망자의 진발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층면접과 이를 명증할 수 있는 은사의 보증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출가의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본선원의 2학년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백담사 선원장 신용 스님은 "이번 동안거에 방부를 들인 학인 26명 가운데 40대 초반이 절반이지만 7일 용맹정진을 모두 성취했을 만큼 수행 열의가 높다"며 출가연령 제한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신용 스님은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진발심 돼 출가하려 할 때, 종단이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 대다수 강원 교직자 스님들은 출가자 연령제한 문제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이 바뀌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해 화엄사에서 열린 전국 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 연수에 참가한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가연령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열반경>의 예를 들면서 "고령자의 출가를 막는 것은 부처님 근본설에도 어긋나지만, 그로인해 승가교육 현장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끼쳤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율원관계자들은 계율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제한의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제도 보완 등 대안 찾기 고심

지난해 4월 취임하면서부터 연령제한 문제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던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출가연령 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향후 열릴 임시 중앙종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면 본격적으로 재검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원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장 어떤 입장이나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원이 올해 '승가교육제도 개선추진위(위원장 종범 · 이하 승개추)'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원은 정책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종책 담당부서라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승개추가 고령자 출가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월 26일 열린 승개추 3차 회의에서 추진위은 출가연령의 적정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①상한선 현행대로 40세 유지 ②상한선 45~50세로 상향 ③상한선 현행유지를 전제로 진발심자는 심의 후 선별출가 ④상한선 현행유지하면서 연령초과자의 권리제한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추진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것이다.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천주교의 수사제도를 본뜬 승가내의 별도 역할을 만들어 고령출가자들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 스님도 구족계 수계 불가를 전제로 고령자 출가를 인정하는 대신 이들이 준승려로써 사찰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자장율사의 맥 올곧게 잇자"

영축총림 통도사 3월에 율원 개원

자장 율사의 율맥이 살아 숨쉬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에 통도율원이 공식적으로 내달 문을 연다.

율원생 모집 공고를 낸 통도사 통도율원 개원은 자장 율사로부터 이어 내려오며 금강계단을 통해 수많은 청정율사를 배출해온 계율 근본도량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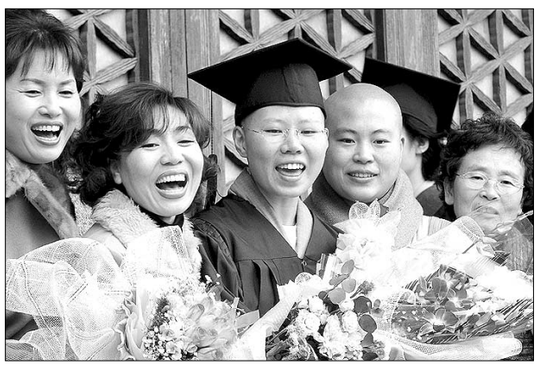
이번 통도율원 개원은 1984년 총림으로 지정된 이후 총림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율원의 공식화를 의미하며 종단 대내외적으로 청정 계율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우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도사는 혜남 스님을 율주로 내정하고 산내암자인 취운암에 율원을 설치하기로 임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현문 스님은 "통도율원은 계행의 근본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행을 청정히 지켜나가는 청정승가의 가풍을 드날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통도율원은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혹은 2005년 비구계 수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입방 지원 접수를 받는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넓은 세상으로…

동국대 18일 졸업식 열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2월 18일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 수여식장에서 홍기삼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개교 99주년을 맞는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졸업을 축하했다. 사진은 졸업을 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고영재기자

"공직인사 적극활용의 길 찾길"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 법장 스님에 건의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진이 2월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진이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공직인력 적극 활용을 건의했다.

곽임호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 회장(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팀장)은 건의서를 통해 "유능한 공직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사찰관리인력 또는 불교외호세력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재능을 구비한 인력으로, 총무원을 비롯한 각 사찰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곽 회장은 "종단차원의 기획과 종책 수립 후 시행하되 활동의 근거와 명분을 분명히 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중양 행정자치부 불심회 고문(한국행정연구원장), 신기윤 행정자치부 불심회 前 회장(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프로세스혁신팀장), 김우호 행정자치부 불심회 회장(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능력발전과 서기관)이 배석했다.

남동우 기자

"영축총림 방장 20안거 성만한분을…"

전국선원수좌회 성명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 대표 함주 현산 인각)는 2월 15일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 총림법에 충족되는 방장을 추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성명서에서 "본사 주지 추천권 행사 등의 정치권력적인 면만 염두에 두고 방장을 선임한다면, 방장의 위상과 책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총림법에 명시된 20안거 이상 성만을 충족한 분을 선출하라"고 밝혔다.

수좌회는 또 "영축총림이 산중총회에서 종헌 · 종법에 저촉되는 분을 방장으로 추천할 경우, 대응단계를 높여가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는 28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연다. 김철우 기자

호 소 문

부처님을 섬기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분원사찰인 부산 기장군 묘관음사의 2천여 신도들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신도들인 저희들이 감히 하늘과 같은 주지스님 인사와 관련해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저희 사찰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단법인 선학원이 임명한 신임 주지스님은 20여년전 묘관음사의 주지 재임시

– 여성문제로 저희 묘관음사 주지를 중도하차하시고 큰스님께서 불사에 쓰라고 남겨 놓으셨던 금을 비롯해 사찰에 돈 될만한 것은 죄다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신 것으로 알려진 분

– 출가까지 했던 그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고 끝내는 운명을 달리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처님을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

– 쫓겨나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어버이 이자 스승을 저버리고 다른 스님의 제자로 건당한 덕에 몇몇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신 분

이런 분이 다시 묘관음사의 주지로 오신다니 저희 묘관음사 2천여 신도들은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묘관음사 인근 장안읍 임랑마을 주민들조차 20여년전 이 분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스님께 탄원서를 제출, 주지 선임을 재고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인근 마을까지 온통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분의 과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혹여나 묘관음사에 이 같은 분이 주지로 오셔서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에게 마을은 물론 전통 사찰로서의 묘관음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물론 묘관음사 향곡문도회 대표 혜운스님 두분 다 저희들에게 다른 스님을 주지로 추천하시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신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부대중앞에 스님의 수행자답지 못한 결격사유와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를 이유로 주지선임을 취하하겠다고 서약해 놓고도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 분들의 태도에 대해 저희 2천여 신도들은 정말 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불자들인 저희들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신문 지상을 통해 호소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분들의 방관자적 태도 때문입니다.

묘관음사는 향곡 큰스님의 도반이신 성철스님께서 기거하셨으며 전국의 많은 수좌 스님들이 두 큰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동안거 하안거 수행하시는 선방이 자리한 청정 수행도량입니다. 작지만 아담한 도량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부처님의 청정 계율을 지켜온 사찰입니다.

이런 곳에 묘관음사를 피탄에 빠트리고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스님이 후임 주지로 다시 오셔서, 선방을 지키시고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신다니 저희 신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묘관음사는 향곡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작지만 정성스런 신도들의 염원을 모아 불사를 이뤄오는데 부족함이 한 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 분의 부끄러운 행적을 씻어내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의 드리움으로 그 부끄러움을 겨우 가리웠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로 되돌아가라 하시니, 또 다시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재단은 저희 2천여 묘관음사 신도들의 애끓는 불정을 받아 주셔서 덕망있는 스님으로 현주지이신 혜원스님으로 재선임토록 강력한 지침을 하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신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게 된 이상 주지스님 추천권을 갖고 있는 향곡문도회 큰 스님들도 저희들의 간곡한 열망을 반영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미 2차에 걸친 서울 안국동 선학원 항의 방문을 통해 우리 신도 불자님들의 뜻을 재단에 전달한바 있고 재단측은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신도 불자님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 입니다.

끝으로 이 호소문을 접하신 모든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2월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묘관음사 신도회 산하 관음회 신장회 문수회 인등회 영산회 법우회 반야회 2천여 신도 일동

사찰 수행환경 무너진다

북한산 · 계룡산 관통공사로 전각 기울고 소음 심각

학림사를 비롯한 북한산 지역 사찰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수행환경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계룡산을 관통하는 도로도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변 사찰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보문종 총본산인 서울 보문사는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신행환경 전반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학림사(주지 덕오)는 최근 "대웅전과 오백나한전을 비롯한 사찰전각들이 기울고 서까래가 갈라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통도로 시공사인 (주)서울고속도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림사 회주 도원 스님은 "학림사 뿐만 아니라 관통도로 인근에 위치한 사찰대부분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가 계속된다면 사찰수행환경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는 학림사의 요구로 지난 2월 7일 중단됐으나 학림사와 (주)서울고속도로의 합의로 2월 18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면서 수많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계룡산도 뚫릴 상황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계룡산 관통도로의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2월 16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구역 무효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곡(갑사 주지) 스님도 "수많은 명찰들이 자리하고 있는 계룡산이 파괴되면 사찰수행환경역시 보전될 수 없다"며 관통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문사 담장 바로 아래 공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사도 사찰 담장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수행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10층 이상의 규모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문사는 향후 발파 작업과 도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불교NGO, 2005년 '내실화의 해'

교육 · 연구 · 회원배가사업 중점 전개

환경, 인권, 통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NGO들이 2005년 새로운 사업들을 내놓으며, 외연 확장과 내실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올해 종교자유와 사찰경영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오는 4월 초 출범시켜 종교자유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제도개선에 진력한다. 또 스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찰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기 위해 '사찰경영연구소'를 개소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기사 14면

지율 스님의 단식을 외호하면서 수행환경 지키기에 전념해온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올해 불교생태학교를 상설화한다. 3월부터는 매월 계절에 맞는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기존의 생명살림불사와 친환경쌀 공양미 운동 외에도 인드라망대학과 전문대학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회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리산 권역에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인드라망대학'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조계종 사회부와 함께 불교생명윤리 정립작업을 마무리해 낙태, 사형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해외구호사업과 북한동포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는 기존 라오스, 캄보디아 외에 미얀마, 몽골, 베트남, 인도 등으로 구호지역을 확대하고 러시아, 북한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자원봉사단체인 '공생봉사단' 창립도 올해 추진된다. 또 지난해 북한에 의료용 수액 공장설립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농기계 공장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해온 작은손길(이사장 김광하)은 회원배가사업을 중심으로 남북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는 불교동화를 제작 · 발간한다.

유철주 기자

육사신입생 불자비율 최고

육군사관학교 65기 신입생 중 불자 사관생 숫자가 최초로 개신교 등 타종교를 능가했다. 올해 육사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총 228명. 이 중 종교를 불교로 밝힌 사관생은 모두 97명이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각 85 48명이다.

90년대 이후 육사 신입생 정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군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유신 기자

연등축제 참가단체 접수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회는 올 5월 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참가단체를 접수한다.

3월 31일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7)로 참가신청서 및 단체소개서(최초 참가 단체일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6월 진료시작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6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18일 제207차 이사회를 열어 일산불교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1132억을 승인하고 6월 1일 가개원해 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원식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와 지역에서 인지도 및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명성여 · 중고, 금산중 · 고, 홍제중학교 명칭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을 포함 하는 등 일부산하 중 · 고등학교의 교명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명성여고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고'로 명성여중은 ' ~ 명성여중' 등으로 불리게 됐다. 또, 광동학원과 마찬가지로 산하학교 교법사들의 신분을 '법사'로 변경하는 시행세칙 개정도 이루어 졌다.

조용수 기자

백양사 강원 사회복지학 개설

남부대와 연계, 복지사 자격취득 가능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명공) 강원에 정규 사회복지 강좌가 개설된다.

백양사는 2월 17일 "광주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금년부터 강원에 입방하는 학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지학 강의를 수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 총무 진우 스님은 "수강 신청자에 한해 남부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며 등록금 일체는 백양사에서 지원한다"며 "강의는 주1회 열리며, 남부대학 담당교수들이 직접 강의한다"고 말했다.

전통강원에 사회복지 정규학과가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과 함께 학사자격이 주어져 승가대학교 및 동국대 편입이 가능하다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은 "인재양성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61)392-7324

이준엽 기자

3월부터 천성산 환경조사

지율스님, 23일경 기자회견 예정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될 전망이다.

지율 스님 측과 정부는 2월 15일 실무접촉을 통해 2월 중에 공동조사 항목을 합의하고 3월부터는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율 스님이 23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이에 따른 습지 고갈'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2월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2심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번 공동조사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총리는 또 "국책사업이 극단적인 방식에 의해 지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율 스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롱뇽 시민행동 박영관 대표는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유철주 기자

"값싸고 빠른 전화포교 아시나요?"

KT 한통 퀵서비스 음성 · 문자 포교시스템 개발

"2월 17일은 불자님 댁의 가장 ○○○님의 생일입니다. ○○사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축하 발원드립니다."

유 · 무선 전화와 핸드폰 등을 활용한 포교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돼 화제다.

KT한통퀵서비스는 "각 종교기관의 데이터 서비스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정보통신마케팅을 접목한 링고 시스템과 크로샷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링고 시스템은 유 · 무선 전화의 발신음 대신에 음성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교행정 시스템이다. 또 크로샷 서비스는 각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신도의 생일 · 제사 등을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한꺼번에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도관리에 초점을 뒀다.

KT한통퀵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유 ·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종교행사 안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는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알림으로써 포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T한통퀵서비스는 링고, 크로샷 시스템의 장점으로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과 기존의 인쇄물의 우편발송 보다 월등히 저렴한 비용, 신속성 등을 꼽았다.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KT한통퀵서비스 정보전략팀 박상균 상임법사는 "전화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종교시설을 찾은 것처럼 경건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2000여가지의 음원을 자체 개발, 이를 음성 및 문자로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획기적인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02)755-9999

박봉영 기자

영어로 불교 배워요

영어로 경전을 공부하고 싶다면? 2월 19일부터 10주간 봉은사 동법당에서 열리는 <금강경(Diamond Sutra)> 강의를 주목해 보면 어떨까.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WFBY Korea) 클럽25에서 봉은사 포교국장 선업 스님이 강사로 나서 틱낫한 스님이 저술한 <금강경 해설서>를 교재로 영어 강좌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회원인 클럽25에서 주최하는 강좌이지만 강의를 듣는 연령은 청소년층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클럽회원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클럽25의 영어 원전 강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클리브 에리커의 <불교(Buddhism)>,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서 <반야심경의 이해(The heart of unerstanding)> 등을 교재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WFBY Korea 회장 선업 스님은 "처음에는 영어로만 강의했는데 어려워해서 요즘에는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강의한다"며 "영어 읽기와 독해가 가능한 사람 누구에게나 강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강좌 등록비는 학생 1만원, 일반인 2만원. (02)545-8177

강지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총림율원 학인모집공고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율행을 지켜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수행자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시키고자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축총림율원을 개원하고 율원 학인을 모집코자 하오니 방부 신청을 바랍니다.



불기 2549년 2월

입방자원자격
·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0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모집일정
· 접 수 : 2005년 3월 11일까지(음 2월 2일)
· 전 형 : 2005년 3월 12일 오후 1시(음 2월 3일)
· 발 표 : 2005년 3월 14일(음 2월 5일)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2) 승적사본
3) 졸업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6) 건강진단서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8) 사진(4×5) 5매
9) 본인 도장

문의처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통도사 영축총림율원 전계사겸 율주 중산 혜남

각 총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어(요약)

머무름 없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몰종적(沒蹤迹)하고 단소식(斷消息)이여
운무근(雲無根)이어니 풍하색(風何色)고
자취가 사라지고 소식이 끊어짐이여
구름은 뿌리가 없거늘 바람에 무슨 빛깔이 있겠는가

법안문익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머무름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머무름 없는 근본입니까?"
이에 법안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형상은 바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고, 이름은 이름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니라."

사실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삼계(三界)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삼계에서 애착하는 일들을 몽땅 털어버려야 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애착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아직 결제가 덜 끝난 것입니다. 꿈속에서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것은 삼계의 혼침과 산란이며, 또 익숙한 경계라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도 사실 혼침과 산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꿈속에서 화를 내거나, 깬 후에 익숙한 경계라고 소홀히 하는 것 모두 혼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이것을 환금(幻金) 즉 헛것인 금덩이를 끼고 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금은 광석 속에 묻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진 안목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까지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리라는 법도 없고, 대중들도 반드시 그것에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제는 스승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요, 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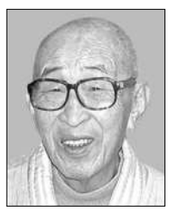
법안문익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머무름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머무름 없는 근본입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석상초원 선사의 법을 이은 임제종의 장산찬원(蔣山贊元) 선사는 "머무름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니…"라고 크게 말하고는 주장자를 높이 들고서는 말했습니다.

"주장자는 머무름 없음의 근본이다. 이 주장자는 아침에 서천(西天)으로 갔다가 저녁에 당(唐)나라로 돌아온다. 시방세계를 모두 이 주장자가 세운 것이니 말해보라. 형상 없는 도량도 세울 수 있는가?"

해제대중들이 형상 있는 도량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제대로 주장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해제 후의 만행길은 모두 형상 없는 도량입니다. 형상 없는 도량에서 다니는 것 없이 다닐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법안 선사의 뜻이요, 장산 선사의 마음에 계합되는 것이요, 이 산승의 해제법문에 대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찰진도회(刹塵道會)에 처처보현(處處普賢)이요
누각문개(樓閣門開)에 두두미륵(頭頭彌勒)이로다.
티끌세계에서 도와 만나니 곳곳이 보현이요
누각의 문이 열리니 일마다 미륵이라

봄날 풀은 스스로 푸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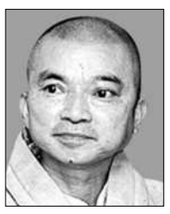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어느 날 임제 선사(臨濟 禪師)가 시중(示衆)할 때에 이르되
"내가 황벽 선사(黃檗 禪師) 처소에서 세 차례 불법(佛法)의 올바른 대의(大義)를 묻다가 세 번이나 방망이를 얻어맞았는데, 마치 쑥대밭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 한 방망이를 맞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때릴런고." 하니,
이때에 어느 수좌가 대중 가운데에서 나와서 이르되 "제가 때리겠습니다"함에, 임제 선사가 주장자를 들어 수좌에게 주었더니 그 수좌가 잡으려고 하거늘 임제가 문득 때렸다.
대중(大衆)은 임제 선사의 응용처(應用處)를 잘보라, 여탈자재(與奪自在)하니 조용동시(照用同時)니라.
송하여 이르되 "춘초자청청(春草自青青)이요 화지자장단(花枝自長短)이로다(봄날의 풀은 스스로 푸르고, 꽃가지는 스스로 길고 짧더라)."

개울물소리 바위를 쏘아…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선방에 남아있거나, 가행정진을 하던지 발 닫는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독하게 조사관을 단속(團束)하여 타파해야 합니다. 조사스님의 마음을 바로 보고 알아차린다면 청풍명월이 내 소유요 청산백운(靑山白雲)이 내 소유입니다.
호호탕탕(浩浩蕩蕩)하여 한 티끌도 없습니다. 한 티끌 없는 씻은 마음에는 생사가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능(菱)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 능은 진흙에다 뿌리를 두고 물속에 줄기를 뻗어 물위에 잎을 내는데 이 잎은 마치 바늘모양으로 쭈뼛쭈뼛하고 다년간 사는 식물입니다. 이 능이풀이 날마다 쭈뼛쭈뼛하니 대중들은 이 도리가 무슨 도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이르십시오.
조계의 높은 봉우리 오른지 오래거니
세간의 사람 일에는 나는 재능이 없었네
개울물소리 바위를 쏘아 창앞에 부르짖고
산빛은 구름헤쳐 눈앞에 층층하구나.

●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 제작 마감관계로 이후 나오는 '해제법어'는 다음호에

'범어사 설선대법회에 나오는 10대 선사 수행이력 (법회일정順)

20여년 장좌불와 · 오후불식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해방과 함께 귀국,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 가까이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을 한 스님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면서 간화선의 대표적인 선어록인 <선문촬요> 강의로 유명하다. 또 봉암사, 원효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현재 범어사 조실이다.

'북 송담 남 진제'로 통해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한국 근대선의 거봉 경허 스님 이후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선사로 수좌계에서는 '북(北) 송담 남(南) 진제'로 통한다. 1931년 경남 남해生. 54년 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8살 때(61년) 화두 관문을 뚫고 향곡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의 조실을 맡고 있다.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혜국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1949년 제주生. 1961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70년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했으며,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팔만대장경각에서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하기도 했다. 77년부터 제주 남국선원에 무문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선수행 풍토를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현재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이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기틀 세워

고우 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1937년 성주生. 20살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8년 청암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관응 스님으로부터 <기신론>,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혼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배운 후 김용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68~9년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다.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지냈다.

제방선원에서 30여년 수선안거

인각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194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인각 스님은 범어사에서 나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업 후 태안사에서 범룡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열람했으며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여 년 동안 수선안거했다.
현재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이며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과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아 간화선풍 선양에 진력하고 있다.

'선농일치' 직접 실천

현산 스님

(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1943년 전남 담양生. 1961년 19살 때 도천 스님(現 화엄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했다.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1997년부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을 통한 선수행을 하고 있는 도천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자상한 법문으로 유명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종 禪 기본교육 '수장'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서울고등학교 1학년 때 룸비니 불교학생회에 들어가 불교에 입문했고 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부 시절 성철 스님을 만나 선 법문을 듣고 발심, 1967년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69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해인사 백양사 운문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쌍계사 금당선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장과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재가선방 설치 지도

무여 스님

(봉화 축서사 선원장)

1940년 경북 김천生. 군복무 시절 조계사에서 <반야심경>을 듣고 발심, 6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40여 년 동안 수선안거했다. 1987년 이후 봉화 축서사에 주석, 재가선방 '선열당'을 짓고 재가불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인사 선원서 30여년 참선

원융 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1938년 전남 고흥生. 성균관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72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7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수행 중이다. 2004년까지 7년간 조계종 기본선원의 교선사를 맡았으며, <서장> 강의로 유명하다. 현재 해인총림의 수좌(총림에서 방장 다음으로 가장 윗자리에 앉는 어른)로 해인사 선방을 이끌어 오고 있다.

봉암사에서만 30여년 정진

정광 스님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장)

1942년 경남 창원生. 20대에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발심, 61년 쌍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40여 년간 선원에서 정진해 온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대표적인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봉암사에서만 30년 이상 정진한 스님은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 관련 비문들을 번역, 연구한 결과를 묶어 <지증대사비명소고>를 펴내 한국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제16기 전생 · 빙의/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 · 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재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사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 (VIDEO) 교육과정

통신교육 방식
▶전생 · 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대한적십자사 부산 불교봉사회' 지구협의회로 승격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니 탄탄대로"

'불교 봉사회' 통한 조직 관리 한 몫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불교 봉사회로 첫 깃발을 올린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 이하 불교봉사회)가 2월 15일, 지구협의회로 승격되면서 불교 봉사활동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어 화제다. 대한적십자사내에 '불교'의 이름으로 지구협의회로 승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불교봉사회 회원들이 지구협의회 승격 인증서를 받아들고 활짝 웃고 있다.

동래지구협의회에 소속된 단위회 조직이었던 불교봉사회가 1년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5개의 단위회를 둘 수 있는 지구협의회로 승격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내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불교봉사회의 경우, 10년이 걸려 지구협의회 승격을 이룬 것만 봐도 대한적십자사내에서 불교봉사회의 지구협의회 승격이 갖는 의미를 짐작하고 남는다.

연 봉사인원 4574명, 연 예산 2천4백여만원, 월 고정 지출액 60만원. 이 같은 통계수치는 다른 지구협의회의 3배, 여타 단위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또한 불교봉사회 창립 당시 13명이던 회원은 70명으로 늘어났으며, 후원자까지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범어사, 국청사, 원효암, 여여선원 등 부산지역 사찰에서 공부해온 불자들의 신심과 이타행이 대한적십자사의 봉사이념과 부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둔 셈이다. 지구협의회 승격의 자격 요건이 되는 발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봉사회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펼치는 복지관 봉사, 북한동포돕기, 쓰나미 구호 성금 2백만원 전달, 김장 봉사 등을 비롯 지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동안 '불교봉사회'는 불교봉사자들을 한데 모아 내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 체계적인 불교의 힘을 대변해왔다.

불교봉사회는 지구협의회 승격을 계기로 하나단위회(회장 심금조), 두리단위회(회장 김호선), 연등단위회(회장 최삼련), 유심단위회(회장 황재연), 수련단위회(회장 권점이) 등의 단위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봉사회는 창립 2주년이 되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창립 기념 법회를 갖고 지구협의회 승격을 자축하게 된다. 이날 법회에는 그동안 후원해준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국청사 주지 계전 스님을 비롯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박추자 불교봉사회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겠다는 한 생각으로 달려왔더니 이처럼 기쁜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적십자사 발전과 불자들의 봉사 참여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거사들 바람 심상치 않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유마회 창단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상진)에 거사불교의 바람이 분다.

통도사부산포교원 부설 신행학교와 대광불교대학에서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마친 거사들이 유마회를 창단하고 거사 중심의 신행활동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부터 준비 모임을 가져오다 26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월 17일 창단한 유마회는 2월 16일에는 정기법회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신행학교나 대광불교대학을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유마회는 우선 통도사부산포교원 내 행사에서 차량 정리 봉사, 법당 안내, 궂은 일 등에서 거사들의 힘을 발휘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열리는 정기법회나 초파일 특별행사인 삼천배 법회, 성지순례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봉사로 역량을 키운 후 장기적으로는 포교를 겸한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신행학교 10기, 대광불교대학 4기를 수료하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명복(59 · 혜광) 거사는 "포교원내의 여러 신행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펴는 봉사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상락정 배산 실버빌 가을 개원



2004년 3월에 착공한 부산광역시 최초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상락정 배산 실버빌(이하 상락정 · 사진)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2005년 가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진척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는 최근 지상 3층 연면적 611평으로 약 9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락정의 최종 투시도를 선보였으며,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간 장비를 갖춘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사람이 나면 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제 원만히 해결됐다"며 "하루빨리 문을 열어 어른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만해마을, 문학 총본산 자리매김



세계문인, 남북 학술대회 등

'아카데미' 지역민에 큰 호응

백담사 만해마을(사진)이 올 한해 국제문학 행사와 지역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서 한국문학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7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시상, 전국고교생백일장 등의 예년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문인대회 개최를 함께 추진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또한 8월 만해축전에 맞춰 남북한 만해학학술대회를 열어 남북한 학자들이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돼 있다. 매분기마다 강원도 출신 문인들의 생가와 작품 소재를 찾아 떠나는 문학기행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만해마을문예학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행사도 눈길을 끈다. 만해축전에 맞춰 '만해청소년교육관'을 개원하고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푸른나무 예술제'(5월), 아프면서 크는 나무 '청소년인권문화제'(5월),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심성수련캠프'(7월)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신경림 김원일 황지우 성석제 등 문단의 대표 문인들을 초청해 큰 호응을 얻었던 문학강좌 '토요문학아카데미' 역시 5월부터 매월 이어질 예정이다.

강신재 기자

3월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본격 추진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도사 불교문화관광특구' 추진과 관련, 김양수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중앙정부와 협의에 착수한데 이어 3월 중 양산에서 국회차원의 '불교문화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해 특구 지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지 2월 9일자 5면 참조)

김 의원은 특히 "한국의 3대 사찰중의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가 불교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체류형 관광 벨트화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14일 밝혔다.

김의원은 또 "양산지역이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달 중에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양산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와 김 의원은 정부의 지역특화 발전정책에 따라 지난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문화와 관련된 특구지정에 착수, 다음달 말까지 기초조사에 이어 4월께 용역발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연내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특구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천미희 기자

금정산 · 천성산 살리기 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금정산과 천성산 고속철 통과를 막기 위한 참회정진기도 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가 봉행한 참회정진 기도는 지율스님 단식 100일째를 맞아 조계사에서 진행됐던 참회정진 기도를 이어가며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을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정초기도 기간동안 봉행된 참회정진 기도는 매일 오전 참여한 대중이 생명의 귀중함을 되새기는 발원문을 봉독하고 고속철 공사가 가져올 환경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강화 선원사 군 · 교도소 등 보시

인천 강화 선원사가 부처님 오신날에 달등을 전 지역 육 · 해 · 공군 법당과 교도소 · 구치소 법당에 무상 보시한다.

주지 성원 스님은 "군 · 교도소 · 구치소 포교는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등을 보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원사는 등이 필요한 각 군 · 교도소 · 구치소 법당이 필요한 수량을 요청해오면 전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원사는 코팅지로 제작된 보관이 가능한 등으로 5톤 차량 네대분 분량을 확보해 놓았다. (032)933-8234

한명우 기자

청소년 쉼터 · 양정수련관 교류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산시청소년쉼터(소장 범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이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월 16일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요일은 자원 봉사의 날' 행사에서 가출한 지 일주일을 막 넘긴 현아(가명 · 19)는 장애아들의 방과 후 교실을 도우며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다.

청소년쉼터와 양정청소년수련관이 서로 교류 연계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 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맛봄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의미를 더하는 봉사 현장이었다.

부산시청소년쉼터에는 현재 입소자 3명 중 2명이 집에 돌아간 상태여서 쉼터 봉사자와 함께 한 현아는 장애아동의 학습을 도우며 가출로 인한 불안을 떨치고 준비중인 검정고시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 기자

한몽불교협 설립기념 법회

(사)한 · 몽불교교류협회(대표이사 지성)는 2월 26일 오후 4시 대구 프린스호텔 에서 설립기념 축하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과 몽골 최대사찰인 간단사 대표단, 우루쥔 훈데브 주한몽골대사, 이외수 한몽불교교류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 민간 교류 지방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앞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구상중이다.

특히 설립 기념 법회 다음 날인 27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초청, 위문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보현회 회장 이 · 취임식

부산개인택시 보현회(회장 김신한)는 2월 17일 범어사 동래포교당 법륜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법륜사 주지 선래 스님, 이신복 동래구청장, 부산 보현의집 이기표 원장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새로 취임한 김신한 회장은 "앞으로 불교행사는 물론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천미희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 3년과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 2년과정 : 2005년 2월 5일(토) 개강 현재접수중

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정규반 (토요일 오후 6시) · 주간반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2005년 3월 10일(목) 오후7시개강

과목	· 한문설문해자(1), 한문설문해자(2) · 한문법(1), 한문법(2) · 육조단경(1), 육조단경(2) · 금강경(1), 금강경(2) · 역경(1), 역경(2) · 장자(1), 장자(2)	정규반
교수진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활안스님 · 송찬우교수(승가대)	통신반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8일(화) 오후2시개강

교과목	· 차문화사(한국, 중국, 일본, 유럽) · 제다학(1),(2),(3) · 심평 · 한국의헌다례 · 사찰다도법 · 다도선 · 차수행법Ⅰ · 차수행법Ⅱ
지도교수	· 이귀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 박전열교수 적경스님 / 지운스님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9일(수) 오후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긋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 사불이론, 실기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불교장례문화학과 2년과정 : 2005년 3월 8일(화) 오후7시개강

교과목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 · 종교의례 · 장례역사 · 불교의례실습 · 보건법규 · 불교환경론 · 장묘제도론 · 사회복지개론 · 장례경영론 · 임종론 · 불교상,장례문화이해 · 실습 · 견학 등
지도교수	· 김일무 교수 외

불교문화답사학과 3년과정 : 2005년 3월 9일(수) 오후7시개강

이론 실기	· 한국불교문화Ⅰ(불교미술중심) · 한국전통문화Ⅰ(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Ⅱ(인물,사상,신앙) · 해외불교유적Ⅰ(중국,티벳,일본) · 한국유교문화Ⅰ(궁궐,서원,종묘) · 해외불교유적Ⅱ(인도,파키스탄,동남아시아)
지도교수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교수)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5년도 불교지도자고정 (3년과정)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내용
불교학과 (정규, 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법화경(5)	박 종	이번학기 강좌는 법화경 5학기에 해당하며, 제21품 여래신력품에서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해심밀경(2)	묘주스님	묘주스님이 강의하는 해심밀경은 유식학의 소의 경전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능업경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업경 보경소(7)	송찬우	대승수행경의 꽃인 능업경은 이제 7권째 강의중이며 관세음 이근원통의 수행원리와 능업주의 묘용을 강의한다.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아라한과 열반)	최봉수	근본불교의 수행사제인 9차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과와 열반에 대해 공부한다.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불교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능업경)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근본불교)

3. 개강일시 불 교 학 과 2005년 3월7일(월) 오후 7시
능 업 경 학 과 2005년 3월8일(화) 오후 2시
근본불교학과 2005년 3월10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가득찬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문의 교부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5년도 (2년과정)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불교한글의식교육원

● 정규과정(2년)

실습편: 무진스님	이론편: 심만춘스님
전통과 한글 의식 작법 실습과 이론 • 천도의식	

● 주,야간과정(2년)

지도법사 : 양성도(야간), 문종순(주간)
예경의식 • 헌공의식 • 법회의식 • 시다림

● 바라과정(2년)

지도법사 : 인각스님
요잡바라 • 천수바라 • 나비춤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20명(2년) • 주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매주 토요일(정규반)오후 1:00 ~ 5:00 • 매주 금요일(바라반)오후 3:00 • 매주 목요일(주간반)오후 12:30 • 매주 수요일(야간반)오후 7:00

3. 개강일시 • 토 요 반 : 3월 12일(토) 오후 1시
• 수요야간반 : 3월 9일(수) 오후 7시
• 목요주간반 : 3월 10일(목) 오후 12시30분
• 바 라 반 : 3월 11일(금) 오후 3시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재가자 위한 화엄학림 개설



화엄학림 강의가 진행될 광주시 내남동 자비신행회 교육관.

실상사 화엄학림 · 자비신행회 공동운영
3월26일 개교, 불교 활동가 양성에 기대

승가와 재가가 함께 공부하며 자비실천행을 펴는 교육기관이 탄생한다.

조계종 승가전문교육기관인 실상사 화엄학림과 재가봉사단체인 (사)자비신행회는 '재가 화엄학림(華嚴學林)'을 개설하고 오는 3월 26일 1기 입학식을 갖는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해강 스님은 지난 2월 17일 "재가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가 불교자원봉사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을 요청해, 대중논의를 거쳐 재가 화엄학림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며 "화엄경을 근본으로 불교개론, 중론, 금강경과 전문교육으로 유식개론, 대승견론, 수행론, 화엄사상사, 화엄현담, 법계도기(법성게), 화엄경 등의 과목이 2년 과정으로 설강되며, 24과목 총 45학점 가운데 35학점이상 이수해야 졸업하게 된다.

학기 중에는 화엄사찰을 찾아 교리를 체득하는 '찾아가는 화엄학림'과 분야별 특강, 수련회가 년 10여회 펼쳐진다.

교수진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재연 스님을 비롯해 도법, 해강, 각묵, 자승 스님 등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총출동한다.

강의는 광주 내남동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펼쳐지며, 자비신행회가 학사 운영을 맡는다.

재가 화엄학림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불교 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해 실천하는 불교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재연)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올해 9기를 모집하고 있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는 1999년 설립된 자비봉사 신행단체로 연인원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활동, 한꽃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 등 광주 전남지역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062)234-2733

이준엽 기자 maha@buddhapia.com

바람직한 불자상을 정립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강 스님은 또 "그동안 실상k사 화엄학림은 승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해 재가와 함께 하는 공부나 포교경험이 부족하다"며 "재가 화엄학림을 통해 승가와 재가가 함께 호흡하며 실천하는 불교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화엄학림은 기본교육으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

효사랑 실천운동 적극 동참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의회는 창립을 겸한 효사랑 실천다짐법회를 봉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실천 운동에 지역불교계가 적극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의회(회장 도산)와 남구청 불자회(회장 오기주)는 2월 15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광주 남구청이 펼치는 효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법회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 승보회장 광민 스님, 태고종림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암 스님 50여명과 황일봉 남구청장, 서용 남구의회 의장 등 지역기관장, 광주전남 포교사단 김인식 단장, 광주 운불련 유영식 회장, 서부경찰서 불자회 김창배 회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남구 불교사암협 회장 도산 스님은 "새해 들어 포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남구지역 사찰들이 모여 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오늘 불교 협의회 창립을 알리고 만행의 근본인 효사랑 실천 운동에 불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위해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일봉 남구청장도 축사에서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은 그대로가 보살행으로 효사랑 실천운동에 불자들의 적극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남구 불교 사암협은 황일봉 남구청장에게 '효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남구청이 추진하는 효사랑 실천 운동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남구지역 관내 사암 주지스님들은 남구 불교사암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도산 스님(대각사 주지)을 선출했다. 남구 관내에는 30여개의 사찰이 있으며 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복지관련 포교와 사찰환경파괴 등의 당면문제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혜룡 작법전수원 개원



광주에 불교 영산재 전문교육도량인 혜룡 작법전수원이 문을 열었다.

광주 혜룡사(주지 혜우)는 2월 17일 우산동에 혜룡 작법전수원을 개설하고 제1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전수원장 혜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지역에 불교의식을 보급하고, 후학들을 배출하고자 작법 전수원을 마련했다"며 "불교의식은 불교의 근간이자 세계적인 전통문화로 포교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혜룡 작법전수원은 1년 과정으로 범패, 작법 등 불교의식 전반에 관해 교육하며 강의는 도담 스님(중요 무형문화재 50호 범음범패 전수생)이 맡는다. (062)515-7749

이준엽 기자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 성보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문화재청으로부터 성보박물관 설계비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은 법주사는 5월 이후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성보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2월 16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85억원을 들여 법주사 내에 건립되는 성보박물관은 740여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법주사와 법주사 말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게 된다.

법주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중 하나로, 불교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미륵세계사 복원"

충주시 · 문화재청 3월부터

신라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최고의 미륵성지였던 충주 월악산 미륵세계사(주지 덕관). 그 미륵세계사가 중창불사를 통해 불교성지로 되살아난다.

충주시와 문화재청은 중원미륵리세계사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미륵리사지 석불입상과 석불 옆 석실에 대한 정밀실측 및 안전진단 등을 벌인 후 본격적인 복원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복원은 연차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올해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복원과 요사채 건립이 추진된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안암산 개운사

교육·기도·포교 3색 갖췄다


입춘기도 회향으로 2월4일 열린 종진 스님 초청법회. 개운사는 매월 관음재일 고승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전통사찰 개운사. 무학대사가 창건한 개운사는 몇 년 전만 해도 중앙승가대학이 있었던 교육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중앙승가대가 김포로 옮겨가면서 개운사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2005년 2월….

언제든 일몰 뒤에 개운사에 가면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연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1천일기도에 들어간 신도들이 밝혀놓은 1300개의 등불은 개운사가 더 이상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사찰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승법회 · 철야기도 등 신행프로그램 활발
7대 사업 추진 통해 조직 복원 심혈

그렇다. 불과 7개월 만에 개운사는 확 달라졌다. 절을 떠났던 신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젊은층 신도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종일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찰 운영 체계도 확고히 자리잡았다. 현 주지 공운 스님이 오면서부터다.

공운 스님을 포함해 개운사 주지는 2년 새 5명이나 바뀌었다. 잦은 주지 교체는 지속적인 사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 이탈 현상까지 초래했다. 공운 스님은 법랍 30년 가량 된 베테랑급 스님들을 스카우트(?)해 3직을 구성했다.

그리고 고승초청법회, 1천일기도, 철야기도 등의 신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도회 · 거사회 · 청년회 복원에 착수하는 등 개운사 재건에 나섰다.

그러자 관음재일날 20~30명에 불과했던 신도들이 지금은 200명을 넘어섰고, 매월 음력 7일 철야기도에는 150명이 참석할 정도가 됐다.

하지만 공운 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개운사의 올해 사업은 모두 일곱 가지. 3월1일부터 9일까지 전통범패의식과 영산재의식을 곁들인 특별영가천도기도를 시작으로, 두 달에 한 번 5대 적멸보궁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도량 1만등 달기에도 적극 나선다. 신도회 등의 조직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파일에 즈음한 지역 경로잔치, 노숙자 등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군 · 교도소 위문법회단 창립 등 대외적인 포교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사회와 대중에 대한 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운 스님은 "누가 주지를 맡더라도 일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일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개운사는 중앙승가대를 지원하는 교육도량이자, 관음기도도량으로서의 기존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02)926-4069

한명우 기자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우리들의 친구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은 우리들의 친구랍니다.
마음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자용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요.

룸비니 동산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45분,
룸비니 동산에서 만나요!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큰절·큰산·큰불심… '큰세상' 만들기 앞장

경북 영천·경산

영천

태백산맥의 정기를 담은 보현산과 서쪽으로 팔공산, 동쪽으로 운주산이 둘러싸고 있는 영천에는 헌덕왕 원년(809)에 혜철 국사가 창건한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가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또, 526분의 나한이 모셔진 영산전(국보 제14호)으로 유명한 거조암, 비구니 참선 수행도량인 백흥암,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보리수로 자란 운부암, 김유신 장군이 수련한 돌구멍절 중암암, 비구스님의 참선 수행처 기기암 등 8개의 은해사 산내암자가 수행도량으로 유명하며,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30여개의 사찰이 영천사암연합회원 사찰로 가입돼 있다.

사암연합회 사찰 중 조계종 사찰은 10여개. 노천 아미타불 입불, 만불보전 만불부도탑 등으로 유명한 만불사와 지장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충효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은해사 말사로 영천불교의 중심에는 은해사가 있다. 반면 타 종단 개찰간의 협조나 연합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은해사는 영천지역민들에게 우리 절로 통한다. 그만큼 은해사가 지역주민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셈. 은해사의 이런 변화는 2002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면서 더 빠르게 가시화됐다. 불교교양대학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영천시민이라면 불교교양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여기에는 은해사의 노력도 한몫 했다. 정월 보름 윷놀이, 주말 템플스테이, 지역 젊은이들이 동참하는 은해사주지스님 배 족구대회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하나 되고, 개산대재에는 청통면과 결연을 맺어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앞장섰다.

이런 은해사의 노력은 지역민의 70%정도를 불자로 흡수하면서 영천을 불교 도시로 꽃피웠다. 신행단체인 시청불자회 미타회와 경찰서 불자회인 현정 불자회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영천 경찰서는 전 직원이 불자나 다름없을 정도다. 또 최근 영천지역 청년회가 사암연합회장 법의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오면서 모든 청년회원이 불자 청년회로 전환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한편 영천 지역 복지는 전무한 상황. 은해사는 최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영천에는 충효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이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또, 대학도시인 하양 경산을 인접하고 있는 은해사는 대불련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은해사 족구대회 모습. 영천을 대표하는 은해사는 족구대회, 윷놀이대회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은해사·사암련 중심으로 공부·봉사·포교에 사철 분주

원효·일연 등 탄생 성지 '자랑' 각단체 맞춤신행 '효과 만점'

경산

경산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군주로 있으면서 삼국통일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고장이며 대승불교를 전파한 원효 성사, 이두문을 훈해한 설총 선생,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선사와 같은 훌륭한 선인들이 태어난 고장이다.

특히 경산 자인 제석사(주지 적연)는 원효 스님의 탄생지로, 불굴사(주지 법정)는 원효 선사가 수련한 석굴 원효암으로 유명하고 설총이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반룡사도 일반에 친숙하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경산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갓바위 부처님(관봉석조여래좌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전국제일의 기도도량인 갓바위 부처님이 있는 만큼 팔공산 골짜기에는 온갖 군소 종단과 종파의 개찰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무속인들의 출입도 잦다.

요즘 갓바위에는 전국적인 기도도량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부터 갓바위 성역화를 위한 계단보수 및 유리광전불사를 진행중이다. 조만간 화장실도 깨끗이 변할 것이다. 지난해 가을, 갓바위 축제에서 무속인의 굿판 대신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린 것도 큰 변화중 하나다.

갓바위의 신선한 변화에 반해 타종교와 종단 종파가 산재해 있는 경산시 불교는 그리 매끄럽지만은 못하다. 종단, 종파를 초월한 화합과 단결이 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지역 내 불자들의 신심만큼은 높은 편이다. 영천지역만큼은 아니어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지역민이 불자다. 특히 5년 전에 발족한 법우회(시청 불자회)는 60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며 시청 내 가장 결속력이 강한 단체로 부각되고 있다. 또 (사)경산시 불교여성연합회(회장 변윤자)가 불우이웃돕기와 경산동산병원의 정신지체장애자를 위한 기도모임을 갖는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가고 있다.

경산 경찰서 직원들의 신심도 빼놓을 수 없다. 전 직원이 모두 불자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사암연합회장 장적 스님이 경찰서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이끌고 있다. 그 외 갓바위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임인 발심회가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경산시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은해사가 운영하는 경산시 유일의 종합복지관인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이 있다.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복지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된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아동교실(푸르미 교실)을 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운영, 한글교실 운영 등 지역 영세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영천·경산=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구심점' 다지기 선봉장

법타 스님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94년부터 20대 22대 주지 소임을 맡으며 은해사를 영천지역 주민들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만든 장본인이다. 교구본사라고 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았던 은해사가 오늘의 사격을 갖추도록 도량 정비에도 앞장섰을 뿐 아니라 신도회 합창단, 보현회, 자원봉사단 등의 신행회를 조직하고 영천시청 불자회, 경찰서 불자회 등의 지역 신행단체 발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 지역 9개 군부대에 법당을 마련하고 군 포교에도 주력하는 등 지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올 해를 포교원년의 해로 잡은 은해사는 신도회 조직을 강화하고 2년 과정의 정식 불교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300명이상 수용 가능한 수련원 설립을 위해 고민중이다. 그리고 새로운 장례문화인 수림장(나무에 유골을 묻는 것)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 노인들의 '효자'

해공 스님 (영천 충효사 회주)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돌아 나오는 것.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독거노인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다음 생에 이어져 미래사회를 어둡게 만든다며 매월 1000여명의 지역노인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벌이며 지역복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 스님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천주교 예수성심수녀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나사렛 집을 방문해 종교를 초월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불교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한다는 스님은 경주 남산자락에서 새로운 불교문화를 보여줄 날을 꿈꾸고 있다.

신도교육 원력 세워

법의 스님 (영천 죽림사 주지)



은해사 제21대 주지를 역임하고 2002년 죽림사에 들어와 영천 사암연합회장을 맡은 법의 스님은 60이 넘은 세수에도 불구하고 영천 구석구석 자그마한 암자까지도 직접 찾아다니며 영천불교의 단합을 이끌고 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은 지난해 영천 시청 앞 오거리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초파일 야외축하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남은 생 한 불자라도 더 가르치고 가겠다"는 스님은 모든 도량 정비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불교신도대학원을 마련하여 재가 신도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개방적인 기도도량 천명

정묵 스님 (경산 선본사 주지)



2003년 10월 선본사 주지로 부임한 정묵 스님은 갓바위 부처님 성역화 불사에 여념이 없다. 전국의 스님들이 불자들과 함께 와서 언제든지 기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전국제일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모든 불사를 자연 친화라는 화두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불우이웃과 소년소녀가장, 인근 선방에 매월 60가마 이상의 공양미를 지원하는 등 지역민들과 지역사찰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포교·복지·문화 '만능 이끔이'

장적 스님 (경산 안흥사 주지 · 경산사암연합회장)



안흥사 주지 장적 스님은 지역 군 포교나 경찰 불자 포교와 백천사회복지관 지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경산시 사암연합회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님은 특히 원효 스님과 설총 또 군위 일연 스님까지 3성현이 태어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안흥사 불교회관 2층에 삼성관을 마련하고 재를 지내는 한편 지역 내 3성현의 뜻을 기리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또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운영, 지역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고 있다. 도량 불사로 그동안 지역봉사나, 이웃과 함께하는 부분에 소홀했다는 스님은 앞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나 연극 '갓바위 부처님' 등을 유치하여 지역 불교문화를 일깨우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지관을 수행도량 삼아

무이 스님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장)



백천사회복지관 제3대 관장 무이 스님은 경산 유일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봉사활동과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너무 잘 운영해 온 것 같다며 공을 돌린다.

1996년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내에 설립된 백천사회복지관이 비록 장소가 협소하고 규모가 적지만 보여주기 위한 복지보다는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경산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마을에 법향 전해

천은 스님 (경산 반룡사 주지)



천은 스님은 8년 전 법당과 요사채만 덩그마니 남아 있던 폐사 지경의 반룡사에 들어와 법당과 요사채, 정랑, 주차장을 마련하고, 삼층석탑과 해수관음보살을 봉안하면서, 용전, 부일, 괘일, 도산, 대종, 가첨 등 경산시 용성면 마을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4년 전부터는 산골 오지마을 농민들에게 경전을 직접 사 주며 농한기를 이용한 불교교리강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지역 신심 모으기 주도

갈용 스님 (경산 장엄사 주지)



장엄사 신도들의 조직력과 결집력은 경산시 불교계에 유명하다. 경산시 외의 읍과 면 단위지역에 12개의 분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는 장엄사는 초파일 행사등 지역 교계 연합 행사에 언제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96년에 창단된 합창단의 활약이 돋보인다. 또 어린이법회와 학생법회를 통해 미래의 불자양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새로 부임한 갈용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치원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스님은 젊은 세대에 맞는 불교포교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교육으로 포교 기반

대륜 스님 (경산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경산법당 주지)



2003년 5월 경산시 옥산동에 개원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경산법당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대학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불모지에서 불교대학 첫 신입생 유치는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개원 2년도 채 안된 지금 영남불교대학은 1기부터 9기가지 500여명의 불자들과 경산 남천 둔치에서 결식아동돕기 음악회를 개최하고 수송부대 위문공연을 가는 등 시민과 어우러지는 대규모 불교행사를 몇 차례 치루면서 경산시 불자들뿐 아니라 비 불자들에게도 포교의 역량을 알리고 있다.

시청직원 불심 챙기기 앞장

김두호 (경산시청 불자회장)



"요즘 신흥종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지도자 층에도 타종교인들이 많은 편이죠. 사암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는 교계의 단결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 7월 발족할 당시부터 활동했던 김두호 회장은 항상 지역불교계의 발전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 법우회는 지도법사 하종스님(경흥사 주지)의 지도아래 매월 갖는 정기법회와 년 1회의 철야정진기도, 성지순례를 갖고 연말 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를 초청하는 연합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 지급도 이어오고 있다.

체제·재정 안정…도약 기틀 마련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신년 인터뷰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올해 목표를 종단 조직의 안정,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전개, 스님 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법상종은 올해 1월 총무원을 서울 망우리에서 평택 유가사로 이전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평택 총무원' 시대의 각오는?

-법상종은 종단 화합이 깨지면서 4백여 개에 달하던 종단 등록 사찰이 250개 줄어드는 등 한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새로 평택 총무원 시대를 열며 12월 종단을 사단법인화하는 등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총무원 이전 및 유가사 개원 법회도 1월 13일 성대하게 봉행해 희망찬 서해안 시대에 맞는 종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석 상태이었던 종정에도 학암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그동안의 종단 파행을 극복할 복안은?

-종단 안정과 교세 확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법상종은 종단차원에서 송탄 무봉사에 납골당 불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현재 80%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전체 4만평 부지에 320평 규모 건물 두 동과 부속 건물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납골당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면 종단 재정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는 종단 재단법인화도 추진

수익사업 다각화로 재단법인 추진

불교교양대학 운영·스님 교육 강화

합니다. 사단법인화를 통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종단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성공했다면 재단법인화로 종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다질 생각입니다. 재단법인화의 관건도 재정적인 뒷받침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 주력할 사업은?

-평택으로 총무원을 이전한 것은 서해안 중심 포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총무원 개원법회를 통해 종도들이 유가사와 총무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우선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평택은 갈만한 사찰이 많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가, 참선, 수지침, 명리학 등을 개설해 신도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유가사를 교육원으로도 활용해 엄격한 승려득도 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행자 교육을 제대로 밟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적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화합되고 투명한 종단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종단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스님답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지도자인 스님은 구도자로서 청정한 자기 본분을 갖춰야합니다. 스님들은 청정한 계율로써 국가를 이끌었던 진표율사의 정신을 되살려 마음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방편과 수단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진각종, 스리랑카서 의료봉사

진각종 · 진각복지재단 · 열린의사회로 구성된 의료 · 구호봉사단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파나두라 갈고다(Galgoda Camp)사찰에 임시로 마련된 수용시설과 모다라윌라, 호빌라고델라, 네곰보 JGO센터 등에서 총 4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팀 7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11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통역 4명 등이 참가한 이번 의료 구호봉사에서 진각종은 스리랑카 주민 2000여명을 치료했다. 사진제공=진각종

조계종 스님 47명 복적 가능

승려분한 심사 결과…보류자 47명 추후 판정

조계종이 승려분한신고미필로 인한 승적제적 · 말소자 1회 구제를 위해 특별분한심사 결과, 47명이 복적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2003년 9월 23일 신설된 승려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근거로 200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승려분한신고 접수를 한 뒤 교구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한 결과, 총 접수인원 105명 중 분한처리자 47명, 사정무(戊)판정으로 승적제적처리자 8명, 보류자 47명, 대상자 아님 3명의 결과가 나왔다"고 2월 16일 발표했다.

보류자 47명 중 서류미비자는 서류를 보완하고, 사설사암미등록자는 사찰을 등록하며, 징계대상자 및 호법부 재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최종 복적 여부가 판정난다.

승려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직권제적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에 의한다'로 규정돼 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양산교구종무원 신설

종회 구성 · 종무원장 선출 등 조직정비

태고종 경남 양산교구종무원이 신설됐다.

경남 양산교구는 2월 16일 종무원 청사가 있는 광천사 명부전에서 초대 종무원장 무호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263번지 광천사 숭모회관 4층에 설치된 양산교구종무원은 이에 앞서 양산시 소속 20여 개 사암 대표자들은 1월 20일 양산 광천사에서 사찰주지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7명의 초대 지방종회의원을 선출한 뒤, 지방종회를 구성하여 종무원장을 비롯한 선출직 종무원 임원을 구성하는 등 종무원 조직구성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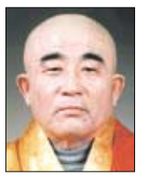
양산교구종무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원로원장 월봉 △종무원장 무호 △부원장 도오 △포교위원장 법성 △교육위원장 정각 △총무국장 현불 △교무국장 도성 △사회국장 일각 △규정국장 법중, 지방종회= △지방종회의장 법성 △부의장 혜성 △사무국장 일각 △의원 도성 · 법중 · 도성 · 도오, 지방사정원= △지방사정원장 혜성 스님.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27일 양산 교구 설치를 승인했었다.

김원우 기자

"종무원 운영에 사찰동참 이끌터"

인 터 뷰 초대 종무원장 무호 스님



"양산불교사암연합회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빠른 시일 내에 양산지역 사회에서 종단과 종무원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종무원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16일 경남 양산교구 초대 종무원장에 취임한 무호 스님(사진)은 조직확대 및 정비를 종무원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양산지역에 태고종 사찰이 20여곳에 불과하지만 올해내 60개 사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정기적인 교육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확고한 종단관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임직원들과 함께 각 사찰을 순방하여 종무원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종무원 주최로 대규모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태고종단과 양산교구종무원이 지역사회에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aego.org 다시 문엽니다"

태고종, 3월1일 부터…종무행정 · 웹진 등 보강

종단홍보와 사이버포교를 담당할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org)가 3월 1일 재개통한다.(사진)

새로 개통될 태고종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종단안내, 종단소식, 불교탐구, 자료실, 종무행정, 승가입문, 커뮤니티, 태고웹진 등으로 꾸며졌다.

태고종 홈페이지에는 종단의 종조 · 종헌 · 종지종풍 · 종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태고웹진등을 통해 종단의 각종 공지사항과 불교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종무원과 각 사찰 및 산하단체들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무행정」과 「승가입문」등 행정안내와 전산 시스템을 보강하고 사이버 1:1 서비스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도교육과 포교를 위해 '불교탐구' '자료실' '커뮤니티' 등의 콘텐츠를 통해 불교사전, 경전, 법문부터 각종 사진 및 동영상, 불교음악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태고종 전산원의 지안 스님은 "21세기 정보산업화 시대에 발맞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무행정 전산화 및 통합 정보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 했다"며 "통합 정보망이 구축되면 종도와 종단간의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피스로드 캠프 참가자 나오키씨와 타카코씨는 2월16일 수요집회에서 '일본정부 공식사과'를 강력히 외쳤다.


피스로드 참가 일본 학생들이 청소 봉사를 끝낸 후 '나눔의 집' 박옥력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사문제 공감 · 끈끈한 우정 확인

광복 60주년 · '韓日 우호의 해' 맞아 의미 각별

피스로드(peace road)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2002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열리는 역사체험 캠프.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가는 '위안부 문제'를 후세에 전달하고자 기획된 피스로드에 평화를 향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고자 '나눔의 집'에서 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한 제6회 '피스로드 캠프'. 참가자들은 2월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참석을 통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참석, 서대문 형무소 관람
전쟁 피해 보상 · 교과서 문제 등 허심탄회한 토론

2월 16일 일본대사관 앞 제644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궂은 날씨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며 일본 대학생 나오키(24)씨와 타카코(24)씨가 대사관을 향해 외쳤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일에 눈을 감을 겁니까! 그 과거를 직접 마주한 이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한 미래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에 이어 한국 대학생 이성구(26)씨가 나섰다. 할머니들의 청춘을 빼앗고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자작시 '호소의 시(詩)'를 힘주어 낭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그저 무심히 지나쳐 가는 인근 회사원들의 발걸음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래도 '보상하라'며 열심히 구호를 따라 외치는 30여명의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는 한국 대학생 16명과 일본 대학생 1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6회 나눔의 집 피스로드(Peace Road) 캠프'가 열렸다.

학생들은 '피스로드'란 말 그대로 미래의 평화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직접 겪은 할머니들을 통해 그 역사를 체험하고자 스스로 찾아왔다.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싶어 하는 열린 열정의 소유자들인 셈이다.

사실 피스로드는 2002년부터 매년 열려왔지만 올해는 광복 60주년에다 '한 · 일 우호의 해'라 의미가 각별하다. 그래서인지 양국 대학생들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아득하지만 누군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수요집회 참석에 앞서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에 대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 이 곳에서 일본학생들은 연신 "사무이데스(추워요)"라고 말하며 형무소의 차가운 고문 틀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만 듣고 고문현장을 처음 찾은 양국 학생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기구와 사형집행 장소를 보면서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다 캠프에 참가한 키요에(64)씨는 형무소를 둘러보며 "이렇게 잔인한 역사가 있다니, 정말 미친 짓"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피스로드에서 참관과 체험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피스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역사문제를 인식할 것인가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자국의 역사인식,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도 벌였다.

일본 지도층의 과거사 문제 관련 망언이 계속되고 일본 재판부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패소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 "일본 국내법 미비와 양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성 문제로까지 위안부 문제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토론을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양국의 '교과서 문제'였다.

일본 학생들은 "현재와 같이 극우 세력이 사회전반을 주도할 때는 일선학교에서 일본의 과거사가 왜곡되거나 삭제된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터였던 오키나와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이 때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내 놓았다.

한국 학생들은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제 7차 교육과정 역사책에서조차 위안부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단 몇 줄"이라고 흥분했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문제에는 조용하다 유독 '교과서 문제'에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학생들이 교과서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잘못된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후세대들을 자꾸 길러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잘지내보고자 노력하지만 진정 그렇게 될 수 없는 근원적 문제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통역을 맡은 오가사와라(36)씨는 교과서보다 교육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요. 결국 중요한건 마음이거든요."

오기사와라씨는 자신이 한국 유학생활을 통해 알게 된 위안부 문제를 현재 일본 교토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일본 학생들과 재일한인 2세에게 알리고 있다.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엄연한 차이. 하지만 캠프 참가자들에게는 오직 '올바른 역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일정 속에서도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여느 청년들의 모임에서 볼 수 있듯 "술 한 잔 하자" "꼭 전화해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오갔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깊은 동질감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놓은 것이다.

캠프에서 함께하며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지운 것도 양국 학생 모두 똑같았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실천적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현석(25)씨의 말에 수긍하고는 진지하게 다시 토론하면서 이것저것 함께 하자고 모의하는 한 · 일 학생들. 이들에게서 위안부 문제와 같이 자꾸만 잊혀져 가는 양국 역사의 굴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축적되고 있었다.

3 · 1절을 앞두고 펼쳐진 나눔의 집 피스로드. 참가 한 · 일 청년들은 서로 양국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일궈내는 씨앗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글=김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청운 스님 약력
대한천문풍수명리성명협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자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황으로 불교대상수료
대한불교조계종 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태고종 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現 대한불교조계종 만복사 주지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삼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사업 하시는 분
• 이사 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사형통을 기원하시는분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세트) 가격 98,000원
※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재수대길 소원성취
Fe니켈도금+순금도금


복돼지액자 달마도액자
소재: 아크릴액자+pp금장


앞면 : 달마도 뒷면 : 만사형통부 건강부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75mm × 50mm
※ 사찰이름 새겨드립니다


소원성취 재수대길
켓츠아이 핸드폰고리
소재 : 켓츠아이+순금도금


진품달마도 액자 규격 : 44cm × 5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잘나가는 직장 불자회 되려면

6가지 '약'을 써라~

정기법회날, 10명 안팎의 회원들로 법회를 시작해야 하는 직장직능 불자회가 많다. 이런 날은 시작부터 기운 빠지기는 회원 모두가 마찬가지. 이런 곳에서 만나는 직장불자들은 서글프다고 토로한다.

'회원들의 법회 참석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고 고민해보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할 뿐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명 잘나가는 직장불자회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불자회 회원들은 직장불자회가 잘나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할 철칙'이 있다고 조언한다. 그 조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자.

사람 먼저 챙기면 '어울림의 행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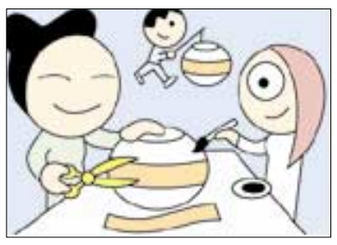
'회원은 한가족' 경조사 챙겨라



자신의 생일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일 만큼 눈코 뜰새없이 바쁜 직장인 불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일케이크가 배달된다면? 정답은 '감동 먹는다'이다. 바쁘고 고된 업무에 쫓겨살던 그에게 자신을 챙겨주는 도반들의 따뜻한 정이 가슴에 꽂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번 걸러 나오던 그는 향후 1년간 불자회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직장인에게 경조사가 주는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남의 일이 아닌 자신 또는 집안의 경조사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불자회에서 이런 경조사를 잊지 않고 챙겨준다면 안넘어올 사람이 없다"고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은 강조한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기억하는 것은 필수인 셈이다.

#공감대 이룰 프로그램 활용하라



봉사활동이나 연등만들기 등은 회원들의 마음과 마음을 고리로 연결하는 끈이 된다.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정이 새록새록 싹트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템플 스테이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 수행은 열심히 하면서도 불자회 활동은 소홀히 여기는 불자들의 성향은 직장불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행을 최고가치로 삼는 사찰에서도 개인 수행보다 대중생활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직장불자회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엄연히 조직이고,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전형진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총무는 "회원들이 모여 3시간 동안 함께 연등을 만들고나면 회원들이 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고 조언한다.

'참일꾼' 인재를 키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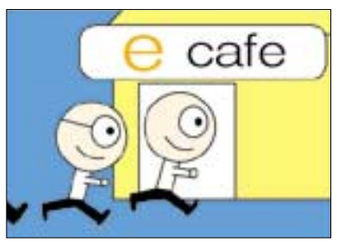


직장불자회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입회원은 줄고 직장을 떠나는 기존회원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있는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회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할 사람이 모두 퇴임하고 나면 직장불자회는 이름만 남은 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키워야 모임이 산다는 의미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렬한 메시지다.

정찬연 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포교위원은 "어느 단체나 소속회원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쓸만한 인재는 있기 마련"이라며 "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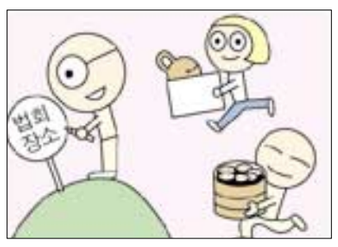
'우리 공간' e카페를 운영하라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카페. 직장인들은 그 곳에서 또다른 세상을 만난다.

*e*카페는 직급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회원들의 마음나눔 공간이 되었다가 감춰진 끼를 발산하는 자유로운 무대가 되기도 한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할 수 없는 얘기도 이 곳에서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법회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좋은 예다. 교사불자련은 지역별 행사 안내와 회원동정, 좋은 경구·수행법 소개 등의 방을 마련해 7백여명의 회원을 맞는다. 엄범순 교사불자련 홍보부장은 "*e*카페의 맛을 아는 이라면 하루라도 찾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한다"고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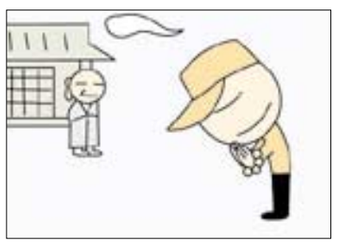
'동기부여' 역할을 분담하라



직장불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기법회를 한번 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목탁 등 집기를 챙기는 일에서부터 법회장소 준비, 법사 섭외, 법회 공지, 회원 참여 독려, 의식 집전 등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던 한국은행 불이회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모임을 운영해나가는 대표적인 단체. 불이회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이유는 회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 차려진 상 보다 자신이 차린 상에 애정이 가는 이치다. 하용이 한국은행 불이회장은 "책임이 주어지면 모임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근 사찰·스님 도움 받아라



지난해 1월 본지가 170여 직장불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도법사가 없는 곳이 약 72%에 달했다. 재가불교 바람을 불러일으킨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직장불자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 수치다.

그러나 잘나가는 모임으로 통하는 직장불자회는 지도법사가 있는 곳이 더 많다. 서울지역 구청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청 불심회는 은평구사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류태곤 은평구청 불심회 총무부장은 "지도법사 스님들이 관심이 클수록 회원들의 참여율과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관내에서 불자모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부산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닦고 신심을 키우는 부산지역의 산악인 모임, 부산불교산악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닮은 산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몸으로 느끼며 언제나 실천하는 참불자가 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불교산악회의 태동은 199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부산지역 불교산악인 150여명이 참석해 불교산악인 모임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1997년에는 서울·대구·성남의 불교산악회와 함께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행과 취미생활의 접목이 이뤄지지 못하던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서 부산불교산악회는 이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에서 불교산악회가 생겨나는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제 불교산악회는 전국적으로 40여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지역에도 다섯 개의 불교산악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명산과 그 곳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 신심을 다져온 우리 산악회는 45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견실한 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창립 이후 신행현장에 꾸준히 동참하고 함께 해준 회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실시되는 정기산행은 일상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회원들의 취미생활을 신심으로 승화시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산행 때마다 반드시 산상법회와 인근 사찰에서의 법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기산행에서 부족한 실참과 자비행 실천 등은 수련회와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 돕기, 자연보호 캠페인, 산길 꽃씨뿌리기 등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산악회는 영남과 호남지역간 벽을 허물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광주불교산악회, 대구불교산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차례씩 합동산행을 겸한 영·호남 불자화합 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한참 지역감정이 불거졌을 때에도 영·호남 불자산악인들의 합동산행은 계속돼 왔습니다.



부산불교산악회는 산행을 통해 산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배우는 신행모임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정기산행에 참가한 회원들의 모습.

정기산행·봉사활동으로 신심도 '정상급'

'영·호남 화합' 보람… 교육 강화 계획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산악회는 지난 12월 박웅락 회장님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여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회원들의 동의 아래 보다 알차고 튼실한 모임으로 거듭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차상(車上)법회를 되살리고 신행지도위원을 위촉해 회원들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김춘식 사무국장**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입방공고

불기 2549년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모집요강
• 신입생(치문반) ---------- 00명 • 편입생(사집, 사교) ---------- 0명

■ 모집기간
• 신입생 / 편입생 ---------- 2005년 2월 28일

■ 제출서류

신입생	1차 입방자	• 교육필증 1부 • 수계증 1부 • 승려증 사본 1부	편입생	• 교육필증 1부 • 수계증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전학증, 수료증
	2차 입방자	• 행자교육원 입교지원서 사본 1부 • 교육원 제출용 신상명세서 사본 1부		
공통	• 증명사진 3장 • 입방비 30만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사회복지학과 입학 지원 희망자에 한함)			

■ 입방학인승에 대한 특전
4년제 종합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입학 특전 및 등록금 전액 지원
(졸업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과 함께 학사자격 수여로 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편입이 가능하며, 수업은 주1회 남부대 교수들이 직접 강의함)
• 입방 - 1차 : 3월 22일(음 2월15일) - 편입생 및 사미계수지자
2차 : 4월 14일(음 3월 7일) - 28기 행자교육 수료 후 사미계수지자

■ 문의처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백양사 강원 ☎ 강원 : 061)392-7324 / 교무 : 011-416-0616
(대학교 편,입학에 뜻을 가진 학인승은 26일까지 전화로 접수 가능함)

불기 2549년 2월 18일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두백 강주 혜권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렴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연수 세미나

- 개강 : 2월 22일(화) 11시
- 직장인 의료인반 개강 : 2월 27일(일) 오후2시
- 중국 침구학연수 : 3.1~3.5(4박5일)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과목 : 체침(전통침), 뜸, 부황, 이침, 양도락기, 특종침, 활법,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수업시간 : 16주 매주 1회 오전 11시~오후 5시

중국 연수 유학 전문중국문화원 02)456-4248 / 016-221-4516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공양주보살님모심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명리주역	천도시식전문	상가영불	바라나비춤	용왕산신재	정안식	천도재49재	각종불공의식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자문 붓글씨 판매
목각 새겨서 판매
'태양' 시집판매
낙산 흥천 서예
016-478-5545

불교대학 기초교리강좌 해 드립니다
018-750-2548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9475-940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종파를 떠나 참된 선지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스님 한분을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 관계없음
010- 2720-04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456-8495

미국에서 기도하시고 생활 하실분
(비구, 비구니 스님)
미국 비자 소지
042)282-92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제천. 보시금 60만원
043)643-4733
019-540-7450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 모십니다
011-693-7742
(경남 소재 산사)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보시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대흥사
02)458-1108
010-5541-6568

조계종사찰 부전스님구함
▷35세 미만
011-673-0092
063)634-08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계룡산
041)857-8606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람사 성구 스님 합장

학인모집 ·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불직자과정 – 원사, 원무, 사감, 신주 작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슬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 사 과 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대법사과정 – 종사, 선사, 대사, 율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빌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음, 방1개, 베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2층. 50평
- 삼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전, 법당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016-261-206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읍 도로변 소재
- 대지 : 120평, 2층건물, 2층법당 30평, 1층 요사채 50평, 건평 80평
- 가액 : 1억8천만원(융자5천포함)
사실분만 연락요. 시설비 없음

011-9621-8989061)8602-66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동 (구 늘봄공원 앞)
- 총평수 : 약35평(5층 중 4층)
- 삼존불, 각단탱화, 호불, 연등 포교 최적지(간선 도로변)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양도. 즉시법회가능

011-871-000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산동 부근
- 평수 : 20평, 지장도량
- 방1, 욕실, 화장실
- 가액 : 보증금없이 월 20만원
시설비 : 500만원

010-8277-85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보리암
- 법당,주방,방2개,실내화장실, 총 40평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총 2천만원, 월 23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9850-294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분전동
- 평수 : 21평
- 합 1500만원, 월 40만원
(보증금 + 시설비)

011-742-8890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23석자 한세트(옥촛대, 향로, 다기)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5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4525-9095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

www.hinexus.com (주)넥서스환원수

FDA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 물인증 획득은 국내최초로
넥서스가 해냈습니다.

FDA
BIO SCIENCE RESEARCH
물인증 획득



Bedesda AK-6000

FDA시험 성적서



FDA Registration
No : 2022038

세계발명특허 •치명적인 미네랄 도금현상 완전 해결
MBC특집 [생명수의 진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임상실험에 적용된 제품임.

상담문의 ☎ 080-080-178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2-7 밀화밀라트 1010호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 02-961-0870~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 031-201-3377)

◎ 개강 일시 : 2005년 3월 둘째주부터 15주과정
- 매주 수요일(서울) : 기초반(오후 7시 – 9시까지) – 조식 및 원리론
- 매주 목요일(서울) : 고급반(오후 7시 – 9시까지) – 해단 및 병방론
- 매주 화요일(수원) : 고급반(오전 10시 – 12시까지) – 통기 및 해단론
- 매주 수요일(수원) : 기초반(오전 10시 – 12시까지) – 조식 및 원리론

◎ 원서접수 : 2005년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서울) : 20만원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수원) : 16만원
- 인터넷접수 – 서울 http://cce.khu.ac.kr
수원 http://ww1.khu.ac.kr/~ice

◎ 제출서류 :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 수강과목 : 기문명리학



◎ 담당 교수 : 손 혜림(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기문명리원장 02-3476-3433, 3430
www.gimun.net

※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개인상담원 창업시 관리지원

기문명리학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로는 정통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손혜림원장 특별 개인지도 60회 완성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안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서울 : 1억5천, 2억5천(300평)
4억(600평山中)4억3천(400평)
7억(800평절경)7억(280평)
● 사찰납골당
① 7억5천(대:2200평, 건250평)
② 8억(대:3000평,건100평)
※ 사찰, 사찰터 多, 공양주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법당, 식당, 종무실, 주지실구비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자모집
011-9150-9190

사찰(터)안내
● 산세수려한곳 사찰터 최적지
● 대지 2천평 (총 6천평)
0505)794-5252

포교원안내
● 위치 : 목동4거리에서 80m
● 평수 22평, 2층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3천만원 월50만원
02)2648-4401
017-460-6279

사찰안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포교당)
● 위치 : 천안
● 평수 : 2,0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8억
● 위치 : 서울대역
● 법당 : 35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 1천, 월1백만원
시설비 : 답사 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충남(온양에서 20분거리)
● 평수 : 사용평수 200평(대지48평)
● 건물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1동, 방3개, 주방, 방1개
● 가액 : 4천만원
※ 스님이 사정상 급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인연이 되실분 찾습니다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 2층건물 2층 총 60평에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범종 에어컨 옥탑에 삼성각 요사체 30평 방 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법회가능)
● 가액 : 2000만원 월 60만원 모든집기와 시설비는 답사 후 절층
010-6319-6885

사찰안내
● 위치 : 밀양
● 부지 : 379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10평
● 가액 : 2억
● 한적한 외딴 토굴
● 위치 : 부산 근교
● 부지 : 3천평
● 법당 : 24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8천
● 여법한 근교암자
● 위치 : 진주 근교
● 부지 : 4천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100평
● 가액 : 7억
● 버스진입 대형사찰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상도동 장승백이
● 대지 : 66평,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4억 8500만원
02)815-0302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 중 허가 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요사채 2동, 부엌2, 방4개, 임법당1채, 황토흙집1채,
● 석조약사여래, 좌불 조성
● 대지 : 1200평 중 747평. 건물 등기 가능
● 특징 : 산세수려, 넓은계곡,병풍바위 있음. 주변에 유실수, 약초재배가능
● 2차선포장 도로 ● 가액 : 2천만원
010-3130-09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구함
부산시내만 연락주세요
사찰지을 대지나 건물도 가능함
011-9338-2993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3존불) 삼성각 10평, 칠층석탑,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7억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100여평
● 시설 : 오존불, 108부처, 방4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330-778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100만원
011-9238-9960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 평수 : 단독 40평
● 가액 : 보증금 6000만원 월 35만원(시설비포함)
● 기도도량으로 최적 주변 환경 좋음,교통편리
02)352-981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15년된 사찰
● 전세없음, 월세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장 넓고, 지하수, 교통편리, 숲속 위치 경관 좋음
010-6355-639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주례동
● 평수 : 45평, 3층건물 2층. 큰법당, 방2칸, 입식부엌 및 화장실, 산신불, 용왕불
● 전세 500만원, 월세45만원(주인과 협의) 시설비(모든 집기포함)1500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참선기도 관계로 부득히 떠났음
011-847-2992
010-4879-657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건물 : 대웅전(목조단청)20평 그 외 요사채, 지하수 있음
● 법당 앞 주차 가능
가액 : 2억
011-5630-010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암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 건평 : 법당 18평, 삼성각5평, 주지실 13평, 요사채19평
● 대지 : 350평 사용
● 가액 : 8,500만원
● 산세 아늑하고 편안함. 수행과 포교에 적합.
모든시설 완비
041)578-3565
010-7770-3223

포교당안내
● 위치 : 홍재역 10분거리
● 평수 : 약 40평 ~ 45평
● 법당 : 약 45평
● 가액 : 전세 시설비 포함 5200만원
시설완비
02)3216-1118
017-766-2788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지역
● 답 1300여평, 건물 2동
● 방5개,부엌2개,화장실2개, 창고1개
정동향 양지바르고 물이 좋음
● 가액 : 1억 5천 5백 (집기일체 포함)
011-1766-1093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요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 (각 20분거리)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산신각(천연동굴) 15평, 대웅전, 차평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
● 실수요 스님일절(중계인사절)
011-369-4154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 대지, 텃밭, 법당 30평
● 요사채 50평
● 가액 : 1억 4천만원 (절충가)
054)372-8734
011-9382-4782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조금한 야산 밑 원주역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지장전, 산신각 각전 단청 되었음.요사채2동, 스님방별도, 시설물 집기일체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가능 3천만원(답사후절충)
011-327-586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1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산 152번지
● 시유지 : 100평
● 건물 : 목조 12평,조립식30평
● 법당 : 15평, 방3개, 거실, 주방 답사 요망
● 가액 : 1억 3천만원
02)3391-2830

사찰안내
● 위치 : 대전시 공원앞, 2층 50평
● 불상 탱화 법당시설 일체와 살림살이 일체를 보시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걸어놓고 월집세 45만원만 내면 되며 수년 역술을 하던 곳이라 역술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적합함
● 스님노환으로 급히 인연자에게 물려줌
011-806-8467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대도로변)
● 교통편 : 버스정류장2분,전철(2,5호선 8분거리)
● 평수 : 51평(5층건물중 2층 전체) 주차장완비
● 가액 : 보1천, 월 130만원 시설비 : 2500만원(조정가능)
● 시설 : 즉시법회(완벽), 법당(3존불) 스님방(화장실,샤워시설),사무실,접견실, 공양실,남녀화장실별도,에어콘시설 답사 후 절충
02)2699-7637(직),7638

제3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3기 개강일 2005년 3월 17일 (목) 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특허 불전함



가격



돌발적인 경보로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불교학계 봄기운 가득

불교학연구회 법인설립 추진 보조사상연 '간화선' 국제학술회의 계획

불교학회들이 긴 겨울잠을 끝내고 봄맞이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부분 학회가 2 · 3월에 첫 월례발표회를 시작하고, 운영회의 또는 이사회 등을 열어 한해의 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의 사단법인화 추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의 간화선 주제 국제학술회의,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의 불교용어표준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학회들도 다양한 주제의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교학연구회의 법인화 계획. 이 법인화 계획은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됐다. 학회의 경우 회장이 바뀌면 대개 회장의 소속 대학을 따라 학회 사무실과 전화번호가 바뀌는 것이 관행이다. 또 회장 개인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해 학회의 기조가 흔들리거나 학문적 자유와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는 학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회장 이중표 교수(전남대)는 "법인이 되면 학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국제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학회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돼 후원자 확보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돼 궁극적으로 재정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4월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법인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학회 가운데 법인 형태인 곳은 아직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조사상연구원은 '간화선'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간화선을 국제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수용 · 전승되고 있는지 살피고, 세계인의 수행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교용어표준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불교학자들의 모임인 불교학회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학술발표회. 올해 학술발표회는 여느 해보다도 현실에 밀착된 주제가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및 사회분열, 종교갈등 등의 사회현상은 물론 불교의 세계화라는 과제에 대해 불교학자들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학술대회 주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한국불교 교육체계에 대한 재검토'로 정했다. 정보화 · 탈근대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승가교육과 관련해서는 권오민 경성대 교수가, 재가교육과 관련해서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불교학연구회는 원효 사상에서 오늘날 한국사회 분열 극복의 지혜를 모색한다. 최근 원효사상을 주제로 열린 겨울워크숍도 같은 맥락에 있다. 불교학연구회는 겨울워크숍의 성과를 발전시켜 11월에 있을 추계학술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3월 12일 월례발표회에서 곽상훈 신부가 발표할 '초기불교와 하느님' 또한 종교간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또 3월 19일 한국선문화학회(회장 김용정)에서 발표될 '미국 현대불교의 동향'은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이 미국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하며 체험한 미국의 불교를 소개하는 논문으로 세계 불교의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부터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제1기 주제로 5회에 걸쳐 '생태계'를 다뤘던 에코포럼(공동대표 고건 · 권태준 · 홍기삼)은 3월부터 제2기 주제를 '욕망과 생명-생태적 인간 이해'로 정하고 '인간'을 고찰할 계획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3월 불교학 학회 일정

날짜	학회명	장소	발표자	논문명
2. 26	보조사상연구원	법련사	박성철(경주대 강사) 심효섭(중앙승가대 강사)	영산재의 중의적 사상체계 조선전기 영산재의 성립과 전망
3. 12	불교학연구회	청호불교문화회관	박건주(전남대 연구교수) 곽상훈 신부(가톨릭대 강사)	근래 도신 선법연구에 대한 반론 초기불교와 하느님
3. 17	한국선학회	동국대	임성택(경북대 교수)	초기불교의 수행(가제)
3. 19	한국선문화학회	청호불교문화회관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	고려말 선사들의 유교관 미국의 현대불교의 동향
3. 19	에코포럼	동국대	김종주(반포신경정신과 원장) 서유헌(서울대 의학과 교수)	정신의학에서 본 욕망(가제) 뇌생리학 관점에서 본 감정의 문제(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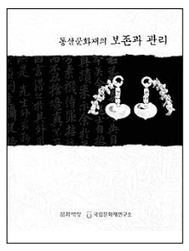
동산문화재 관리는 이렇게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존과 관리' 발간

동산문화재 관리 및 보존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한 매뉴얼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사진)를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 · 발간했다.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는 동산문화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관하고 다뤄야 하는지를 소개한 '일반관리' 장을 비롯해 '지류문화재', '섬유 · 가죽류문화재', '목공예문화재', '금속문화재', '도자기문화재', '석조문화재' 등의 관리와 보존 방법 등 7장으로 구성됐다.

중학생 수준에 맞춰 쉬운 말로 씌어진 이 책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사진 · 그림이 함께 수록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각 장 뒤에는 참고문헌을 안내해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이들을 배려했고, 동산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될만한 박물관이나 보존과학기관 등의 연락처도 첨부했다.

문화재청은 이 책을 개인소장자와 각 기관 문화재담당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문화재청(www.ocp.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www.nricp.go.kr) 홈페이지에 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통일신라때 선각불상 발견

경주 남산 가장 높은곳 위치



법의와 군의(裙衣)는 선명하나, 박락으로 인해 얼굴과 가슴부분은 윤곽이 분명치 않다.

해발 450m 경주 남산 정상 부근에서 통일신라시대 선각(線刻)마애불상 1위(位)가 새로 확인됐다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가 2월 14일 밝혔다.

경주 남산의 금오산(해발 468m) 정상에서 동쪽인 지암곡과 토함산을 바라보고 있는 바위면에 새겨져 있는 이 선각마애불상은 오른손에는 구슬을 들고 왼손은 바로 편 모습을 하고 있다. 귀로 추정되는 부분과 목부분의 완만한 반원형 선각이 확인되나, 박락으로 얼굴과 가슴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법의는 양쪽으로 날개처럼 벌어져 있으며 법의 끝 부분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처리돼 있다.

또 법의 아래쪽인 군의(裙衣)는 치마를 입은 듯 부채꼴로 벌어지며 세로 방향으로 12개의 주름이 표현돼 있다. 남아있는 몸길이는 235cm, 어깨 너비는 60cm, 법의 상단 너비는 145cm다.

경주 남산을 답사하던 시민 문종철 씨가 바위면의 선을 발견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알림에 따라 이 불상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연구소 측은 "경주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양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경주 남산에 소재한 여러 불상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이 불상의 이름을 계곡이름을 따라 '경주 남산 오산계 지암곡 제4사지 선각마애불상'으로 명명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

아름다움과 아상

'아름답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우리나라 고어에서 '아ᄅᆞᆷ답다'는 '나답다'는 뜻이다. 나와 비슷하면 좋다는 뜻이 변화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아ᄅᆞᆷ'이 왜 나를 나타내는가를 언어학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한 아름'이 팔을 벌려서 들어오는 거리만큼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아마도 나의 소유와 관련된 말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나의 소유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된다는 언어의 연원을 생각해보면, '나' 혹은 '나의 소유'가 언어에까지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생물학자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생물의 특징이라고 믿어지는 자기 번식 기능을 무생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생물인 다이아몬드도 자기의 결정 모양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기나 사스의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분자인 바이러스 또한 과연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정의하기가 힘들다.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나와 남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물은 나의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려서 다른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외부 병원균을 알아채고 대항하는 물질을 내놓은 생명의 오묘한 자기 인식 기능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역기능 또한 있는데, 이것이 장기 거부 현상이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때 의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남의 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인식 능력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자기 인식 기능 역시 몸 세포 중 핵의 DNA에 저장되어 있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만들어 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 세포 배양기술 역시 바로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장기를 쉬운 방법으로 기르고자하는 노력이다.

과연 '나'라는 느낌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뇌 과학자들은 나의 한 아름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보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머리 꼭대기 부분인 두정엽 약간 뒷부분에 위치하는 정위영역이 '나'라는 느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나'라는 인식과 느낌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상의 극복은 근본 초월의 위대한 공덕

이와 같이 '나'라는 느낌은 크게는 뇌로부터, 작게는 세포 분자들의 자기 인식 기능까지 뿌리 깊게 존재하는 무엇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한국 선불교의 이론을 제공하는 경전으로 광범위하게 읽히는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핵심이 적혀있는 3장 '대승정종분'을 보면, 보살이 '아상'을 가지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보시)이야 말고 가장 큰 복임을 가르치고 있다. 얼핏 보면 싱거운 가르침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된 '나'에 대한 느낌의 뿌리를 생각하면, 아상을 버리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숙제인가를 상상할 수 있다. 아상을 극복한 복덕의 크기는 상상 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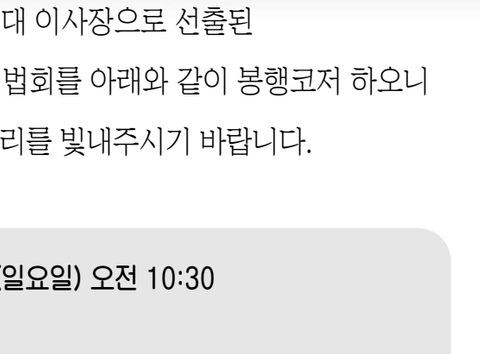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 · 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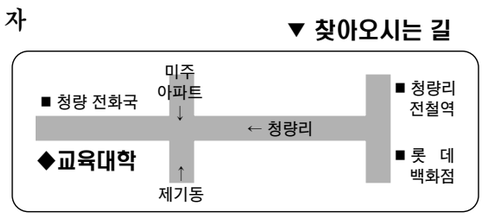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年 1月 17日 ~ 2月 23日
▷ 개 강 : 2005年 2월 24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봉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이 · 취임 법회 행

초 대 합 니 다

본 재단의 제 7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3월 6일(일요일) 오전 10:30
◆ 장 소 : 자광사 대웅전
◆ 문 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 자광사
TEL 042)822-9220(代) FAX 042)822-8304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합장

일주문



논산 훈련소 수계법회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2월 27일 오전 10시 논산 훈련소 연무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이해…' 주제 강의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월요일 선원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이해와 의전' 주제의 강의를 한다.(02)445-8484



3 · 1절 기념법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개최되는 3 · 1절 기념법회에서 법문을 한다.(031)676-8700



대구 지하철 참사 2주기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2월 25일 오전 10시 대구 지하철 참사 2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053)474-8228



참선 · 금강경 강좌 개강

서울 공생선원 주지 무각 스님은 3월 2일 3개월 과정 '참선입문반' 강좌와 1년 과정 '선으로 푸는 금강경' 강좌를 개강한다.(02)900-2448



김포경실련 공동대표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은 2월 18일 창립된 김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로 추대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군총신도회 창립 5주년 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권영기 중장(국방대 총장)은 2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신도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김기현 변호사 재가연대서 종교자유정책연구



"종교 자유의 한계를 밝혀 종교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기현(38 · 사진)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종교자유에 관한 원칙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월 1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연구원에서 김 변호사는 종교 자유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제 · 개정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 정웅기 정책실장과 함께 5월 중순에는 법적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6월 말에는 종교자유와 관련한 국민의식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나누는 삶은 계속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떠남

광동여고 윤종희 교장



"40년이 다 되도록 교단에 섰지만 지나고 보니까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흡한 점이 많네요."

광동여고 윤종희 교장(63 · 사진)이 광동여고 시대를 접으며 2월 21일 39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윤 교장의 정년퇴임 후 광동여고는 의정부 광동고로 이름을 바꿔 남녀공학이 됐다.

윤종희 교장은 도진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 대동상고, 동대부중, 명성여중, 광동여고, 광동중, 광동고 등 동국학원 소속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도리사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윤종희 교장은 "이제 의정부 송산노인복지회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청담정보통신고 이근우 교장



"32세가 되던 해에 혜성 스님이 청담 스님의 법호를 딴 학교를 세우시겠다는 원력을 세우셔서 그 일을 돕다보니 어느새 32년이 되었습니다."

32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이근우 청담정보통신고 교장(63 · 사진)이 2월 25일 정년퇴임을 한다. 이 교장은 청담 스님의 법호를 딴 청담정보통신고를 IT 컴퓨터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등 교장 재직 중 다양한 일들을 해냈다.

이근우 교장은 퇴임 후에도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위해 살 계획이다. 관심 분야는 세계화 교육. 현재 청담정보통신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북경의 청하중 · 고, 연길의 백산초 · 중 · 고, 산동성의 일조기술대학 등에서 학생교류 교육을 하고 있다. 고 1학년 때부터 중국어 교육을 실시해 중국대학에 진학시켜 중국전문가로 키우는 일에 여력이 될 때까지 매진하겠다는 포부이다. **강지연 기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7일마다 영가법문"

'쓰나미' 49재 회향 혜총 스님



"원망심을 놓아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가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49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사진)은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봉행해온 지진해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49재를 2월 11일 회향했다. 지진 해일 소식을 접한 12월 26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삼천불전 영가단에 정성껏 공양물을 올리고 아미타게, 법성게, 무상게를 독송했다. 7일마다 지내는 재에서 영가법문을 하는 등 49재를 회향한 스님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번 피해로 26만 명이 넘는 사람과 축생, 미생물 등 수많은 생명들이 무명(無明)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복구를 돕는 일만큼이나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일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고 스님은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기협 회장 여태동 기자 부회장 서현욱 · 고영배 기자


여태동


서현욱


고영배

한국불교기자협회 11대 회장에 여태동 차장(불교신문)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2월 1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33차 총회를 열고 부회장에 서현욱(만불신문), 고영배(현대불교신문) 기자를 선출했다. 또 불교TV의 신규회원사 가입을 승인했다.

인사

동국대 △경주 부총장 김영길 △대학원장 서윤길 △불교대학원장 조용길 △행정대학원장 김보환 △경영대학원장 한진수 △교육대학원장 한용환 △언론정보대학원장 박근호 △산업대학원장 전영일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신선 △문과대학장 박종훈 △이과대학장 송희자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명훈 △정보관리실장 김인재 △도서관장 정진환 △사회교육원장 유광진 △홍보실장 곽대경 △대외협력관 신관호

신임 기무사령관에 김영한 소장 취임



김영한 소장(육사 29기 · 사진)이 2월 5일자로 제36대 국군기무사령관에 취임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 고문 송영진 중장의 후임으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김 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한 과감한 부대혁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며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는 기무부대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과장과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동국대 졸업식 화제의 주인공들

수석 인경 차석 청원 스님… 만학도 이용복 씨 3개 학위


인경 스님


청원 스님


이용복 씨

스님이 나란히 전체 수석과 차석으로 졸업하는가 하면, 환갑을 바라보는 늦깎이 대학생이 3개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이수하는 등 올해 동국대 졸업식을 빛내는 이색 졸업자들이 있다.

2월 18일(서울)과 21일(경주) 나란히 열린 동국대 2004학년도 전기 졸업식. 이 가운데 경주캠퍼스(부총장 최상범)에서는 학사 전체수석에 평균평점 4.38점을 받은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의 인경 스님(26)이, 전체차석은 평균평점 4.36점을 받은 선학과 청원 스님(57)이 각각 차지했다.

"인경 스님은 "대학원에 진학해 내전과 선어록을 더 공부한 뒤에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 수 있는 수행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원 스님은 서울 성북구 '자비의 집'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면서도 늦은 나이에 한문학과를 복수전공, 두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학구열을 불태웠다.

또, 18일 졸업하는 서울 캠퍼스 이용복(59)씨는 전공인 경영학은 물론, 복수전공한 외교정치학(북한학) · 문학(불교학)에서 모두 3개의 학사 학위를 받는다. 이씨는 "늦은 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휴일도 잊은 채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나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씨는 졸업과 함께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진학한다. **조용수 기자**

명성 스님 법계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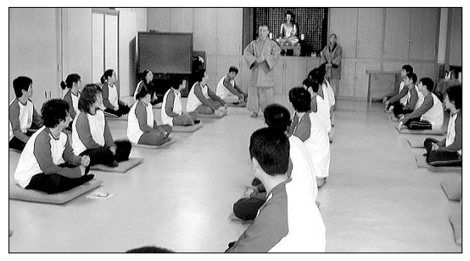
운문사 강원 강주 명성 스님은 2월 12일 장학금 1600만원을 후학들에게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 수상자는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무애, 담교 스님, 석사과정 인광 스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Peradeniya University) 팔리어 연구원 선일스님, 동국대 선학과 돈각, 근우 스님 등 8명이다.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재'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안양본원과 전국 15개 지원이 을유년 새해를 맞아 2월 9일(음력 1월1일)부터 15일까지 각 지원 일정에 따라 3일간 일제히 '을유년 새해맞이 촛불재'를 봉행했다. 미국 뉴욕 · 캐나다 밴쿠버 등 10개 해외지원도 11일부터 23일까지 촛불재를 봉행했다.

대불련 석종사서 수행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는 2월 14~17일 충주 석종사에서 대불련 수행학교 및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40여 대학생 불자들이 참가한 이번 수행학교는 대불련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에게 참선을 직접 배우며 불교 수행법을 익혔다.

金剛禪院 禪河 불교대학이 열립니다

불교의 역사와 교리, 의전에 대한 혜거 스님의 명쾌하고 알기 쉬운 강의가 열립니다.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는 혜거스님의 불교대학 강의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스님 : 혜거 큰 스님
● 내 용 :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전
● 개 강 : 3월 7일(월)
● 요일 및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기 간 : 4개월
● 동 참 비 : 6만원 (점심 제공)

기초 참선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견으로 사는데 소견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참선이 필요하다고 혜거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선의 바른 이해와 바른 수행법으로 성불의 길에 드는 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개 강 : 3월 10일(목)
● 요일 및 시간: 매주 목 오후 8시 ~ 10시
● 기 간 : 14주간
● 동 참 비 : 10만원

금강선원(서울 개포동) ☎ 02)445-8484

대한불교조계종 金 剛 禪 院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문화 답사 학과 개설 (3년과정)

1. 교 과 목
· 한국불교문화 I (불교미술중심)
· 한국불교문화 I (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 II (인물, 사상, 신앙)
· 한국유교문화 I (궁궐, 서원, 종묘)
· 해외불교유적 I (중국, 티벳, 일본)
· 해외불교유적 II (인도, 파기스탄, 동남아시아)
2. 교 수 진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교수)
· 남성훈교수(전 전남대)
3. 개 강
2005년 3월 9일(수) 오후7시(매주수요일)
4. 불교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과 매월 현장답사교육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 해설사 양성을 목표함.

티베트 문법, 강독개설 (1년과정)

1. 동산불교부설어학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 • 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교수(승가대)

2. 교 과 목

티벳트어강독	티벳트어 : 티벳트어문법 • 티벳트어 강독
산스크리어강독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산스크리트어 강독
팔리어 강독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아함경 강독

3. 개 강
2005년 3월 14일(월) 오후7시 (매주월요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자 세상보기

김 상 득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

호주제와 전통, 삶의 질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에게 묻는다. 왜 나는 아빠와 성이 달라? 이는 아직 합리적 사고가 부족한 아이의 물음이다. 합리적인 인간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나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가?

사실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정자와 난자를 통해 동등한 몫의 유전자를 제공하면서도 어머니는 자궁을 제공하여 1개월 동안 자신의 몸 속에서 아이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 더 가까운 존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지 관습 내지 전통 탓으로 아버지 성을 따를 뿐이다.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이 구분되는 유교사회에서는 호주제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녀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성으로 그 사람의 '뼈대'를 평가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무엇보다 호주제는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을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려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법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호주제가 헌법의 근본정신과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몇 가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첫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재조명이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배의 선장 모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家長)이라는 호칭과 호주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배가 아니다. 배는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 모든 선원들이 힘을 모아야 하지만, 가정에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가 없다. 가족은 각자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가장이라는 말은 남자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다.

호주제 폐지는 결코 남성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과중한 짐으로 휘어진 남성의 어깨를 바로 펴도록 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가정은 가장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혈연중심의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당연시하여 왔다.

그 단적인 예가 콩쥐팥쥐 신화이다.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 누워 단순히 재미로만 들었던 콩쥐팥쥐 이야기 속에는 팥쥐 엄마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 팥쥐 엄마가 누구인가? 바로 새 엄마이다. 다시 말해, 팥쥐 엄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진다. 혈연적 부모가 아닌, 새 엄마 슬하에서도 훌륭한 자녀가 자랄 수 있다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빌 클린턴은 재혼 가정에서 성장하였지만 한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호주제 위헌 판정은 결코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참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남성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 모두가 중심이 되는 가정,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21세기에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3월 5일부터 10주 동안 범어사에서는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기획한 설선대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이 시대 한국 간화선을 대표한다고 꼽히는 큰스님 가운데 열 분이 차례로 매주 토요일 설법에 나서 간화선의 핵심과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불자와 일반대중에게 법문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과 실제 참선수행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고 하여, 대중의 궁금증을 풀고 실참지도를 받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설선대법회는 지난해 서울의 조계사와 보문사, 또 대구의 동화사에서 열렸던 일련의 간화선 대법회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일련의 법회가 대성황을 이루고 많은 뜻 깊은 성과를 이룬 데 이어서, 이번 설선대법회는 간화선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더욱 큰 걸음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간화선은 동북아시아 선불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주류로 자리 잡아왔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이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정치적인 변수 등도 중요했겠지만, 종교

미래 향해 문 여는 禪법회 되길

적으로는 이를테면 성인(聖人) 생산에 그만큼 효율적이고 따라서 불교의 생동력을 생산하고 발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과 사고의 방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고 종교생활의 양상도 바뀌었으며 마침내 간화선도 그 의의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간화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의의를 의심하고 폐기하는 것은 경솔하다. 우선은 간화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간화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 있는 이 몸으로 성불의 지혜를 체득하고 부처님으로 사는 길에 뛰어들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간화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주었던 보조국사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있는 선지식의 인도가 간화선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간화선의 종장들이 수고를 마다 않고 직접 나서서 간화선의 의의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대중을 인도해주는 이번 설선대법회는 '문 없는 문을 연다'는 주제처럼 한국불교의 진정한 미래를 향해 문을 여는 법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최악의 더위가 온다는데…

복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느긋할 때 사치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이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선림보훈 제2장〉

올해 여름에는 19세기 말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연구소가 2월 10일 발표했다.

현재 기온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는 지구로 유입된 태양 에너지를 가둬놓는 온실작용을 한다. 온실효과로 인해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지구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가 늘어나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현상도 유발한다.

지난해 말 20~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남아시아 지진해일도 환경변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재앙으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전에 올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 등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훼손으로 인해 회복할 능력을 거의 상실한 지구에 재앙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첨단기기로 무장한 정보 산업화 시대에도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재앙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때마침 2월 16일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도 발효돼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나오겠지만 각 개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류에게 닥쳐오는 재앙의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만이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 한 지구를 살릴 수 없을 뿐더러 해결도 요원하다. 우리주변의 환경훼손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자동차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원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지율 스님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날아다니는 새는 새의 시각으로 보고, 도롱뇽은 도롱뇽의 시각으로 보며, 개미는 개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개미의 관점으로 세상사를 바라 본 것에 대하여 사람이 "개미야 그렇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개미는 자신의 시각밖에 인식을 못하지만 사람은 역지사지로 보고 역지사지로 판단하고 역지사지로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견해만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견해만이 옳은 것 같이 판단한 끝에 하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해악이 될지 어떤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 올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있다.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것이 살림살이이다. 나만 좋기 위해(사람의 편의에 의해 사람만 좋기 위해) 네가 나쁘다면(도롱뇽이나 산과 나무가 파헤쳐진다면) 네가(산하대지 만물들이) 나를 돕지않게 된다. 내가(사람들이) 너를(산하대지 만물들을) 위할 때 네가 나를 위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지율 스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하신 일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인가!

지율 스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잇속을 바라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임을 알아서 바른 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못할지언정 바르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해서 구업을 쌓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불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황하루(붓다뉴스)

경승이 할 일은 좋은 법문

경불회와 경승단이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자생적 자발적 자율적인 풍토가 있을 때 잘 이루어지는 법이다. 경승들의 할 일은 전적으로 법회에서 좋은 법문을 들려주는 일에 매진하는 것만이 본래의 당연히 할 일이지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공연히 잿밥에 눈독 들인다는 오해가 없게 불전금 관리 같은 것은 경불회 자체에서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쓸데없는 간섭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도원(붓다뉴스)

남편의 '한달 출가'와 변화

작년 12월 우연히 MBC에서 방영한 '출가'를 본 후 남편이 "나도 저기나 갈까"라고 물었다. 농담삼아 그러라고 했더니 남편은 15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고 머리를 삭발하고 털장갑 털신을 사면서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마냥 월정사 가는 날만 기다렸다.

나는 밤새 털목도리 털모자를 짜주었고 드디어 1월 5일 새벽, 남편은 월정사로 떠났다. 서로에게 값진 한달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한 달 간의 수행을 마치고 나온 남편은 살이 빠지고 외모가 바뀌어 왠지 낯설고 어색했다. 얼굴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며 앉는 자세, 먹는 것, 생각 등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담배와 술을 단호하게 끊은 것이다. 그동안 금연하라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끊더니 담배를 내가 왜 폈는지 모르겠다며 담배 피우는 사람 옆만 지나가도 머리가 아프단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 아예 술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

정말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생각이 바뀌고 깊어진걸 보면 부처님의 힘이 얼마나 큰 지 새삼 느끼게 된다.

내 남편이 이런 변화된 삶을 얼마나 유지할진 모르지만 분명한건 남편이 단기출가학교로 인해 많은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다.

오늘도 남편은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작은방에서 향을 피우고 무언가를 위해 절을 하는 남편! 그 남편을 보며 오늘 아침도 즐겁게 상을 차린다.

이인선(월정사 홈페이지 게시판)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혜명양로원 침술 봉사팀

"침 놓고 뜸 뜨고 어르신 건강지킴이"

"매일 봉사활동 하러 다니다보니 이웃에서는 돈 벌러 다니는 줄 알더라고요."

혜명양로원(원장 현성)에서 올해로 9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수지침과 침술 봉사를 하고 있는 민귀남(55)씨가 던지는 말에 주위 어르신들도 박장대소한다.

2월 15일에도 양로원을 찾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소속 혜명양로원 침술 봉사팀은 항상 그렇게 어르신들과 즐거운 기운을 가득 주고받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팀은 양로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디가 어떻게 좋지 않은가를 살핀다. 어르신들은 주로 팔·다리 관절이나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그 통증부위에다 정성들여 침을 놓고 30분간 기다리고 난 후 침을 뺀 자리에 다시 30분간은 뜸을 뜬다.

"아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팔목이 시큰시큰 했는데 좋아졌다니까."

봉사팀이 올 때 마다 침을 맞아 '모범생 할머니'로 불리는 이옥분(가명 · 85)할머니는 봉사팀장 박경희(69)씨의 손에다 고맙다는 표시로 말린 당근과 호박을 잔뜩 쥐어준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침술의 특성상 봉사팀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박 팀장은 침술 봉사팀을 반기는 할머니들이 침술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야기 상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멋쩍게 웃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자원봉사처를 알려주는 곳이 많아요. 용기를 내서 한 번만 참여해 보세요. 나누는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김강진 기자



2월15일 침술봉사팀 박경희 팀장이 혜명 양로원 할머니에게 수지침 시술을 하고 있다.

▌후원해 주세요 - 혜명복지원 '희망의 집'

1982년 세워진 혜명복지원에는 혜명양로원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희망의 집'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의 집'은 98년 양로원 옆에 세워져 현재 48명이 입소해있는 주거 공간이다. 따로 운영진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원에서 양로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돌보다보니 세제나 비누, 치약 등 소소한 생활물품이 모자랄 때가 많다.

혜명양로원 봉사팀장 박경희씨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복지원을 통해 생필품을 후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02)802-6765

단체 활동가들에게 쌀 지원

'시민단체 전성시대'라는 요즘이지만, 정작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넉넉하지 못한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활동비를 '자체조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불교계 단체에서 활동하던 한 활동가는 결혼을 앞두고 그 단체를 떠났다.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급여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자비의 쌀'이 지원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마음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활동가 45명에게 1인당 80kg의 쌀을 지원한다.

조계사와 봉은사의 협찬을 받아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추천인의 추천사유 등을 담을 신청서를 작성해 2월 14일~3월 4일까지 재가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로 하면 된다.

재가연대 45명에게 80kg씩 3월4일까지 신청 접수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가연대는 지난해에도 시민사회활동가 24명에게 1인당 80kg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 (02)2278-3417, bsr@buddha21.org

유철주 기자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전국 사찰서 온정의 손길 계속 이어져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이 2월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스리랑카에 보낼 구호물품을 차에 싣고 기념촬영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남아시아를 덮친 지진해일 피해에 불자들의 단결된 힘이 계속 모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불교계에서만큼은 이들 국가 아픔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도 2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4119만9850원을 전달하며 "전국이 지진해일피해 돕기에 적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도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법장 스님에게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는 2월 13일 비제야시리 스리랑카 대사에게 구호성금 3만 3000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은 2월16일까지 접수된 남아시아 구호 물품을 2월26일 부산항을 통해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조계종에 지진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2월 3~2월 16일)

박경희 10만원 영화사 113만원 신흥사본말사 5000만원 대흥사본말사 2000만원 월정사 3999만5000원 지용스님 10만원 용인불교대학 100만원 이성욱 100만원 혜원정사 1142만3100원 김귀자 5만원 노적사 100만원 중앙신도회 615만1000원 이건호 100만원 통도사 1억10만7000원(구룡사 3천만원 포함) 대원정사지장회 35만원 이경미 1만원 손문철 5만원 길상사청년회 15만1000원 성남봉국사 100만원 서한수 3만원 강화사암연합 687만5870원 보덕사(현웅)100만원 교동화개사 20만원 전등사 500만원 정명신(광주) 20만원 양영숙 10만원 의정부미륵암 10만원 용화사 50만원 신주호 20만원 약사사 106만8000원 노경호 5만원 김기복 35만원 김숙자 5만원 도선사 3000만원 불광사(송파) 1197만3700원 화엄사 2000만원 8교구직지사(추가분) 150만원 송광사 2338만2080원 조명숙 10만원 창원봉림사 25만4400원 안양시불교연합회 200만원 안암동보타사 112만9000원 유인호 1만원 김수정 1만원 삼정사(정릉4동) 20만원 봉은사 3000만원 울산사원연합 500만원 충주천왕사신도일동 35만4000원 영동군사암연합회 50만원 법우회회장정념스님 100만원 둔촌보성사 117만원

총 378,924,150원

조계종 재난구호 성금 총액(1월 5일~2월 16일): 1,641,348,202원(ARS 1,079건 5,395,000원 합산)

도와주세요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앓는 이종찬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종찬(25)씨.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이 씨에게 느닷없이 병마가 찾아왔다. 2004년 초, 미약하게 느꼈던 관절 통증이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의 시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재 2차 항암치료중인 이종찬씨는 3차 항암치료 후 '타인간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으면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치료비와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고생만 한 아들을 살리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온정을 호소했다. 후원문의:(02)734-8050(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매 순 간 기 도 하 라

생활실천 기도도량 / 효행불교 · 선행불교

경기 화정 광 명 사



부처님을 따르고, 마음의 고통을 덜고,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광명사로 오십시오!

원하는 바 꼭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지 대덕

광명사에서는 5시 새벽 예불 종을 울려 경기 화정 일대의 모든 이들을 위한 화평과 행복을 만들어가며 정성으로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광명사는 초심자라도 편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말 기도로 보현법사님이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정성 기도로 이끌어 갑니다.

마음의 고통을 덜고 祈禱 - 行 - 報施가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각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부처님 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진솔한 예불을 통해 지혜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법사 보현

초심 불자라도
근기에 맞게 / 쉬운 한글 경전으로 / 발원 기도
원만 소원성취를 약속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현 기도법사님이 쓰신 「명상의 세계」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광명사 기도 법회 안내

광명사 기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놓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 회주 활안 큰스님 법문 /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1시
- 자비참법기도 (5년 정진 중) 매주 화요일 광명사 동참
- 나한기도 (2년 정진 중) / 매주 금요일 광명사 동참

광명사 500나한 봉안 불사



◇ 지난 10개월간 130나한 봉안 (목아 박찬수님 작품) ◇

천작(天作)일까? 초인간상의 세계적인 위인상이요, 보살상이라. 화정 광명사에 나투신 5백나한 - 도심속의 나한도량으로 거듭나 근기와 정성에 따라 현세의 소원을 이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발원에 따라 엄청난 신통력을 보여 주십니다. 광명사 법당을 다녀간 불자들이 줄지어 신비한 꿈을 꾸고 기도 성취하며 많은 분들의 소구소망 이루는 것은 모두가 광명사 나한님의 원력이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세계제일의 나한님을 친견하시고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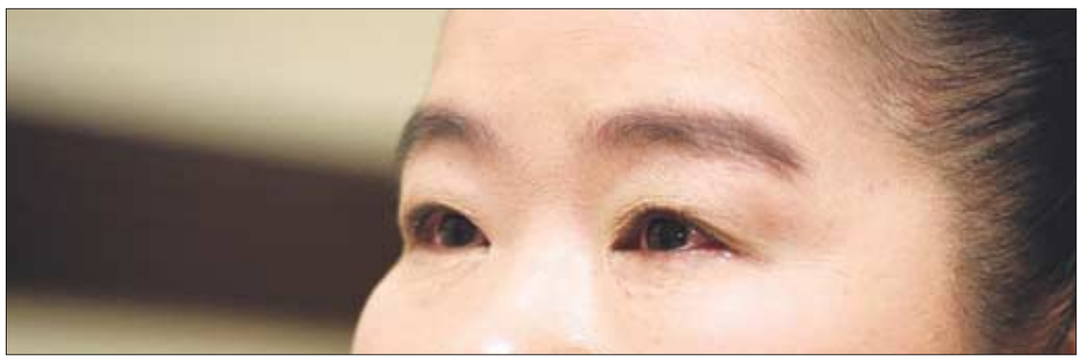


광 명 사 회주 활안 · 주지 대덕 합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화정역 근접) 전화 031-978-9782 / 011-493-1121

10여년 독거노인 위해 봉사 김숙현씨

“전생에 한번은 내 부모였을 분이죠”

어른들 모시려고 음식점 열어
틈만나면 목욕봉사·김장보시


지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으로 되뇌이면 눈물이 난다는 김숙현씨. 이제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며 효도를 다하고 싶다고 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9남매 집 여섯 번째 딸로 태어나, 밥 세끼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아이가 있었다. 너무나 배 고팠던 아이는 “나중에 크면 누구나 배불리 먹여주는 식당주인이 될 꺼야”라는 꿈을 가졌다. 그리고 병을 앓느라 늘 방안에만 누워 계시는 아버지, 가장 대신 9남매를 키우느라 허리 한 번 펼 새 없었던 어머니도 호강시켜 드리겠노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닥치는 대로 일해 모은 돈으로 큰 식당을 차릴 만큼 자수성가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문을 연 불교계 복지관의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서있는 수많은 독거노인들을 보고 “아! 엄마 아빠!”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때부터 김숙현(48) 씨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대표 각현 스님) 독거노인들의 ‘딸’이 됐다. 김 씨는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생에 언젠가 한번은 마주쳐서 내 부모, 형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내 엄마 아빠 같아요. 비록 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바로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죠.”

자원봉사자가 된 이후부터 김 씨는 독거 어르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친딸 이상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봉양했다. 그런 김 씨를 의지하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한 둘이 아니다. 순이 할머니(96)는 “숙현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여. 내 죽으면 49재도 지내주기로 약속했당께”라며 김 씨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김 씨를 만나는 날이면 “아이구, 우리 딸. 잘 있었냐”며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한다.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어느 날, 김 씨는 한 할머니에게 “엄마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라고 물어봤다가 큰 결심을 했다. 할머니는 “복지관 음식은 다 맛있지만 아직 소갈비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 소갈비가 꼭 먹고 싶어”라고 답한 것이다.

복지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 씨는, ‘내가 직접 소갈비를 대접해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생각은 안성에 숯불갈비 식당을 개업하게 했다. 김 씨는 그 뒤 한 달에 한번은 꼭 봉고차에 샐러드, 된장국에다 갈비를 몇 박스씩 들고 복지관을 찾는다. 양념에 재운 갈비를 구워드리고 술을 한잔씩 돌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갈비 한번 원 없이 먹여드리겠다고 시작한 장사가 오히려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간을 뺏아간다는 판단이 들자 미련 없이 갈비집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로에 장어구이집을 열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여전히 어려운 노인들을 모시고 와 장어를 대접한다. 김 씨가 하는 일은 그 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은 버스를 대절해 인근 온천지로 모시고 가서 함께 목욕하며 등도 밀어 드린다. 게다가 해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 마포구 내의 독거 어르신 60가구에 전달한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변변한 반찬도 없이 맨밥 먹는 걸 보곤 그 때부터 김장을 담가 나눠드리기 시작한 김장보시는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내가 혼자 김치 한 쪽 먹을 것을, 두 개로 나누면 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다시 나누면 네 사람까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김장 보시도 ‘혼자 먹을 것을 나누면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죠. 내가 김치 하나 더 담그면, 어르신이 한 분 더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 씨는 자칫 마음이 흔들릴 때면 신림동 용화사 법당을 찾아 부처님 앞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르신들께 김장 김치를 보내 드리겠다”던 처음의 원력을 다시 곧추 세운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 씨는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2시에 홀로 김치를 담그곤 했다. 커다란 고무 대야에 무와 배추들을 담아 씻고, 절였다. 가로등 밑에서 손발이 퉁퉁 불어터질 때까지 양념을 버무리고 200포기가 넘는 배추 잎 한 장 한 장에 속을 채워 넣을 때면, ‘누가 와서 무채라도 썰어줬으면’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라도 이렇게 안하면 긴 겨울에 어르신들이 무엇을 드실까”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김치를 모두 버무리고, 커다란 비닐 자루에 포장해 넣고 허리를 펴면 어느새 아침 10시가 되곤 했다.

이제는 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3년 전부터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빌리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배추와 김장재료, 무, 젓갈 등을 직접 구입해 봉사자들과 함께 담근다. 김 씨의 지극한 어르신 공경 덕분일까. 5년 전에는 마포구청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 선정돼 표창장도 받았다.

최중석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김 씨에 대해 “지난 10년간 언제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마다 선뜻 달려와 주신 분”이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전화해서 어르신들 안부를 묻곤 한다”고 말한다. 어르신들을 한결같이 모실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처음 무료급식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 어려서 김 씨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던 세 아이들도, 이제는 장성해서 김 씨의 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은행에 다니는 막내딸은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복지관에 기부할 날짜를 챙겨서 알려주곤 한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는 <잡보장경>의 경구를 좋아한다는 김 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무엇보다 김 씨가 실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타불이’의 이치다. “‘내 것’ ‘내 가족’이라는 집착을 버리면 소외되는 사람도 없겠지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법음의 향기가 퍼지는 살 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김 씨에게 남은 꿈이 있다면, 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짓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1층을 내드리고, 2층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3층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 재롱을 보며 여생을 외롭지 않게 지내시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복지관 어르신들이 김숙현 씨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접어서 만든 종이 백조들.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 종이 백조 수십 마리가 김 씨의 가게입구에 진열돼있다..



나의 수행법

김종근 (상)

동사섭 수행법을 체험한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 동사섭을 만난 계기는 상담공부를 하면서다. 그러던 중, 지난 93년 여름 동사섭 법회 참석은 내게 신선 그 자체였다.



첫 보물, 선명해진 '삶의 목적'

법회 첫날 첫 시간, 동사섭 지도법사 용타 스님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평소 자주 접하는 질문이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온 내 자신이 뒤돌아 보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꽉 막혔다. 그러자 스님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아하! 그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지. 그렇지.'

막연했던 삶의 목적과 방향 선명해져
내 기도로 상대가 행복해진다고 상상

그리고 스님은 두 번째 질문을 내게 던졌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난 곰곰이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손꼽아봤다. 건강, 돈, 명예, 사랑…. 여러 가지 답을 적어보기는 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행복이란 좋은 느낌 상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결국은 느낌이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혼동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대한 깨달음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 상태이며, 인류의 모든 문화 문명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향해 가는 방편들입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신앙에 심취하면서 불자인 어머니와 가족들과의 갈등 등이 생각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종교에 심취해 있는가. 구원인가.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됐다. 정말 통쾌하고 눈이 확 트이고 시원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동사섭 수행에서 강조하는 삶의 5대 원리에서 얻었다.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 등을 가만히 음미하며 깨닫게 됐다. 우선, 동사섭 수행의 5대 원리는 내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었다. "우주의 중심인 소중한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잘 화합하며 선을 지으며 산다"고.

5대원리를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내가 꼭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그런 인격을 가지겠다는 고양의지가 생겼다. 그리고 난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원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 대원관(大願觀:큰 원력을 세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동사섭 수행법)을 했다. 내게서 사랑(자비)의 기운이 일어나 기도의 대상에게 전달되고 그 기운으로 인해 상대가 행복해 진다고 상상을 했다.

그러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맑고 밝은 기운이 넘치소서!"라고 기원했다. 기원의 범위를 나로부터 가족 친지들, 소속 공동체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유정 무정의 일체 존재들, 온 우주로 확장했다. 대원관을 하고 있으면 온 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이 개운했다. 상대방을 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대원관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하니 방황되지 않고, 그런 인격이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 마음 통이 넓어지고 성숙돼 가는 것이 너무도 뿌듯했다.(계속)

■ 사천고 교사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念佛者是誰)?'

염불선(念佛禪)의 화두다.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면,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알게 하는 염불선의 공안이다. 또 그 마음자리가 곧 정토(唯心淨土)임을 가늠케 하는 '방향타'다. 때문에 염불선은 간절히 아미타불을 관하는 측면에서 염불을, 본래성불을 화두로 확인하는 측면에서 화두선 원리를 닮았다. 화두선과 염불이 자력과 타력, 수행난이도 등 그 행법의 성격과 방편은 다르지만, 염불선 수행 흐름에서는 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염불선 수행의 핵심 내용·효과

이 같은 염불선 수행원리는 곡성 성륜사 조실이었던 청화 스님(1923~2003)의 수행관에서도 확인된다. 스님은 법어집에서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란 확신을 갖고 법신을 관하는 염불은 화두선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염불선 수행법의 요체는 무엇인가? 한국불교계에 염불선을 본격적으로 주창했던 청화 스님과 차세대 염불선을 이끌고 있는 정목 스님(양산 정토원장), 덕산 스님(청원 혜은사 주지) 등의 염불선 수행법을 통해 그 핵심내용을 소개한다.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 화두 참구

염불선을 선택하는 이유

'간화선(화두선)은 어렵고, 염불은 쉽다. 그래서 염불선을 선택한다?' 화두 중심의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염불선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말이다.

20년간 염불선을 해온 오장범 조계종 포교사(68)는 "'간화선은 힘들다. 염불은 너무 평이하다'는 시각으로 염불선을 선택하는 불자들이 많다"며 "이런 현상은 '간화선은 수승한 수행법이고, 염불은 차원이 낮은 수행법'이라는 등 수행법의 우위를 따지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과연 간화선과 염불, 염불선 등은 수행법상 우열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청화 스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심지어 공안선, 묵조선, 염불선 등 수행법의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예 간화선은 상근기, 염불은 하근기 중생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염불선 수행법의 흐름

염불선 수행법의 흐름은 "선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만법이 본래 부처일 때가 바로 선의 경지가 드러난다"는 청화 스님의 선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화두가 일체 유루적(有漏的)인 상대 유위법을 떠나서 오직 불심만 잡으라는 것처럼, 공안이나 염불이나 모두 다 같다는 것이다. 스님은 공안도 한 물건 자리를 참구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고, 염불도 부처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같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화두든 염불이든 본래부처가 부처를 생각하기에 다르지 않고, 염불선도 간화선과 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덕산 스님(청원 혜은사 주지)도 염불선은 생각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아미타불이나 관세음·지장보살과 여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생각이전의 자리'가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본래자리가 우주의 진여당체라는 것이다. 염불선의 수행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령 간화선의 '이뭣고' 화두를 들 때는 그냥 '이뭣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뭣고'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게 활구(活句)로 하는 것처럼, 염불선도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는다는 점이 같다.

'아미타불' 일념으로 외우며 '내가 부처' 확인
염불로 순간순간 망상 거둬내 화두 잘 들려

덕산 스님은 "염불선은 유무를 떠난 자리, 즉 '마음이 부처'라는 자성의 자리에서 염불삼매를 하는 수행법"이라며 "문자와 언어, 시간과 공간 등을 초월한 진여당체를 확인하는 수행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

염불선 수행이 일으키는 변화는 자기 참회의 과정을 단계별로 직접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자기 업장이 녹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자기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또 염불선이 갖는 수행법 성격도 한 요인이다. 타력이 아닌 자력수행인 염불선은 수행체험자의 자발성을 유도해내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즉 기복 등의 소극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지극한 염불을 통해 순간순간의 망상을 거둬내는 적극적인 수행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무심·무념에서 '염불하는 이 놈은 무엇인가'란 염불화두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성미타'를 밝힌다는 점이 염불선 수행법이 가지는 강력한 자기변화 추동력이다.

지옹 스님(칠불사 운상선원장)은 이와 관련, "염불선은 수행자 자신이 아미타불을 염불화두로 삼아 자기변화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염불을 통해 망상을 없앤 다음 화두를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적당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덕산 스님은 염불선 수행을 통해 근본 진여당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맑은 파장'이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불삼매경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거운 업도 맑힐 수 있는 좋은 파장이기에, 재가자들이 가정에서 염불선을 바르게 꾸준히 한다면 스스로의 업을 녹이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을 보게 된다고 스님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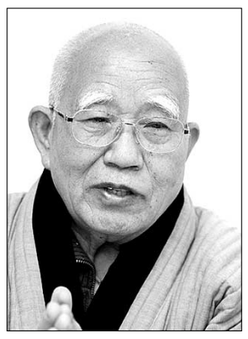
정목 스님(양산 정토원장)은 염불선이 안심과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게 해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확신케 하고 안심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에서' 극락정토라는 희망을 심어준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정목 스님은 염불선 수행이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인 깨달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눈감은 내면에 부처의 자비광명이 자신을 비추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순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겁생의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직관적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지옹 스님이 말하는 염불선 수행 4단계

높은 톤으로 시작…마지막엔 부르지 않아도 아미타불 충만



그러면 염불선은 어떻게 닦는가. 60년 넘게 선방 수좌로 간화선 수행을 해온 하동 칠불사 운상선원장 지옹 스님(사진)은 처음부터 화두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염불선 수행법도 방법이 된다고 권했다. 염불선을 하루 한번 15~20분 정도, 아미타불을 간절히 부르면서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라고 말했다.

스님은 염불선 수행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고성지(高聲持). 자신이 하고 있는 불·보살의 명호를 아주 높은 톤의 음으로 염불한다. 이렇게 고성으로 염불을 하면, 열 가지의 자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잠이 없어지고(能排睡眠) △온갖 장애가 사리지며(天魔驚怖) △일상사가 염불소리로 가득 차고(聲邊十方) △일상사의 고통이 쉬게 되며(三途息苦) △잡다한 외부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고(外聲不入)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며(念心不散)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고(勇猛精進) △모든 부처님을 보게 돼 환희심이 생기며(諸佛歡喜) △삼매력이 깊어지고(三昧現前) △바로 여기가 정토임을 알게 하는(往生淨土) 등의 효과를 본다. 그렇게 익혀서 힘을 얻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미성지(微聲持)로 염불을 하면 된다. 그러다보면,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舌持) 단계로 염불선의 경지에 다다른다. 이후 꾸준히 이렇게 염불을 외면, 염불할 것도 없고 선정할 것도 없이 저절로 염불하는 경지인 금강지(金綱持)에 이르게 된다.

스님은 이 같은 단계를 밟고 염불선을 하면, 간화선에서 화두타파로 생멸을 끊고 견성하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인 금강지에서 아마타불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아미타불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염불하는 자신이 일념·무념의 경지에서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가(念佛者是誰)'라는 염불화두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

스님은 이러한 염불선 수행이 처음부터 자신의 업을 살살 녹여 금강지로 들어가 선의 이치를 알게 하기에 특히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한다.

김철우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명상,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미디어 활용 명상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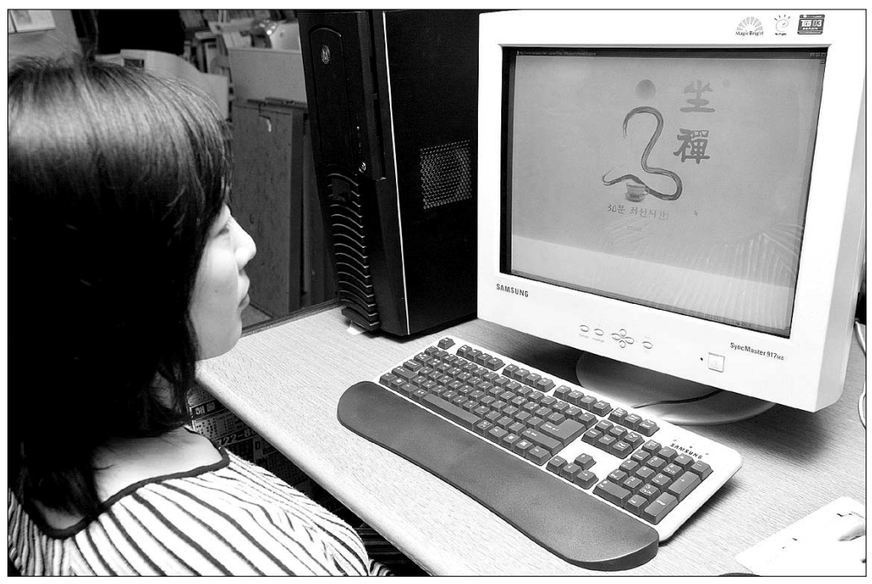
굳이 수련장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명상법이 대표적이다. 명상그래픽을 바라보며 인터넷 명상을 즐기고 DVD와 비디오로 유명 강사의 요가 · 명상법을 집에서 손쉽게 지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건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심신을 이완시키는 명상효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타오스페이스 명상포럼(www.taospace.net)은 인터넷으로도 실제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상법을 제시해 인기가 높다. 타오입문정화, 12분 이완법, 타오30분 좌선명상, 휴식명상 등의 명상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명상법을 비롯해 수준별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매일 밤 10시에는 대화방을 통해 정화명상과 호흡 및 좌선법을 전문가들이 지도해 준다.

타오스페이스 명상포럼 운영자 현지문 씨는 "체계적으로 짜여진 다양한 인터넷 명상프로그램을 그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심신의 이완 및 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침명상(www.achimzen.com)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명상수련' '낙천적인 삶을 위한 명상수련' 등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 상황별로 명상 과정을 고안해 네티즌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준다.

명상음악으로도 명상수련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음악은 그 자체로도 명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평론가 김진묵 씨는 '안정된 호흡'을 음악의 명상성을 나타내는 주요



한 직장인이 인터넷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수준별 프로그램 갖춘 인터넷 명상 큰 인기
DVD·비디오·음악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요인으로 꼽는다. 모든 소리에는 각기 다른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의 연속성이 곧 음악의 호흡이다. 명상성을 지닌 음악은 이 같은 호흡이 비교적 안정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이완에 도움이 된다.

생활 속에서 무리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음반의 종류는 다양하다. 데바프레말(Deva Premal)의 'Ram Jai Ram'와 같이 일정한 리듬과 진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트라 음악, 캐빈 컨(Kevin Kern)이나 유키 구라모토(Yuhki guramoto), 야니(Yanni) 등이 선보이는 뉴에이지 음악 등은 심신의 안정과 평화에 관여하는 뇌의 알파파 배출 효과를 갖는다.

수행을 직접적으로 돕는 음악도 있다. 국내 최대의 명상음악사이트 명상나라(www.meditation.co.kr)측은 "캐빈 캔들(Kevin Kendle)의 'Music For Yoga', 라군 웨스트(Ragoon West)의 'Yoga' 등의 앨범은 하타요가 수련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명상음악"이라고 말했다.

명상 관련 DVD, 비디오 제품 등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단계별, 수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 요가, 오피스 요가 등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응용 요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원정혜, 최윤영 요가 강사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에 직접 참여해, 요가수련원을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의 반복명상>(지혜의 나무, 게르트 슈낙 · 헤르만 라우에 공저)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호흡과 생각,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명상수련법을 도서와 CD를 통해 알려준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참선, 고혈압 예방에 효과 있다"

한림대 연구팀 "일산화질소 농도 높아져 혈관 이완"

참선을 생활화하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한림대 의대 천연의학연구소 송동근 교수 연구팀은 2월 13일 몇 년간 꾸준히 참선을 해 온 20명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일산화질소(NO)의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전문지 '프로그레스 인 뉴로사이코파마콜러지 앤드 바이올로지컬 사이키애트리(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 2월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박희선 박사의 생활참선 수련센터에서 1주일에 1, 2회씩 한 번에 1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천천히 호흡하며 심신을 이완하는 수련을 해 온 30~80대의 남녀 20명을 선정해 혈액을 채취했다.

송 교수는 "요가 · 명상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생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드물었다"며 "참선을 하면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져 혈관이 이완됨으로써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 인재발굴이 바로 전법이다

선종에서는 인재를 법기(法器)라고 부른다. 법을 담아낼만한 그릇이라는 말이다. 나무꾼 노행자가 홍인을 만났을 때 '남방촌놈'이라고 매우 무시하니 "불법에는 남북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오조선사에게 법기임을 인정받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하여 뒷날 제6조가 되어 선종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 놓는다.

일반적으로 조사들의 법문을 모아 편집한 것을 '00록' 혹은 '△△어록'이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육조혜능 선사의 어록만은 후학들이 '경전'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다른 어록과 차별을 지으려고 할만큼 그는 선종에서 불후의 금자탑을 세운 인재이다.

그래서 '혜능록'인 <육조단경>은 일찍이 경전으로서의 후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록들이 그보다 못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튈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눈밝은 사람인 오조홍인 선사가 선종 미래의 동량을 미리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현장 법사가 법제자인 규기를 어릴 때 발견하고는 출가를 반대하는 그의 부모를 설득해 '바랑에 담아' 절로 데리고 오는 것도 모두가 법을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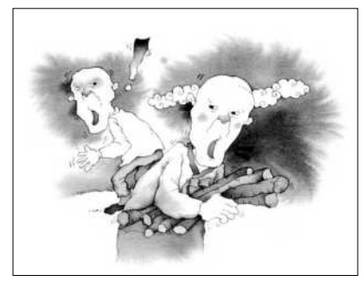
선종의 중국 초조(初祖)인 달마 대사도 예사 법기가 아니였던 모양이다. 이를 그의 스승 반야다라가 알아보고 제자로 맞아들인다. 달마는 인도왕 향지(香至)의 셋째왕자다. 출가하기 전부터 예사롭지 않는 소리를 했던 모양이다. 부왕이 찬탄하고 아름다운 진주구슬을 보여주고 그 소감을 물었다.

"이것은 세간의 보배일 뿐이니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배 중에는 법의 보배가 으뜸입니다. 또 이 광채는 세간의 광채이니 귀한 것이 못됩니다. 모든 광채 중에는 법보의 광채가 으뜸입니다. 또 이 광명은 세간의 광명이니 귀한 것이 못됩니다. 모든 광명 중에는 법보의 광명이 으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찬 사람의 눈에는 그 진주구슬이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갓 흔해빠진 유리구슬에 불과하다. 법의 귀함을 어찌 진주구슬에 비길 수 있으랴. 그래서 법의 구슬을 법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실 진주구슬의 광명이라고 해봐야 얼마만큼 주변을 비출 수 있겠는가? 지혜의 광명은 온 세상을 세세생생 밝힐 수 있는 것이니 그 비출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런 이유를 그는 참으로 선종적 관점에서 법기답게 설명한다.

"이 구슬의 광채는 스스로 비치지 못하고 지혜의 광명은 이 광명을 분별합니다. 이를 분별한 뒤에야 구슬인줄 알게 되고 구슬임을 안 뒤에야 보배임을 압니다. 그것이 보배임을 밝혔으나 보배는 그 스스로 보배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구슬임을 분별하나 구슬은 스스로가 구슬이 되지 못합니다. 구슬이 스스로 구슬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혜의 구슬에 의하여 세간의 구슬을 분별하고, 보배가 스스로 보배가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혜의 보배에 의하여 법의 보배를 밝힙니다."



보배는 갈고 닦아야 빛나는 것처럼
법기 알아 보고 정성껏 지도해야

이 정도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불원천리하고 달려가서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하지만 데리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잘 가르쳐서 법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래 전 명문대학 출신들이 대거 발심출가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인물들이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또 매스컴을 탔다. '제도권' 밖에 있는 그들을 보고는 한켠으로 참으로 씁쓸했다.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가.

규기의, 정말 말도 안되는 '오계도 지키지 않겠다'는 요구를 현장 스님은 선선히 수용하여 출가시킨 후 그를 다시 발심시켰다. 그다음 제대로 된 공부길을 제시, 규기를 완벽한 수행자로 바꾸어 놓은 인내심과 안목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 더욱 빛나보인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집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표지 그림
근원 강양동의 전각 작품 '서운(棲雲)'
2005년 1 · 2월호 주요 내용
교리 | 지혜의 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기초교리)종범 스님의 '불교란 무엇인가?' ①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응응불교 –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불교와 서양의 정신치료가 상생해야 하는 이유
특집 | 고령화사회,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불교계의 노인복지 운영 현황 진단과 일본 불교계의 복지사업 소개를 통해 영적 복지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집근방안
일본 불교계에서 배워야 할 노인복지 사업
노인들은 이런 불교 복지서비스를 원한다
영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2 불교 수행공동체 아마라와띠(Amaravati)
수메도 스님 법문 – "밖에서 찾으려 말고 내 안에서 만나십시오"
해외통신 | '나의 스승, 숭산 스님' – 외국인 제자들이 띄우는 추모편지
수행 | 마음공부
장로대담 – 선지식에게 듣는 수행한담(修行閑談)
1.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수산 지종 스님
"먼저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수행이지요"
수행에 대한 Q&A – 참선 수행 · 위빠사나 수행
문화 | 불교와 문화가 만나는 곳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 1 수원 봉녕사 동지팥죽 끓이던 날
문화기행 – 떠도는 성보 1. 불상
사람 | 아름다운 사람들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① 서울 · 경기지역
불교시민단체 '작은손길' / 인천 재가불자모임 '하심회'
정보
불교계 상(賞), 어떤 게 있나
(엽서)절로 가는 길 – 서산 간월암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저자특강/서광 스님 (미국 보스톤 서운사)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마음을 정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
일시__ 2005년 2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__ 불광교육원 3층 대륜당
정원__ 선착순 180명
접수__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서광 스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미국 보스톤 서운사 주지. 월간 불광에 오랫동안 현대 심리학과 마음공부에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으며, 불광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그냥 바라만 볼 뿐이다』, 『불교상담심리학입문』, 『마음의 치료』,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한영불교사전』 등을 펴냈다.
since 1974, 정통불교의 맥을 이어온 순수불교잡지 월간 「불광」 정기구독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道는 차 한 잔에 있다

차나 한잔 들지

저는 매사 격식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찻잔에서 차의 종류, 그리고 마시는 법도까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시는 차

저는 다기를 갖추어 쓰지 않습니다. 세트를 한번 써 본 적이 있는데, 좀 번거롭고 형식적이다 싶어 작파했습니다. 대신, 널찍한 대접 위에 쇠로 된 거르개를 걸쳐 놓고, 거기 차를 얹은 다음, 전기 포트에서 끓여낸 물을 붓습니다. 간편하기 이를 데 없지요.

제가 쓰는 찻잔은 좀 독특합니다. 다기용 찻잔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몇 번씩 나누어 마셔야 하는데, 늘 그게 좀 번거롭고 감질났습니다. 그렇다고 커피용 머그잔은 너무 크고 위압적(?)이어서 불만이던 차에, 그 중간 크기의 컵을 광주 도자기전을 돌다가 발견하고, 이거다 하며 환호했습니다. 높이는 머그의 반쯤이고, 찻잔의 두 배쯤입니다. 이 컵의 묘미는 바닥은 편평하고 입구가 두툼한데 있습니다. 마시기도 좋고, 씻기도 너무 편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좋고 녹차를 따라도 좋습니다. 손이 쏘옥 들어가고 품이 넉넉하니 헹구어내는데 용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좀 널리 일반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를 좀 잡스럽게 마십니다. 연구실 책꽂이의 폭이 넉넉하여 거기 여러 차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산 것도 있고, 누가 준 것도 있습니다. 둘러보니, 세계 차의 작은 박람회 같습니다.

아, 참, 화엄(華嚴)의 본래 이름이 잡화(雜花)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화엄경(華嚴經)>은 본래 <잡화경(雜花經)>, 즉 "허접한 꽃들의 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상스럽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이름을 바꾼 모양인데, 저는 이 폭거(?)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체가 평등(平等)하여 높낮이가 없는 판에, 매난국죽(梅蘭菊竹), 귀하거나 품위 있거나 우아한 꽃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저 나름대로 피고, 그 핀 자태와 향기가 모여 한바탕 축제를 이룬 잡화엄식(雜花嚴飾)이 이 세상의 풍경임을, <잡화경>은 웅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못났다 하여 기죽지 말고, 없다 하여 절망하지 말고, 잘났다고 뻐길 것 없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이루십시오.

서가에 늘어선 잡차(雜茶)들, 거기 특별한 명품은 없습니다. 학생이 준 유기농 녹차, 강원도산 머루차, 슈퍼에서 산 모과차, 영국에서 온 아마드 홍차, 대만 학회 갔을 때 사온 철관음과 오룡차, 중국 학자가 준 재스민과 보이차가 있습니다. 커피도 일회용 믹스와 카푸치노에, 필터로 걸러먹는 차에, 설탕 크림에 타먹는 분말 커피도 있습니다.

손이 주로 가기는 녹차와 커피이고, 나머지는 별식으로 마십니다.

무엇을 마실지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안으로 향할 때는 고즈넉한 녹차가 좋고, 마음이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는 찐득한 커피가 좋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우울할 때는 따뜻한 커피가 좋고, 날씨가 덥고 회의가 길어지고 잡생각이 많을 때는 차가운 녹차가 좋습니다. 한문에 젖을 때는 녹차에 손이 가고, 영어를 따라갈 때는 어느새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커피도 녹차도 굳이 고급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저급하여 맛이 탁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너무 비싼 차는 부담스럽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너무 섬세하면 부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차도 거칠고 투박한 맛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녹차 가운데 제가 제일로 치는 것은 설록차 억수입니다. 억수는 색깔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우러나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엷어 밋밋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취빛 색깔이 심산의 맑은 연못 같아서 별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맛도 재스민처럼 화려하거나 풍만하지 않고, 오룡차처럼 둔탁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그 맛은 약간 떫고 터프하면서도 달고 시원합니다.

억수보다 위로 가면, 떫고 터프한 맛이 줄어들고, 그보다 아래로 가면 달고 시원한 맛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금상첨화, 가격도 적절하고, 구하기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껄, 주머니 사정이 그 정도인데, 저도 잘 모르는 소리를, 고상하게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마음으로 우려, 빈 마음으로 권하는 차

저는 차를 마시는 법도도 까다롭게 따지지 않습니다. 매사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요. 주인된 사람은 손님이 차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 맛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음을 나누는 데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다도를 운운하며 까다롭게 따지면, 차 맛이 저만큼 달아나 버립니다. 그럴 땐 단숨에 한 잔을 들이키고는 더 이상 찻잔에 손대지 않습니다. 차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든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다든가, 찻값의 고하를 들먹이기 시작하면 차가 묵직하게 가슴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의 이력을 줄줄이 꿰며, 옛적의 다인들의 행적을 늘어놓으면, 차 맛을 느껴야할 신경이 귀로 이동해버립니다.

차에 '관한' 얘기는 입맛을 돋울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식을 자랑하거나 차별을 두려는 권위의식이야말로 차 맛을 버리는 원흉 아닐까요. 아, 그 '정보'와 '권위' 사이의 경계가 말의 다과(多寡)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해 두어야겠습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번잡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한 마디 말도 덜컥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섬세한 차이는 역시 '마음'에 있다 싶습니다. 그 경계를 이거다고 말로 짚어주기는 어렵지만….

조주 스님에게 객승 하나가 와서 물었습니다. "도(道)가 무엇입니까?" "차 한 잔 들게(喫茶去)." 너무 자주 들어 식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계사 옆 찻집 하나가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끽다거', 아 참, 여기 거(去) 자를 심각하게 해석해서, "차나 한잔 하고 가지"라고 새기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글자는 동사의 방향을 일러주는 보조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찻잔 쪽으로 뻗는 손을 함축하고 있다고 알면 대충 비슷합니다. 정통 한문에서는 어림도 없는 용법이지만, 당송 이후의 구어체와 거기서 발전한 현대 중국어에서 빠질 수 없는 글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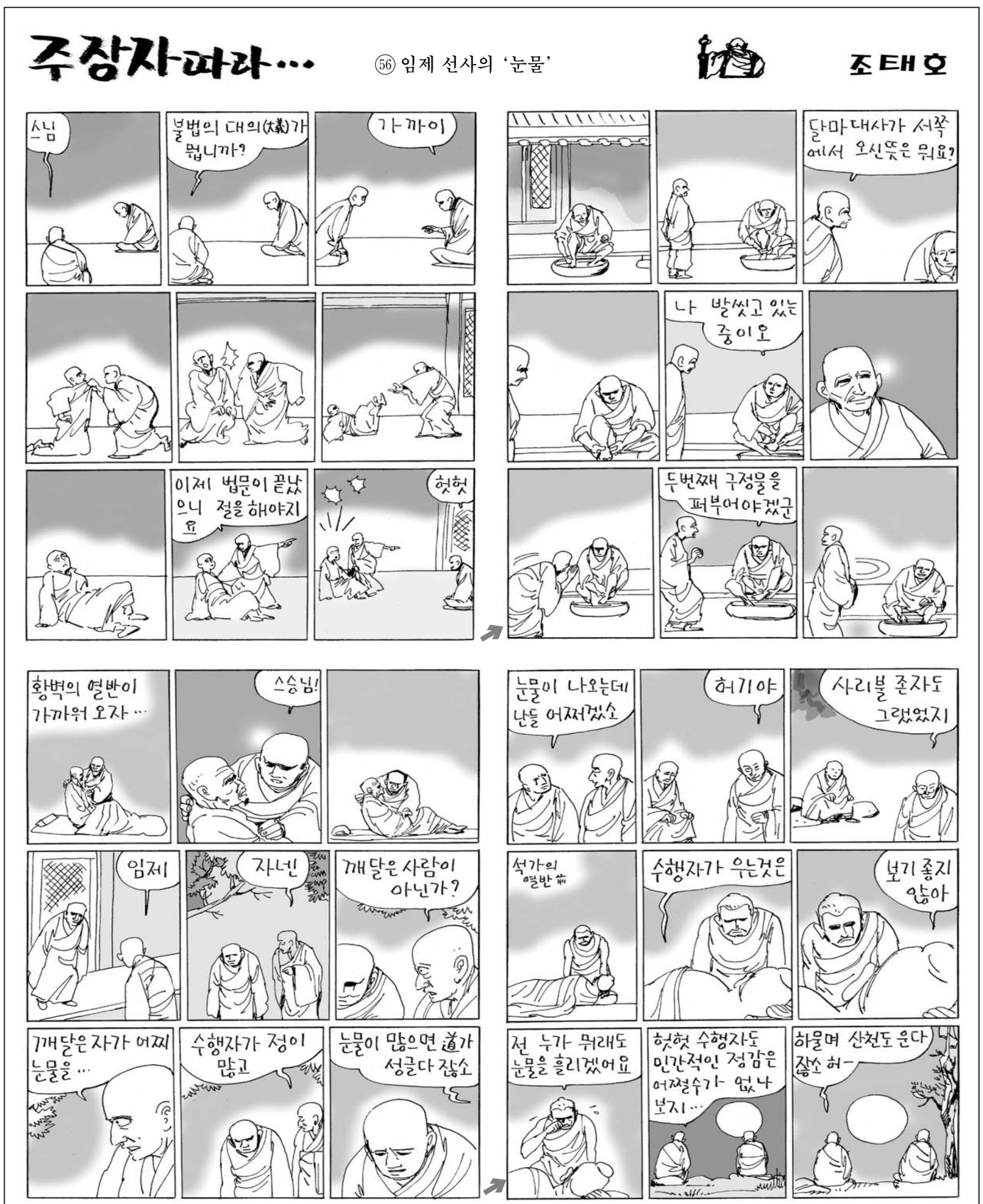
신선이 마시는 감로

어쨌거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너무 쉽겠습니다. 너무 쉬울 것 같아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차 한 잔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분노와 슬픔을 타서 차를 마시지 않을 때가 드물고, 내 에고와 권위를 타서 차를 권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를 '빈 마음'으로 우려, 빈 마음으로 권할 때 거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공(空)이라, 무심(無心)은, 당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불순물로 탁하게 오염시킨 차를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다는 파렴치를 알기만 하면, 차 맛은 훨씬 좋아질 것이니, 그 감로수를 마시는 사람은 단박에 신선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제 의현(?~867): 당나라 스님. 황벽 스님에게 법을 받았다. 하북성 임제원에서 후학을 지도했으며 혜연 · 연소 스님 등 22명에게 법을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이뭣고' 화두는 어떤 것인지?

문 화두공안이 참으로 많습니다. 흔한 말로 1700공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뭣고' 화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이'만 바르게 의심하면 '뭣고'가 필요없다"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불학자)

답1 : '이뭣고'하는 화두에서 '이'는 처음에 '마음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두 가지로 하다가 의심이 잡히면 '이뭣고'로 통일하면 됩니다. 의심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라는 것은 의심의 표시니까 '이'해서 의심이 생기면 '뭣고'가 같이 곁들여 있는 것임으로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잘 되지 않으니까 '뭣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희미해지면 안 되니까 가끔 '뭣고'도 넣어야 됩니다. '이뭣고', '뭣고'하는 그 놈이 무엇인고?를 반복해서 의심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하기 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하는 그 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강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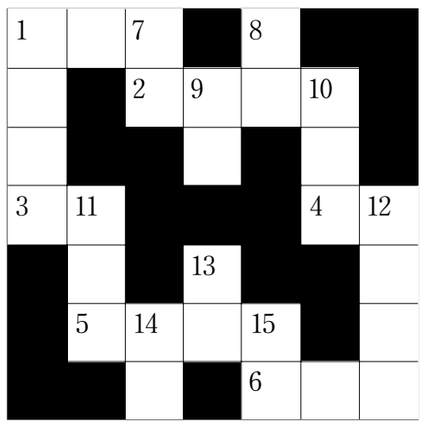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답2 : 아직 '이'를 바르게 의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질문입니다. '뭣고?'는 몰라서 무엇인가를 의심하면 일어납니다. '뭣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의심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알면 틀린 것입니다. 이미 의심을 잘해나가는데 있어 단어자체 '뭣고'는 빼도 됩니다. '이'만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 '이 하는 놈이 뭣고?' 하며 의심을 일으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써 정신작용을 표현하기 어려우니 적지 않아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뭣고'가 실제로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의심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헤매기 십상입니다. 글귀에 집착해 '마음이 무엇인고?' 하다가 '이뭣고'로 통일하고자 고집하면 조작된 의심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뭣고'의 화두는 '이' 하는 이놈의 의심이 드느냐 안드냐?를 알아야 합니다. 의심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자세)

답3 : 옛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공부를 설명하다보니깐 말이 필요해서 '이뭣고?'가 나왔다고 봅니다. 화두 공부 길을 터득한 사람은 별다른 말이 필요 없지만, 처음 한 사람이 '이뭣고'를 배워서 하려면 이득할 따름입니다. 조작해서 '이뭣고' 해봤자 누가 이 지루한 공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뭣고'라는 말은 선가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선정)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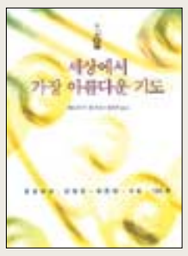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항생물질로 된 약제로 흔히 마이신 또는 페니실린으로 불림 2. (아내 또는 남편 없이)혼자 밤을 지냄 3.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에서 X에 대하여 Y를 이르는 말 4.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로 인두와 위사이의 긴 관 5. 구상이 크고 줄거리가 복잡하며 양적으로 긴 소설 6.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로 비로자나불을 뜻함.

세로 1. 비행기를 싣고 발착시킬 수 있는 군함 7. 해군장성에 대한 통칭 8.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일 10. 문자에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11. 대궐문이나 성문을 지키던 장수 12. 밤에 무덤이나 고목 등에서 인(燐)의 작용으로 번쩍이는 푸른 빛 13. 강타하면 즉시 졸도하거나 죽게 되는 위험한 부위 14.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 15. 교리 · 종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경전 등을 풀어 이야기하는 행위.



인류의 위대한 '발견' 기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베른하르트 랑 편저
황정례 옮김
휴먼앤 북스 | 8천원

고대문명~현대 종교·문화 초월해 절실한 믿음 담긴 기도 100편 엮어

"우리가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테네인의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부처님, 당신은 병들고 불순한 세상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저마다의 대상을 찾아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희망해 왔다. 오랜 가뭄이나 흉년이 들 때, 혹은 사냥을 하거나 항해를 떠날 때, 자식이 생기지 않거나 자녀의 행복을 빌 때 등 바람과 대상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의식을 행해왔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고락을 함께해온 익숙한 행위이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민족과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고 광대한 기도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 1백편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출간됐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이 책의 지은이는 현재 독일의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베른하르트 랑(59)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아름답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문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아름다운 기도문이란 결코 장황하고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함 속에 깊은 신앙심이 담겨 있어 그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의 울림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도문의 범위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단순히 잘 알려진 내용에 국한 시키지 않고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고대 문명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종교·문화의 경계를 넘어 아름답고 다양한 기도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믿음을 담아낸 순수한 언어들을 통해 현실에 찌들고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며 인류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묘미 중 하나다.

문자 없는 이들의 기도는 문명의 색채 없이 직설적이기만 하다. 그래서 더 절실하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바로롱족은 '아침 기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신성하신 아버지시여! 저는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허기진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고대문명의 한 건설자였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집트 18 왕조 후기 파라오 중 한 명인 에크나톤은 태양신을 찬양했다. "당신이 서쪽에서 질 때면, 만물은 죽은 듯이 잠듭니다. 당신이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는 아침이 올 때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깃들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지은이는 플라톤의 기록을 빌려 소크라테스의 절실한 바람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여기 살고 계시는 모든 신이시여! 제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겉모습 또한 저의 내면과 일치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같은 기도보다 더 소크라테스의 인간됨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또 있을까.

중세 유럽의 대표적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은총을 바라며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를 동등하게 한다"고 말했다. 악성 뇌 종양으로 격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뜬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병중의 기도'를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고 찬양하도록 해주소서"라고 빌었다.

일본 정토종을 개창한 승려 호넨은 부처와 가르침(다르마)과 공동체는 불교의 세가지 보석이라는 의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저는 불자들의 공동체에 귀의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매일 예불때 드렸다고 한다.

지은이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며 소설의 작가인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기도 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드미트리는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라고 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불경 때문은 아니다. 그는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모순에 찬 답변을 한다.

이렇게 다양성과 방대함 속에서도 이 책의 기도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힘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메마른 영혼을 위로하고, 아울러 신앙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자는 것이 지은이가 말하는 이 책의 존재 목적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9백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잘나가던 의사에서 일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안철수연구소 대표로 변신했던 지은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나같은 사람에겐 등대같은 존재다.

세계경제포럼의 '차세대 아시아의 리더 한국대표 18인', 비즈니스위크의 '아시아의 별 25인'에 뽑히기도 했던 그는 이 책에서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제2의 성장엔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 중 핵심이 바로 'A자형 인재'다.

지은이가 말하는 인재상이란 'A자'에서 처럼 사람 인(人)자와 그 사이를 잇는 선이 삼각 균형을 이루는 상태, 즉 전문성·인성·팀워크의 세 가지 능력을 고루 겸비한 인재를 말한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T자형(전문성과 연관지식을 갖춘 인재)에 팀워크를 높이는 능력이 추가된 개념이다.

10년 전 서울 서초동 뒷골목에서 3명으로 시작해 매출액 20%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3백여명의 통합보안회사로 성장한 이 회사의 숨은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이는 곧 '영혼이 있는 승부'로 세계적 멘토 반열에 오른 그의 21세기 인재관이며 개인·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안철수 방식'이기도 하다.

'A자형' 인재의 자질 세가지

그는 먼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그 분야의 지식과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 문제해결·개선능력, 창조력, 고객지향성 등 5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한다. '인성' 부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정신,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명감과 공익정신을 핵심 요소로 든다. 팀워크 능력을 키우는 데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생각,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커뮤니케이션 능력, 후배양성 능력, 동기 부여와 연계된 리더십 등을 중시한다. 결국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자신이 맡은 일은 잘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이 한계를 뛰어넘고 조직과 인재가 입체적으로 '윈윈'하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성장동력이다. 그는 또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까지 이끈 키워드가 '제조업'과 '위험감수'였다면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키워드는 '지식정보산업'과 '위험 관리'라고 얘기한다. 아울러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정' '기초와 기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절실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와같이 이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다보면 조직의 성장정체 위기를 극복해낸 실제 경험과 우리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안철수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와 조직 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질과 업무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21세기 한국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와 젊은 세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책을 덮는 순간 희망이 생기게 한다.

■정해손(비에스리 산업 대표)

봉 행

인류평화기원 및 유주무주 애혼 영가 극락왕생을 위한

대운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 조성기념 만등불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귀의합니다.

묘림사와 과거 현재의 인연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소승 두손 모아 감사드리오며 불자님 가정에 일체 액난이 소멸하시어 뜻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 이루시길 한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장대불을 조성 봉안하고자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제 지장 대불조성 회향을 아래 와 같이 알리게 되어 소승 너무나 큰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크나큰 기쁨을 부처님 전에 회향 올리며, **인류평화기원과 유주무주 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8m 높이(28자)의 지장대불 봉불점안식과 대법회**를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봄날에 갖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소멸하시고 선근인년 복덕을 지어 세세생생토록 복락을 누리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운산 자락에서 관진 합장
불기 2549년 1월 좋은날

◗ 지장대불 점안법회 안내

증명법사 우룡 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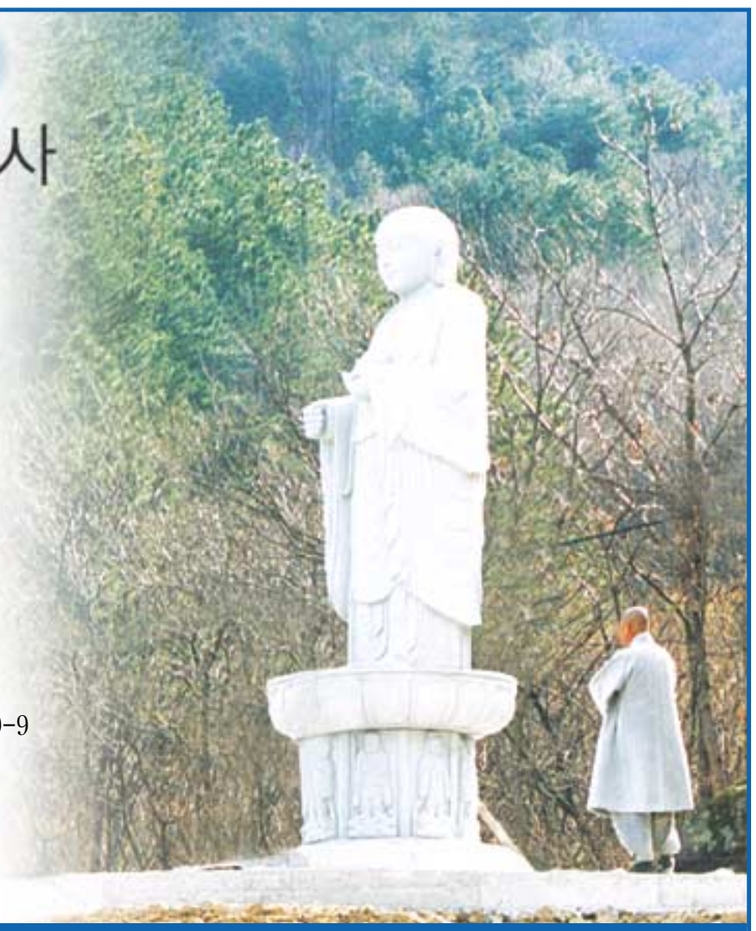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6일 일요일 (음, 을유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운사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전



◗ 만등불사 점등식 및 전야재 안내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5일 토요일 (양력) 오후 7시
- 장소 : 노천 지장대불전 •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 온라인번호 : (예금주 묘림사)
  조흥은행 922-03-003246 부산은행 032-01-045509-9
  농 협 815040-51-035170

※ 차량운행안내
▷ 범어사 전철역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매일(오전 9시 30분) 차량운행대기
▷ 양산서창 파출소 앞 수시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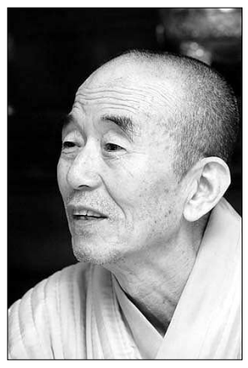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도량 대운산 묘림사 주지 관진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번지 전화 052)237-4366. 238-6264 (팩스겸용)

종성 스님이 남긴 참사람으로 사는 법

"화두공부란 오직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뜻을 세워 '이 공부 이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살아도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굳은 각오로 한결같은 공부를 이루어 대오를 성취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입적한 종성 스님(前 임제선원 조실 · 사진)의 법문집 <마음 공부의 바른 길>이 나왔다.

"수행은 누구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한 종성 스님은 193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원광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68년 37살의 늦은 나이에 수행의 길에 들어선 스님은 92년 서옹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제산은 종성 스님의 법호)에게 부촉하노라"는 전법게를 받았다. 90년대 초부터 서울 봉천동 관악산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과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 지도에 전념해 왔다. 특히 스님의 지도 아래 '법조인 불자회'가 창립돼 15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책에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변' '임제진인의 자각을 위한 실참의 정로' 등 스님의 법문과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영산대 총장 부구욱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동 부장판사 등 후학들이 쓴 추모사가 함께 담겨 있다.

특히 스님은 법문에서 참사람, 즉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위진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스님은 '임제진인의 자각을 위한 실참의 정로'에서 그 올바른 공부법을 제시한다.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은 "이 책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의 본래 마음을 찾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모은 것"이라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마음 공부의 바른 길
종성 스님 지음
임제선원 | 1만원

생활에 쏙쏙 스며드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의 가르침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테러와 전쟁, 연쇄살인과 자살, 비만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펴낸 안양규 교수(동국대)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를 넘어 "현대인이 반드시 알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지침서"라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질에 집중되어 있다.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을 깊이 다루는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고 유익한 것이다."

안 교수가 든 예시를 살펴보자.

초등학생조차 서너 개의 학원을 전전하며 '정신없이 바쁘다'고 불평하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몇 초 만에 정보를 검색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조급해졌다. 제각기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는 잊고 있는 것이다. 안 교수는 나무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토끼를 보고 숲 속의 모든 동물이 무작정 함께 달려간다는 <자타카>의 우화를 들며,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여유를 가져볼 것을 권한다. 또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만'에 대해서는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는 부처님의 게송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2,600년 전의 언어로 이루어진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대인에게 익숙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고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무관한 것이라면 시선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자타카>와 <아함경> <대장엄론경> 등의 경전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을 뽑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안양규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시하는 생활속 실천 지침서

1부 '붓다란 어떤 분인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그 가르침을 보여주는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의 탄생과 수행, 하루일과, 전법, 입멸 전후의 상황 등을 소개하며 부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세'는 불교를 공부하는 마음 자세를, 3부 '붓다의 가르침'과 4부 '현대사회에 있어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다.

5부 '마음다스리기'는 앞서 제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경전을 모았다. "수시로 마음을 단속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붕에 난 구멍은 기술자를 불러 고칠 수 있지만, 마음에 난 구멍은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마음 단속은 힘들지만 일단 해 두면 비가 새지 않는 집과 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은 2001년 펴낸 <붓다의 비유설법>과 지난해 본지에 연재한 '경전이야기'를 수정 보완해 엮은 것으로, 안 교수는 "천천히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제비꽃 편지>**(권오분 글, 오병훈 그림, 도솔, 9천5백원)=결혼식 부케를 제비꽃으로 만들었을 만큼 들꽃에 대한 애정이 깊은 지은이가 보내는 들꽃편지.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5년 동안 꽃 이야기를 연재한 지은이는 토끼풀, 금꿩의다리, 달개비, 붓꽃 등의 들꽃들이 전하는 자연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한국식물연구회 오병훈 회장이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보탰다.



■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지예>**(박미경 글, 이규철 사진, 이른아침, 1만4천원)=수필가 박미경씨와 사진작가 이규철씨가 잊혀져 가는 우리 옛길과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글과 사진을 통해 고속도로가 생긴 후 외면 받고 있는 대관령과 너릿재, 새이령을 비롯해 북동마을, 유치마을 등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장터인 영천오일장과 구례오일장 풍경도 살갑게 다가온다.



■ **<운명비결>**(해광 스님 지음, 관음출판사, 1만2천9백원)=생활역학할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광 스님(금강선원 주지)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학안내서를 펴냈다. 스님은 역의 원리와 운명수(음력 생일의 달과 일의 숫자를 더한 수를 9로 나눈 나머지 값), 부동산과 자동차, 전화번호 등에 담긴 궁합 등을 소개한다.



보르헤스는 왜 불교에 심취했나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작가로 추앙받는 보르헤스. 그는 불교에서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시상을 찾았다. 사진제공=솔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여시아문, 1998)를 펴냈던 문학평론가 김홍근씨가 중남미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삶과 문학을 정리한 <보르헤스 문학전기>를 펴냈다. 지은이가 2001년부터 2004년 봄까지 <현대시학>에 연재했던 '보르헤스의 문학전기'를 다듬어 묶은 이 책은 미국 예일대학 로드리게스 모네갈 교수의 보르헤스 전기를 뼈대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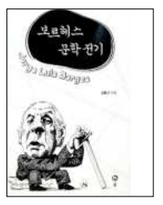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작가로 추앙받는 보르헤스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가 젊은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해 스페인과 중남미 독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를 집필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지은이는 책에서 보르헤스가 그려내는 문학세계를 조망하는 한편,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을 쉽고 평이한 문체로 설명한다.

'시간'의 문제에 천착했던 보르헤스는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시간관의 상이함'에 있다고 파악한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일회적이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붓다의 삶과 가르침은 역사적인 주기 때마다 반복되며, 고타마는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의 한 고리의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보르헤스는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강연에서 "불교는 나에게 있어 구원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만큼 '시간'과 '깨달음' '자아' '윤회설' 등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정신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보르헤스에게 불교는 단순히 신비한 이방문화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이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비유들을 통해 그가 불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보르헤스 문학 전기
김홍근 지음 | 솔 |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선방가는 길	정 찬 주	열 림 원
3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 시 아 문
4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 명 석	동 숭 동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 림
6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 얀 연 꽃
7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8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 른 아 침
9	보살예수	길 희 성	현 암 사
10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 솔

도서 안내 : (02)737-0695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1학기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2학기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강 사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 - 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 천 수 륙 재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 목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태평소 호적반 모집 (매주 1회 금요일 오후 3~5시) 강사 : 중요무형문화재 피리 정악 이수자 이거희

※ 특전 : 본교 졸업시 그 기능이 인정되면 무형문화재 수륙재 및 범패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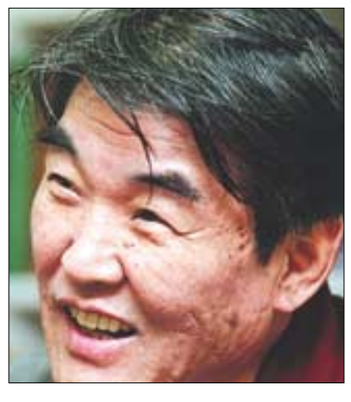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 화 : 032) 529-6708 / 전 송 : 032) 529-6709**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김지하 詩人의 달마 · 생명 · 불교에 대해 듣는다

목마른 이시대 유머가 필요하다

직접 그린 달마 100여점 전시(3월 2~13일, 인사동 학고재)



그 언제 어디에서건 '타는 목마름으로' 삶을 뜨겁게 노래했던 시인 김지하. 70년대에는 수없는 투옥을 거치면서도 불퇴전의 민주투사로, 80년대 이후에는 생명운동가로 그 어디에서나 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치열함을 보여준 김지하.

그런 그의 열정이 화선지 위에 거칠고도 익살스러운 먹의 흔적으로 남았다. 김지하 시인은 25년 동안 중국 선종 초조 달마 스님을 그려왔다. 보편화된 달마 그림과 달리 그의 달마에는 익살, 기쁨, 슬픔 등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24주간 연재되는 동안 네티즌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선사하며 인기를 끈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유자재로 선기를 드날렸던 달마 스님을 통해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신의 달마 그림을 100여 점 모아 놓고 생애 첫 달마전(3월 2~13일, 인사동 학고재)를 여는 김지하 시인을 2월 15일 일산 자택에서 만났다.



'꽃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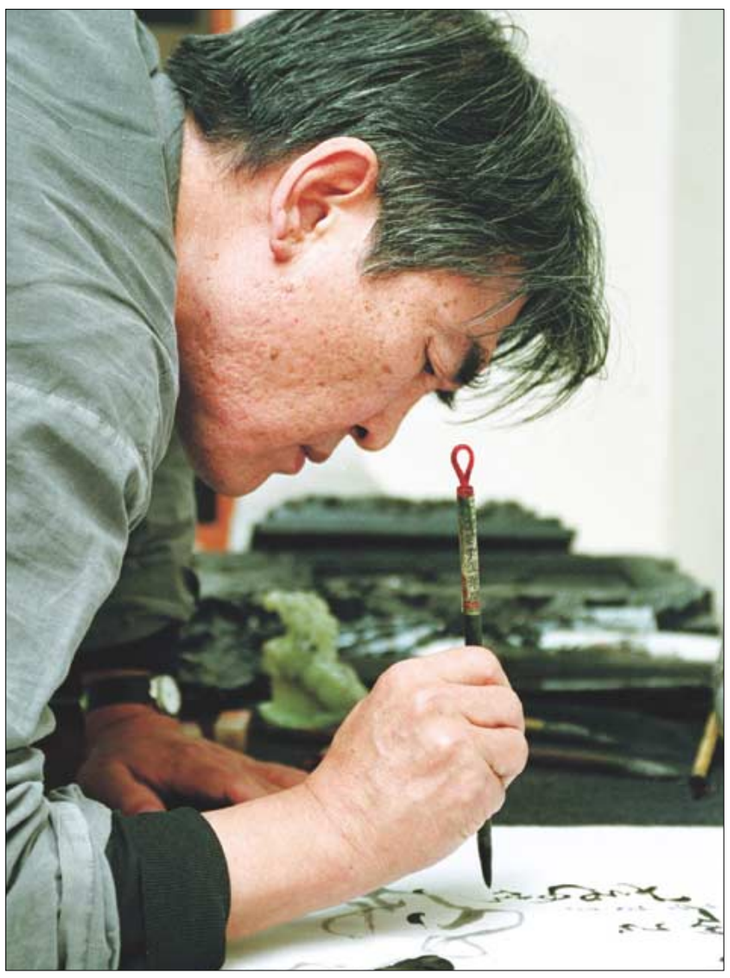
'둘씩이나'



'도(道)는 비행기 흉내일까'



'의심하라! 답하리니'



김지하 시인은 엄숙하고 딱딱한 달마보다는 유쾌하고 익살스런 달마를 그린다.

 # 왜 '달마도'인가?

독방에 죄수를 5년 이상 가두지 않는 것은 감옥의 불문율이다. 실성을 참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치를 나름대로 설정한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7년의 세월을 빈벽과 마주하고 견뎌냈다. 참선 덕이다. 엄혹한 특수 격리 기간이 5년째로 접어들던 당시, 나는 참선에 대한 책을 닥치는대로 읽은 후 수행을 시작했다.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안이었다.

80년대 초 형집행정지로 출감하면서 몸은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시대와의 불화는 마음의 자유를 허락지 않았다. 그때부터 난과 달마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특히 연담 김명국 선생의 달마도를 접한 이후 달마의 자유롭고 여여한 정신세계에 매료돼 먹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엄숙하고 딱딱한 달마보다는 생명력이 충만한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달마를 많이 그렸다. 계율이 엄한 절집에 도리어 우스개가 많듯이, 뭔가 까다로운 기강이 요구되는 이 시절에는 유머가 더욱 요청되기 때문이다.

 # 달마도는 그린 이의 수행력을 그대로 담아낸다고 한다.

난을 치는데 있어서 붓을 잡은 이의 마음과 붓끝의 뜻은 같지만, 붓이 그 마음을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마음은 난초잎의 끝을 지나 더 깊고 크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밖으로 뻗은 난초의 끝에 다함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달마를 담아왔다.

나의 달마 그림으로 수행력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시적 언어로 끌어올리기도 힘든 마음을 묵향으로 다스려온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수양의 한 방편이 됐다.

 #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이 그린 달마도에서는 여느 그림과 달리 맑고 강한 기운이 느낄 수 있다. 25년 간 생명 운동을 이끌어 온 시인의 사상과 '달마도의 氣'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달마도 자체의 맑은 기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필로 뻗은 붓질 자체, 먹 안의 비백(飛白) 안에는 그린 이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영성과 내가 강조해온 생명은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생명·평화 운동의 맨 앞에서 대안 이론을 모색해오던 부담을 벗고 시인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겠노라 선언했다. 최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연재한 24편의 달마 그림과 화제(畵題)에 대한 소고 역시 그 활동의 일환인 듯하다. 연재된 그림과 글에는 생명 사상에 대한 불교적인 이해가 돋보였다. 시인이 말하는 '생명'과 '불교'는 어떻게 닿아있나.

달마의 자유롭고 여여한 정신에 매료
붓질의 영성과 '생명' 둘일 수 없어
'집단적 참선' 사회변혁 가져올 것

최근 생명과 환경을 논하는 이들 대부분은 서양의 생태학보다는 불교에 그 소이사상을 두고 있다.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 영성 등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기본원리는 곧 불교다. 한 개의 달이 비추지만 강물 위에 천 개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월인천강(月印千江)의 다양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상생을 강조하는 <범망경>의 네트워크 등 불교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생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평소 논하는 선도풍류, 동학 등의 사상을 '눈동자'라고 표현한다면 불교는 '망막'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게송 등을 인용한 화제를 보니 서산 스님 등의 선시(禪詩)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

감옥에 있을 당시 서산 · 경허 · 진묵 스님 등의 선시를 100여 편 넘게 외우고 있었다. 특히 서산 스님의 "꽃이 지는데 절집은 오래 닫혀있어 봄을 찾는 나그네 돌아갈 길 모른다. 바람은 학 등우리를 흔들고 구름이 좌선하는 옷에 젖어든다"라는 시는 요즘도 되뇌는 선시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무심한 선객의 옷자락에도 구름이 스며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3천 명이 넘는 시인 가운데 천 이백 명 가량이 생태시인이고 그들 가운데 70%이상이 불교에 기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평소 '요기싸르(요가수행자를 의미하는 yogi와 혁명위원회를 뜻하는 comminssar를 합친 말)'를 표방해 온 시인이다. 안으로는 요기처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사회적 변혁을 꿈꾸는 요기싸르의 정신을 달마 그림에 대한 소고에서 엿볼 수 있었다.

선불교는 일상적인 논리를 벗어난 어법으로 직관적인 깨달음을 준다. 화두를 담은 화제를 통해 일상의 작은 고민과 의심이 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 했다.

삶과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진리탐구 행위인 '화두참구'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문화에의 요구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집단적 참선'이 사회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참여불교와 생명운동의 길이 둘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최근 지율 스님이 단식으로써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중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 옛날 분신정국에서 "자기자신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고 일갈했던 시인인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속세의 상식으로 성직자의 단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듯하다. 절집 안에서의 단식은 수행의 한 방편이고, 도롱뇽을 넘어서 티끌 하나까지도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수행자다. 불가지론으로 빠지기 전에 불교계 내부 입장의 전면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했던 새만금사업 관련 삼보일배 건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식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책!

이책을 읽는 사람이 많으면 국운(國運)이 왕성해진다. 왜냐하면 민족이 미신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면 국운이 쇠약해진다. 사람에게 혼(魂)이 없이 없으면 죽는 것이요 나라의 국혼(國魂)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국혼이 있는가?

인식 전환의 새로운 장

천지창조의 비밀

金 宗 星 씀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을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UFO(외계인)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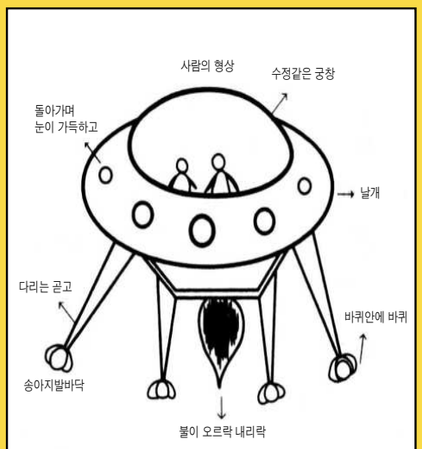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쏴: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卍 · 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 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0>



무엇을 깨닫고 싶은가

깨달음의 세계에 어서 빨리 들어가고픈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덕이 높은 큰 스님을 스승으로 섬기며 지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스승을 모시면서 틈만 나면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스승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너만 못하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젊은 수행자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언제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승이 혼자 있는 모습만 보이면 젊은 수행자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스승님, 제발 좋은 말씀을 내려 주십시오."

"네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너만 못하다."

젊은 수행자는 스승의 무덤덤한 태도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고 자기 손에 쥐여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젊은 수행자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 내려가자 커다란 돌덩이에라도 짓눌린 양 무겁기 짝이 없던 가슴이 순식간에 개운해졌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눈앞이 깨끗해지자 주먹을 쥐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보였습니다. 분노에 차올라 스승을 향해 높이 쳐들었던 주먹이었습니다. 그는 멱살을 쥔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 태산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온몸을 던져 절을 올렸습니다.

책에서는 그가 활연히 대오[豁然大悟]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깨달음의 순간은 벼락을 맞은 듯 전율하였으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는 스승의 말에서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 수행자 본인이 아닌 이상 그의 깨달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만 못하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라고 되뇌는 스승의 말에는 저 역시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며칠 전 저는 위빠사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한 낯선 이를 만났습니다. 묵언의 규칙을 깨고 그이는 말하였습니다.

"간화선이고 위빠사나고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군요. 위빠사나 수행을 한 스님에게서 좋다고 들어서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앞서 그곳을 떠나갔는데 그가 남긴 여운에는 실망스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좋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요…"입니다.

불교공부를 좀 해보았지만 알 듯 모를 듯 하고 뭘 말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이들에게 '대체 뭘 알고 싶은가?'를 물으면 그들은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번뇌에 시달리는 주인공도 자기이고 깨달음의 주인공도 자기이거늘,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만 못하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젊은 수행자는 중국 송나라 때 양기방회 선사이고, 스승은 자명 선사입니다. <직지심체요절> 하권에서 발췌하여 조금 살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번뇌하는 주인공도 깨달음의 주인공도 나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르침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승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외진 곳에서 스승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지나던 스승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대번에 스승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래도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멱살이 잡힌 스승은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스승을 노려보던 젊은 수행자는 비장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스승을 향해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너만 못하다. 제발 네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너만 못하다."

자칫 경을 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이 조인 채 간신히 내뱉은 스승의 대답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순간 무엇에라도 얻어맞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그는 전율하였습니다. 짜릿한 느낌이 온 몸을 쓸



연화도 법회가 풍랑때문에 취소되자 안타까워하는 신도들에게 고산 스님은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룬 일은 쉽게 어그러지고, 어렵게 이룬일은 오래가는 법이니 기도나 공부도 쉽게 이룰 생각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온 마음 쏟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상 백고좌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나를 그렇게 따라 다녀?"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다. 이른 아침, 부산을 출발해 오후 1시가 넘도록 스님 뒤를 졸졸 따라 다닌 셈이었다. 통영 연화도 연화사에서 고산 스님의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따라 나선 길. 그날따라 전날 내린 눈으로 길은 얼어붙고,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부산을 출발했지만 차들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제 맘대로 미끄러지는 차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평소 3시간이면 충분한 통영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이제 연화도행 배를 타는 것만 남았는데…

바다 가운데 회오리가 불어 배가 뜨지 않는다는 전갈이었다. 연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사로 향한다는 스님 뒤를 따라 미래사로 향하던 길, 다시 목적지가 용화사로 바뀌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곧장 차머리를 용화사로 돌려 오후 1시가 훌쩍 넘어서야, 스님께 인사를 여쭌 것이다.

"스님,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룬 일은 쉽게 어그러지고, 어렵게 이룬 일은 파괴가 잘 안 돼요. 모든 기도나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해야 성공의 바탕이 단단한 거예요. 오늘도 잘 들어갈 건데, 시련을 한번 겪게 하는 것이지."

짧은 반나절, 고산 스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 나선 여정에서 불현듯 서역으로 진리를 구하러 떠났던 옛 선지식들의 머나먼 구도 여정이 떠올랐다. 교통수단조차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진리를 찾아 떠났던 선지식들 중에는 그 먼 여정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목숨을 잃었던 구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이어왔던 법의 흐름이 이 시대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리라. 거기에 생각이 닿자, 앞서간 선지식들과 현 시대를 지켜가고 있는 선지식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산 스님을 뵙는 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으로 다가왔다. 스님께서 주로 주석하시는 부산의 혜원정사에서 뵈었다면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법의 소중함, 스승의 소중함을 강풍과 눈길로 얼어붙은 통영행이 일깨워주고 있었다.

바다길이 막혀 못가고 만 통영 연화도 연화사 불사 얘기부터 여쭈었다. 연화사는 고산 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이다. 한번의 법회 참석도 이리 우여곡절이 많은데, 불사하는 긴 시간동안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

인내와 노력 무엇보다 중요

"불사는 처음부터 신심으로 하는 것이지 신심이 아니면 잘 안돼요. 15-16년 전에 처음 현지답사를 가서 3일간 민박을 하면서 전체 섬을 일주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사명대사, 연화도사 토굴터를 발견했어요. 당시 연화장 세계를 상징해서 지은 시구는 남아 있는데 어째서 절터도 하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밭 두 떼기를 사놓고 나온 것이 지금 연화사와 보덕암 창건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요."

이후 스님은 10년에 걸쳐 2만여 평의 땅을 샀고, 3년 만에 연화사를 완공했다. 이어 보덕암 불사도 3년 만에 완공한 스님은 앞으로 연화장 세계를 염두에 둔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관음상을 모신 옆에다가 극락, 인간세계, 지옥세계를 상징

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몽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십시오.
전화바랍니다.

연화정사 041)588-7779,010-6772-7485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모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기도처 자광원 자연속에 보금자리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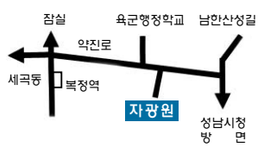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관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하는 공간을 빙 둘러가면서 조성하고 상봉으로 오르는 연화로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테마 조각공원으로 만들 작정이다. 상봉 옆에는 연화도인 토굴터를 복원해서 동상을 모시고 그 옆에는 사명대사 토굴터도 복원해서 사명대사 동상도 모시게 된다.

스님이 꿈꾸고 추진하는 연화장 세계를 향한 불사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연화도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연화도를 찾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면서 객지로 떠났던 섬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섬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의 원력이 죽어가던 섬마을을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수행처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이처럼 스님은 퇴락해가던 하동 쌍계사를 정부 보조금 하나 없이 20년이 걸려 중창했고, 부산 혜원정사, 부천 석왕사, 통영 연화사를 연달아 창건했다. 스님이 마음을 먹고 시작한 불사는 반드시 성사됐고, 수많은 대중들이 운집하는 가람으로 자리잡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을 한문 그대로 아침마다 외워요. 72~75년 조계사 주지를 할 때, 내가 발원문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신도들이 눈물 지었을 정도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발원을 해 왔어요. 그 발원문 중에 큰 법당을 처처에 세우고, 마구니는 있는 대로 파(破)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서 시방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그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 나왔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운 참다운 스님이 되겠다는 원력으로 처음 행자 과정을 할 때 밥 짓는 것, 반찬 짓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갔어요."

자나깨나 남 돕는 언행해야

기본을 강조하는 스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으로 제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스승이다. 궁중요리 책까지 섭렵하며 배운 스님의 요리 실력은 일류 요리사 수준이다. 삽이나 괭이를 잡으면 일류 신농씨라는 얘기를 듣고, 대패나 망치나 톱을 잡으면 조계종단에서 도목수 소리를 듣는다. 김천 청암사 강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스님이 직접 학생의 책상을 손수 짜서 줬을 정도였다. 통나무를 켜서 대패질을 하고 아교풀로 붙여서 서랍을 하나씩 넣어 만들었다고 했다. 아직도 그 책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웃어 보이는 스님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 기울이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은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 다 이뤄지는



누구든지 일상을 살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산 스님.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듯이 계행이 바로 그 기초에 해당됩니다. 석암 스님께서 계행(戒行)을 청정히 지키면 계덕(戒德)으로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세상일은 이뤄놓고 보면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루기 전에는 시시비비가 많아요. 부처님도 6년 설산고행 하고 또 두루 익힌 것을 종합해서 12년 수도를 해서 성불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알아주지, 금방 가서 2~3일 만에 성불했으면 누가 믿어주나요?"

스님은 요즘 사람들은 근기가 약해 조금만 고달퍼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것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에 보면, 이미 삼천년 전에 한자리에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말을 다 듣고, 가만히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30년 전에 법문하면서 그 소리를 하니 미친 놈이라고 하더니만 TV, 컴퓨터, CD까지 나왔잖아요.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쏘옥 들어간다는 말씀이 CD의 출현으로 증명된 셈이지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진짜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려면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한계가 없는 컴퓨터가 바로 인간의 머리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잘 연구해서 밝혀내고 그 도리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다보면 언젠가는 불국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스님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또한 스님은 불제자의 가장 핵심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일상을 살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님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해가면서도 틈틈이 공부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노력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 깨달아가지고 되는 것이니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꾸준히 틈을 내서 하루 몇 분이라도 참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풀면 앞길 트이고 행복 찾아와

생활 속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전체 우리 국민이 자나 깨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이나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나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고생한 것을 털어놓으면 전부 다 놀랍니다. 세상 살아가다보면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고 마음먹은 것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로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베푸는 것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로 베푸는 재보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없애주는 무외시 등 내 가진 모든 것을 베풀면 앞길이 트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앞길은 현재 자기의 실다운 행동 하나 하나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강풍과 얼어붙은 길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고산 스님의 귀한 법문이,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확 뚫어놓고 있었다. 막힘없는 길, 그 길을 열어준 부처님과 선지식들께 마음의 삼배를 드리면서 돌아왔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초파일 독불공 참회기도로 바꾸고 신도들 설득해 찬불가 보급

고산 스님은 1970년대 초 조계사 법당 앞, 노보살들을 중심으로 데모가 열렸다. '신성한 법당을 노래자랑 무대로 만들 셈이냐'는 항의가 거세였다. 법당에 석주 스님을 모시고 운문 스님을 주축으로 만든 첫 찬불가를 부른 다음날 일어난 풍경이었다. 그 당시 주지는 고산 스님이었고 찬불가를 만들어 부르자고 제안한 것도 스님이었다.

"그때, 보살들의 반대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노래는 포교의 좋은 방편이 된다고 생각해 설득을 했죠." 고산 스님은 부산에서도 한차례 홍역을 치루며 찬불가 보급을 시작했고 그것이 불교음악의 시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조계사 주지 당시 연초 · 초파일 때 행해지던 독불공을 과감하게 없앴다. 독불공을 참회기도로 바꿔 불자들의 기도와 정진 열기를 높여나갔다. 이처럼 앞서가는 생각과 추진력으로 일관해온 고산 스님 지금도 불교의 미래를 가꾸려는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32년 울주에서 태어나 46년 출가한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 법사로 쌍계사, 석왕사, 혜원정사, 연화사 등을 오가며 대중 교화의 한 길을 걷고 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48년 사미계, 56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에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와 조계종 호계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고산 스님은 <대승기신론 강의본><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선 깨달음의 길>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부처님 말씀을 순 우리말로 노래한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를 칠순을 기념해 출간하기도 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활연 스님

오래 전,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행당에는 고참 스님들, 조금은 특별한 내로라 하는 스님들이 여럿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임도 맡지 않은 이른바 한주(閑住)들이었다.

활연(活然) 스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십을 갓 넘긴 스님은 별스럽게도 수염을 길게 길러 늘어뜨린 채 휘적휘적 경내를 돌아다니곤 했다.

강주(講主) 소임을 잠시 맡아 있다 그만두고 행당의 구석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그럭저럭 소일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스님은 매우 박학했다. 어릴적부터 서당(書堂) 공부를 오래하여 유학(儒學)에 통달했을 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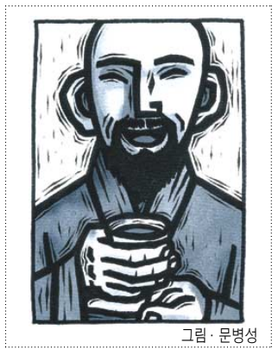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니라 도가(道家)에 심취, 그쪽 방면으로 상당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들었다.

이렇듯 유추해 보건대 활연 스님, 그는 가히 유불선(儒佛仙) 삼도(三道)에 깊이 발을 적시고 유유자적, 그만의 행보를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선도(仙道)의 멋을 좇아 그는 다른 스님네들이 잘 하지 않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혼자 키우고, 그 나름의 자족(自足)에 젖어 있었을까.

강주 소임까지 맡아 본 스님 방에 수많은 장서들이 소장돼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으로 구경삼아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놀랐다. 그의 방엔 조그만 경상 하나와 조촐한 다구(茶具)들 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장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방, 그것이 활연 스님 그의 실체였다.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은 공(空)하다고 했든가. 서책과 경서(經書)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것에 집착하면 근본 대의(大義)를 잃는다.

부처님께서 설한 팔만의 대장경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든가. 그러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활연 스님은 아예 책을 곁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문자(文字)에 집착하면 오히려 심안(心眼)이 흐려지는 법. 맑은 바람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한잔의 차로 파적(破寂)의 멋을 즐기는 것이 야말로 대장부의 할 일이다.

서책과 사리(事理)에 묻혀 일희일비(一喜一悲)함은 소인배의 한갓 봄날의 낮 꿈 같은 것, 가물거리다 사라져 버리는 아지랑이 같은 것.

텅 비어있는 활연 스님의 방은 비어있으므로 더욱 충만해 보였다. 정갈한 스님의 방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눌라치면, 바깥에서 불어대는 솔바람 소리가 한층 드높아졌다. 스님은 가끔 몇 마디 우스개 소리를 한 뒤 긴 수염을 흔들며 너털웃음을 터트리곤 했다. 아무런 티끌도 없는, 묻어 있지 않은 그의 너털웃음이 빈방의 적막을 흔들었다.

아무런 사심도 욕망도 없이 그 나름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활연 스님은 진정한 도인이었다. 행당 옆 개울가 바위 위에서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스님을 가끔 목격하곤 했다. 그 고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는 개울물 소리를 따라 어디론가 멀리로

책 가득할것 같던 스님방은 텅 비어 있어 더욱 충만

떠나가고 있는 듯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세계를 향하여 둥둥 떠나가고 있는 듯했다.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우러져 합일(合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의 길이요, 무상(無上)의 보리(菩提)라 할 수 있겠다.

개울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 활연 스님은 과연 스스로도 모르게 자연의 한 부분으로 회귀(回歸)하고 있었을까.

점심공양이 끝난 뒤, 그는 어김없이 개울 쪽으로 향하곤 했다. 인적이 뜸한 그곳이 그의 성미에 딱 들어맞는 모양이었다.

봄이면 움트는 버들개지와 함께, 여름이면 나무 그늘 아래서 발을 담그고, 가을이면 떠내려 오는 붉은 나뭇잎들을 응시하고, 겨울이면 얼음장 아래서 돌돌거리며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활연 스님은 거기, 개울가 바위 부근을 그의 수행처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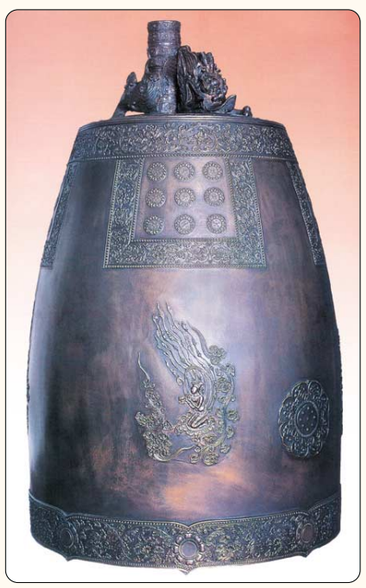
어디 그만한 수행처가 있을까. 사시사철 변화하는 계절의 면모를 지켜보면서 그는 스스로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동화시켜 나갔을 것이다.

오래 전, 금정산 범어사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시절, 활연 스님이란 조금은 특별한 스님이 있었기에 당시 나의 삶은 단조롭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행보를 곁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범상치 않은 한 수행인의 풍도(風度)를 느꼈기 때문이다.

■ 봉화 청량사 주지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 품)
법당등(궁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정월 대보름 전국 불꽃잔치


①


②


③


④

① 제주 들불축제의 하일라이트인 '10만평 오름태우기'의 장엄한 모습.
② 대보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망우리를 돌려 보름달을 닮은 불꽃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다.
③ ④ 들불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제주하늘을 오색으로 수놓는다.
사진제공=북제주군

쥐불놀이 · 달집태우기 등 민속축제 곳곳서 열려

동네 개구쟁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깡통을 못으로 구멍 뚫어 나무 등을 넣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 이 깡통에 줄을 매달아 돌리면 휘영청 보름달을 닮은 불꽃 동그라미가 만들어 진다.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야말로 추억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질 그날의 풍경이다. 매달 전국 각지에서 50여 개에 달하는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의 풍습에 기반을 둔 시선을 끄는 정월 대보름 축제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전북 남원의 동무공원에서 열리는 정월 대보름 축제(2월 23~24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달집태우기. 높이 20m 폭 7m의 거대한 달집이 성난 용처럼 불꽃을 뿜어내면 농악대는 그 주위를 맴돌며 불(火)과 흥의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 낸다. 2005년 흥부골정월대보름놀이의 주제는 악(樂)과 흥(興)이다. 전통 민속축제에 남원을 상징하는 '소리(창:唱)'를 현대적으로 녹여내 신명나는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다.

강원도의 임영민속연구회(23일)가 강릉시 남대천 일대에서 펼치는 망월제례, 답교놀이, 용물달기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돌탑쌓기, 횃불대행진 등을 비롯해 새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체험마당도 이색적이다. 특히 온 식구가 모여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정성이 깃든 돌탑을 쌓을 수 있는 '돌탑쌓기'로 엄마, 아빠, 자녀 또는 연인끼리의 사랑다짐을 견고히 해 봄은 어떨까.

경기도박물관과 수원문화원의 대보름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23~24일 양일동안 경기도박물관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보름 행사는 월령기원제, 당산제, 윷놀이, 투호, 부럼깨기,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전통 대보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또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수도사는 23일 수도사 사찰음식 학습관에서 오곡밥 및 사찰나물요리 만들기 특별강좌도 준비돼 있다. 정월대보름축제 현장에서 만끽한 흥의 절정과 감동은 올해 내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는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031)682-3169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을유년 '정월 대보름' 맞이 문화행사 열리는 곳

지역	주 관	행 사 내 용	기 간	장 소	문의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통영 오광대 마당극, 김연실 전통무용공연	23/26	앞마당 및 대강당	(02)734-1346
	국립중앙극장	탑교놀이, 남도민요연창, 강강술래	23	문화광장	(02)2280-4114
	국립국악원	박순화 '춤' 공연, '달 위에 생명의 노래' 공연	23/25	예악당	(02)580-3333
	한국의 집	보름음식 시식, 복주머니 나누기	23	앞마당	(02)2277-2768
	동작문화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23	동작구청	(02)822-8500
부산	낙동민속보존회	당산제, 지신밟기, 달집짓기	23	낙동강변	(051)342-1771
대구	민예총 대구지회	진굿풍물공연, 달불놀이	23	달성군 세천리	(053)426-2809
대전	중구문화원	당산제, 농악	23/24	시민광장	(042)488-5474
	서구문화원			둔산공원	(042)256-3684
광주	서구문화원	윷놀이, 투호, 부럼깨기, 연날리기, 가훈써주기	23	풍암지구	(062)681-4174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062)525-8633
울산	중구문화원	달집사르기	23	태화강 둔치	(052)244-2007
경기	경기도박물관	제기차기, 사찰요리 만들기	23/24	경기도박물관	(031)288-5300
	수도사			수도사	(031)682-3169
강원	춘천문화원	하평답교놀이, 요물달기, 사직단 제례	23	원당동 사직당	(033)254-5105
	삼척문화원				(033)573-9882
충북	제천문화원	의림지공어축제, 품바공연, 망우리 돌리기	23	의림지일대	(043)642-3646
	보은군			보은문화예술회관	(043)540-3114
충남	기벌포문화학교	솟대세우기, 풍물마당	23/24	금강하구둑	(041)956-8090
전북	흥부골세시풍속연구회	달집태우기, 농악, 대보름 음식 나누기	22/23/24	남원시 중군강변	(063)636-2474
경북	포항문화원	쥐불놀이, 널뛰기	23	포항문화원	(054)242-4711
	청도문화원			청도천 둔치	(054)371-2514
경남	합천문화원	정월 대보름 달집놀이	23	용주교 고수부지	(055)931-2401

게시판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기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술아카데미(사진)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극만들기, 뮤지컬 클래스, 대본창작교실, 무용교실, 재즈이야기 등 예술강좌와 세계미술여행, 영화만들기 등 8개 강좌로 구성됐고, 수강신청은 28일까지다.(031)481-3816

덕성여대 박물관 탐구과정 개설 덕성여자대학교는 초 · 중등학교 학부형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이해와 문화탐구'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제공되며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25일까지다.(02)765-1846

시사편찬위 서울역사 강좌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는 3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서울의 역사를 내용으로 한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와 3시 2차례에 걸쳐 시사편찬위 1층 대강당에서 60명씩 2개 반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희망자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02)413-9626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모집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저소득 ·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말벗, 사랑이 넘치는 가사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4-4058

20면 상식 퍼즐 정답

항	생	제		불		
공		독	수	공	방	
모			교		정	
함	수				식	도
	문		급			깨
	장	편	소	설		비
		람		법	신	불

공연

보름달 아래서 강강술래

국립극장 문화광장서 대보름축제

정월 대보름인 2월 23일(수) 저녁 8시 30분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는 대보름축제 '남산 위의 둥근달'이 펼쳐진다. 국립극장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대보름에 세시풍속과 전통예술을 엮어서 선보이는 절기 축제의 진수다.


국립극장 정월 대보름행사 '달오름 축제, 남산 위의 둥근달'에서 공연될 '강강술래'.

풍물패 살판의 사물놀이와 국립창극단의 남도민요, 국립무용단의 강강술래가 휘영청 밝은 달 아래 펼쳐지며 축제의 흥을 절정으로 이끈다. 특히 30여명의 여자 무용수들이 만들어내는 강강수월래는 이 공연의 클라이막스. 조명으로 만들어 낸 지름 7m의 보름달을 배경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처자들의 낭랑 목소리와 토끼처럼 귀엽게 깡충깡충 뛰며 손잡 붙잡고 빙빙도는 모습은 축제를 관람하는 어르신들을 공연삼매에 빠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보름 세시풍속 중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다리밟기 놀이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를 체험할 수 있고 귀밝이술, 부럼 등 다양한 먹거리도 무료로 즐기는 재미가 있다. (02)2280-4114

미리보는 창극 '춘향전'

23일 5시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은 대보름을 맞아 23일 오후 5시 본원 공연장에서 비나리, 남도굿거리 등을 무대화한 제1부 공연과 제2부에서는 창극 '춘향전'을 선보인다.

비나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굿으로 개인, 가정, 마을의 액을 풀어주는 액풀이, 복을 빌어 주는 축원덕담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제2부 공연은 내달 3월에 일본 도쿄 국립극장에서 있을 판소리 · 분라쿠(문학) 합동무대의 참가작품인 창극 춘향전을 미리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무대로 꾸몄다.(063)620-2306

극장가



스파이더 / 스릴러 / 98분
개봉예정일: 2월 25일
감독: 데이빗 크로넨버그
출연: 존 네빌, 랄프 파인즈 등
등급: 18세 이상
정신분열증 환자 데니스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런던 동부 지역의 정신병원에 도착한다. 스파이더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는 관리인인 윌킨스 부인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는 스파이더. 그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기억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만 가는데….



네버랜드를 찾아서 / 드라마 / 101분
개봉예정일: 2월 25일
감독: 마크 포스터
출연: 더스틴 호프만, 케이트 윈슬렛 등
등급: 12세 이상
남편 제임스(죠니 뎁 분)와 연극배우 출신인 아내 메리(레다 미첼 분)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멀어져 간다. 어느 날 켄싱턴 공원에 산책을 나선 그는 젊은 미망인 실비아(케이트 윈슬렛 분)와 그녀의 네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1일 07:05 아침저널
22일 06:20 새로운 인생
23일 08:55 마음의 향기
24일 01:00 세계음악여행
25일 09:50 도현 스님의 거룩한 만남
26일 23:00 뮤직 N 유영석입니다
27일 07:40 참선이야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1일 07:50 명상음악산책
22일 21:30 참선요가
23일 23:40 한국의 명찰
24일 22:10 산중대담
25일 09:00 영상니르바나
26일 16:10 부처님경전이야기
27일 17:30 불교TV스페셜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2월 25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2월 25일 오후 09:20~10:00)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영어법문을 쉽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불자가 아닌 이들도 관심을 갖고 불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DVD]스님, 불교란 무엇입니까?

송강기획은 불교의 기본 교리를 명쾌하게 설명한 '[DVD]스님, 불교란 무엇입니까?'를 출시했다. 이 DVD는 불교의 종교적인 체험과 실천 수행을 통해 불자라는 자각 속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제시해 줄 것이다.
내용은 43분 분량, 가격 2만원.(02)732-1520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되찾은 희망 (하)

변숙이 (대구시 북구 관음동)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3일 만에 여기저기 직장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 후 남편은 절에도 잘 나가고 불심을 키우며 바르게 잘 살고 있다.

요즘은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을 남편이 더 고마워하고 있다. 그 후부터 나는 포교에 자신감을 갖고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고 1년에 한 명 이상에게 꼭 포교하고 있다.

신앙생활도 무르익어 어언 10년이 될 즈음 보름이 가까워지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보름달이 그렇게 곱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달빛이 아쉬워 밤을 하얗게 새운 적도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쪼그리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또 달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때 그 스님, 무원 스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소낙비가 올 때면 차를 몰고 무작정 달리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 때도 그 스님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용기 없는 바보처럼. 그래도 그 스님 찾아가서 한 마디 말 해 본적도 없고 찾아가 인사 한 번 한 적 없이 그저 먼발치에서 '고맙습니다'라고 뒷모습에만 대고 합장하곤 했다. 둥근 달이 뜨면 뵙고 싶고 소낙비가 와도 뵙고 싶어, 여름휴가 때 남편을 졸라 구인사에 갔다. 나는 대조사님 앞에 합장하고 "이 연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생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무원스님 장삼 한 벌 해드리고 싶고 그때 고마웠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지만 용기 없는 이 중생 한 마디 말도 못하는 바보입니다. 무원 스님이 저를 부를 때 7대 조사님의 원력으로 불렀겠지요. 그러니 그 스님 옷 대신 대조사님의 탄신일 날 꽃 시주 하시라고 공양금을 올리겠사오니 그 스님을 귀하게 봐주시고 멋지고 멋진 최고의 장삼을 대조사님께서 입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았다. 그 세계는 이루 말로도 글로도 표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내가 보고 느끼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 순간하고 바꾸지 않으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모든 의심 끊고 기도에 열중
마음 안정되니 모든일 '환희'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 누운 지 불과 5분이었다. 꿈인지 생신지 안타까워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깊이깊이 뿌리박혔다.

열심히 관음정진하며 부처님 정법대로 살다 가도록 노력하리라.

작은 것부터 실천 수행하여 다음 생엔 꼭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생도 보았고 일상생활에 약간의 고통도 있었지만 기도로 다 해결되고 항상 평범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 다음해 여름이 다시 왔다. 갑자기 남편이 베트남에 1년 동안 연수를 떠났다. 마음도 허전하고 하안거 주간이라 구인사로 3일 기도를 갔다. 4층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멈춰지질 않았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바람 쐬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 때 약속이나 한 듯 저 밑에서 무원 스님이 또 올라 오셨다.

스님은 나를 보더니 "보살님,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라고 했다.

눈물을 줄줄 흘린 채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내 방 몇 호실로 오세요"하고 지나갔는데 우느라고 방 호수를 잊어 버렸다. 식당 마당 마루에 앉아 눈물을 닦고 진정을 취해서 무작정 내려가 보았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마중을 나와도 그렇게 정확하게 만날 수 없었다.

스님께서는 나를 보더니 첫 마디가 "보살님, 남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슬하에 자녀는 몇을 두었습니까?"하고 묻더니만 "보살님이 나한테 묻고 싶은 말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했다. 그 때 내가 "스님, 그 때 스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불렀을까, 그게 생활하면서 늘 궁금합니다"라고 하니 "왜 불렀을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요. 다 인연이 있었기에…." 하는 짧은 답변을 한 마디 했다.

"예"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실로 향했다. 그 후부터 생각도 의문도 다 묻어둔 채 모두 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자 스님이 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구인사에 가도 그 스님을 마주치는 횟수도 차츰차츰 멀해졌다.

그러나 보름달빛은 여전히 고와 잠 못 이룰 때가 있다. 그 때는 이런저런 마음을 다치우고 용맹정진 한다.

그 해 스님을 만난 몇 달 후 내가 다니던 사찰에서 내게 신도회 간부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부녀회장 3년을 마치고 다음해엔 재무부장을 하고, 시골이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그 사찰을 위해 경리일을 4년간 무료봉사했다. 그 때 무원 스님은 구인사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계셨다. 주지스님의 배려로 간부임기를 마치면서 부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열린 2박3일 간부파티에 참석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명 깊었다. 간부파티에는 무원스님이 사회를 보고 대덕 스님들과 전국 사찰 신도회장님들이 참석해 계셨다. 내가 감히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그 자리에서 무원스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다 같이 손뼉치고 노래 부르던 화합된 그 자리가 감명 깊었다.

열차를 타고 돌아오며 난 생각했다. 부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신도님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영광을 조금이나마 회향하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자비의 종소리가 퍼질 때 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금이나마 보람된 일을 해야 되지 싶어 남편한테 뜻을 전했더니 돈을 주며 격려했다. 쌀도 사고 두툼한 조끼며 내의 등을 사서 우리 사찰 신도 중 어려운 보살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전하며 위로를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했다. 받은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실천수행을 통해 베푸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맛볼 때 신앙생활 중 그 어느 것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큰 시주도 해보고, 간부 생활도 하고, 절소임도 맡아보고, 불교 교리도 배우고, 스님 법문도 듣는 등 무엇이나 해봤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소외받는 노인들을 돕는 것이 나는 내 맘에 제일로 와 닿고 또 제일 보람차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갖고 올해엔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꼭 합격해서 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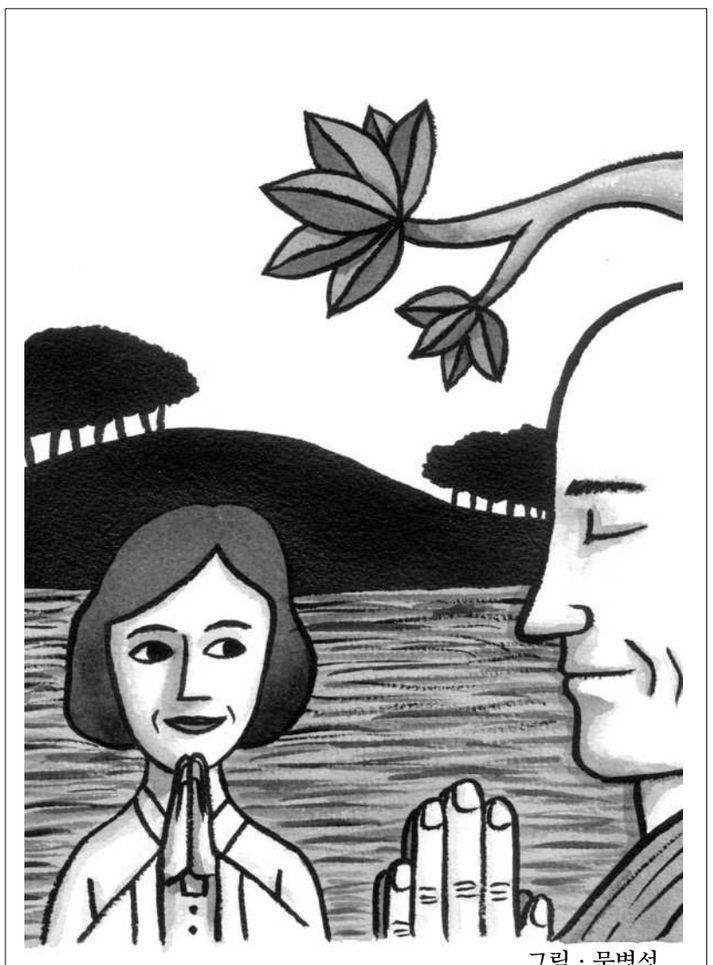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신규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10년의 첫 해를 맞아 지역 포교사를 모집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사시로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가장 믿음직한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지역 포교소식을 정성으로 알리는 불교홍포에 앞장서실 활동적인 지사장님을 모집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참 맛을 생활 속에서 되살려내는 정상의 신행 포교지인 현대불교신문 지사장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신규 개설 모집 지역 - 충남 / 대전, 강원권, 울산 / 경주 / 포항, 제주권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사업 전개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진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 활동계획서, 추천서(사암련회장 또는 교구 본사급 주지스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제출기한 : 2005년 3월 6일(토)
- 제출방법 : 우편(3.6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방문 접수.
4) 제출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팩스 02)737-0697

불교문예학과 불교문학전공 석사 ·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 접수마감 : 2005. 2. 28
◆ 모집과정 : 석사과정 (2년) / 연구과정 (1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남 · 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불교문예학과 불교음악전공 특별과정 신입생 모집

● 구해 스님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 본교 초빙교수)
● 만춘 스님 (『불교의식각론』 저자, 본교 전임교수)
● 법현 스님 (동국대학교 국악과 부교수, 본교 객원교수)

교육과정	강 의 내 용	담당교수
기초의식	도량석, 종성, 향수해례, 행신축원, 신중자법, 회업시식, 사시마지, 오분향례 등	구해 스님 만춘 스님
범 패	홑소리 : 할향, 합장게, 복청게, 도량게, 거불, 가영 등	구해 스님 만춘 스님
작 법	나비춤 : 도량게, 다게, 사방요신 등	법현 스님

◆ 수강대상 : 남 · 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범음범패 및 작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특 전 : 수료 시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수여

東方大學院大學校
www.dongbang.ac.kr 문의전화 (02)745-2141

재충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수 강 생 모 집

불교문예 분야
◆ 사찰 기초의식 습의과정
◆ 범패 · 무용 실기가정
◆ 불교조각 · 불화 실기
◆ 불전기초 · 대승경전연구

사주명리 분야
◆ 사주명리 초급 · 고급과정
◆ 주역과 현대생활 응용
◆ 점성술 · 복서육효 응용
◆ 육임 · 기문둔갑 미래 예측

민화진채 전문인 과정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 공 임 교수
◆ 서 공 임 : 한국민화작가회 수석 부회장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3월 첫 주부터 16주
◆ 교육시간 : 목요일 10:00~16:00 (6시간)

서화예술 분야
◆ 서예(한문 · 한글) 실기
◆ 전각 예술 실기
◆ 문인화 · 수묵화 실기
◆ 옻칠화 · 채묵화 실기
◆ 도판 (도자기 서예) 실기
◆ 서 · 화론 선독 과정

생활풍수 분야
◆ 생활에 응용되는 풍수
◆ 인테리어와 풍수응용
◆ 주거설계와 풍수응용
◆ 풍수를 통한 부동산 전략

자연치유 분야
◆ 사주학을 통한 한방 연구
◆ 대체의학을 통한 자연치유
◆ 기공을 통한 건강생활
◆ 전래 한방비전 연구

외국어 회화 분야
◆ 중국어 회화
◆ 일본어 회화
◆ 한문 사서

접수 및 등록기간
◆ 접수마감 : 2005. 2. 28
◆ 수강대상 :
– 남 · 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 2005년 3월 첫 주부터(16주)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성취감을 느껴 보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로 오세요
www.dongbang.ac.kr 문의전화 : (02)745-2141

건실한 불자님을 모십니다

연령 25세~65세, 남자는 군필요함

本社는 장영실 과학기술대상에 빛나는 FREE FROM FIRE(불안나) 사업본부입니다.
세계32개국에서 특허를 득하였고, 이번에 전 지구촌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선 성실한 불자님 000명의 동참을 바랍니다.

1. 화재예방 진압이 극히 간편한 혁명적입니다.
2. 유독가스가 전혀없고, 새집 증후군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3. 30여종의 부대사업으로 무한한 기업성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능통자 특별우대

이력서, 자기소개서지참, 회사내방 원함

서울 종로구 묘동 영신빌딩 501호
TEL. 02)741-5051~3
FAX. 02)741-5054

직접 갈아 마셔 영양 섭취 탁월

늘어나는 가루차 인구…제대로 즐기려면?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수제비, 녹차 라떼 등 최근 잎차보다 더 깊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파고든 것이 바로 가루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루차는 잎차 같은 '마실거리' 보다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 가루차 문화가 생활 속에서 멀어졌고, 근대의 차문화 운동이 잎차 문화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차인들을 중심으로 가루차 문화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바른 음용법과 생활 속 활용법을 알아봄으로써 가루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루차란?

삼국·고려때 즐겨, 비타민 C·A 등 풍부

흔히 말차(末茶)라고도 불리는 가루차는 녹차 잎을 갈아 미세한 분말로 만든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즐겨 마셨던 우리 고유의 차다.

가루차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송나라 때의 음차법(飮茶法)이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유지, 발전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인들이 가루차를 즐겼고 고려시대에는 떡차를 가루 내어 마셨다. 성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접다는 배중(盃中, 찻잔)에 다말(茶末)을 넣고 탕수를 부은 다음 다적(茶籍)으로 휘젓는 것이다"고 기록했다.

찻잎 자체를 갈아서 만든 가루차는 잎을 우려 마시는 것보다 영양 섭취면에서 탁월하다. 특히 녹차 잎에는 비타민 C가 일반 야채보다 6배나 높고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A와 토코페롤, 섬유질 등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1989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말차연구회(회장 고세연)와 해남여성차회(회장 이순희), 다화원(원장 김태연)의 주최로 '한국현대말차발표'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차인들 사이에서 가루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제다와 태평양 등에서 가루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가루차 마시기

90℃ 물 적당, 40초 가량 빠르게 젓는다

가루차를 마시는 법은 다구의 종류나 다법에 있어 잎차를 마시는 것보다 간단한다.

말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선 다완과 다선(茶筅 : 대나무로 만든 솔)을 준비해야 한다. 다완은 뜨거운 물을 부어 예열시킨 후 따른 물을 버리고 물기를 마른행주로 닦아낸다. 가루차를 찻숟가락 하나(2g 정도) 분량으로 넣고,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가루차는 물이 뜨거워야 맛과 향이 살아난다. 차선을 이용해 갈 지(之)자를 그리듯 빠르게 휘젓는다.

처음에는 솔을 세워 끝으로 바닥을 차를 살짝 풀어준 후, 전후로 빠르게 저어 거품을 낸다. 이때 젓는 시간이 4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거품이 일어나면 가볍게 다완을 감싸쥐고 마시면 된다.

여수령 기자



▌생활 속의 가루차 이용법

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루차 응용법은 음식에 넣어 색을 내거나 맛을 더하는 것이다. 가루차를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음료에 넣어 먹기도 하고 밀가루나 쌀가루에 섞어 반죽을 하면 음식이 쉬 상하지 않고 쫄깃함을 더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C와 아미노산, 카테킨 등의 성분이 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녹차를 화장품의 부재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녹차죽 녹차두루말이 녹차두부찜 녹차수제비 녹차칼국수

녹차 젤리 가루녹차 1큰술, 젤라틴 1큰술, 물 1컵, 설탕 2큰술, 우유 반 컵
1. 물에 설탕을 넣고 끓여 녹인 후 가루녹차를 넣고 가품기로 멍울 없이 섞는다.
2. 젤라틴은 같은 분량의 물에 불린다
3. 1에 2를 넣고 체에 내려 적당한 용기에 붓고 굳힌다.
4. 굳힌 젤리를 모양 틀로 찍어 담아 낸다.

녹차 드레싱 소금 1/3작은술, 가루녹차 2작은술, 식초 3큰술, 꿀 2큰술, 기름(올리브유 혹은 포도씨유) 6큰술, 설탕 2작은술
1. 그릇에 소금, 설탕, 가루녹차를 넣고 잘 섞는다.
2. 1에 기름을 조금씩 넣어가면 저어준다.
3. 2에 꿀을 섞어 잘 녹인 후 식초를 넣는다.

순천 야생차 브랜드화
녹차체험관, 산림욕장 조성

전남 순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순천 차(茶)'로 브랜드화 하고, 낙안읍성 내에 차 산림욕장과 녹차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차문화 발전에 발벗고 나선다.

순천시청 기획감사실은 "순천의 자생차는 허균이 지은 시문집에 '작설차는 순천 산이 제일 좋고 다음이 변산'이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경쟁력 있는 전국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순천 차(茶)'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차 재배 면적을 늘리지 않으면서 차 애호가들이 안심하고 즐겨 마실 수 있도록 녹차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 산업 발전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낙안읍성 내에 차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이달중 다도 관계자들을 초청해 차 문화 워크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 야생차가 뛰어난 품질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재배 규모가 적은데다 산발적으로 생산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야생 그대로 자란 웰빙 차로 브랜드화 하면 일반차와 차별화된 '순천 차'만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월 중 다도 관계자들을 초청해 차 문화 워크숍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061)749-3221

아인도방, 오성다도 강좌

경남 진주 아인도방은 아인 박종한 선생의 '오성다도 강좌'를 연중 개최한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장수부락에서 열리는 '오성다도 강좌'는 다도교육과 오성다도의 원리와 다법, 헌다송과 무아헌다법, 진다송과 화식진다법, 전다송과 조식점다법 등을 강의한다. 1일 코스는 1인당 3만원, 2일 코스는 6만원. (055)744-4726



다점 형성, 차 향유 계층 널리 분포

고려시대 ⑥

고려는 송조(宋朝)에 보낸 용봉차를 신하들에게 하사하거나 함께 마시기도 했다. 송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비단이나 주류, 약물 외에 기명(器皿)들도 보냈으니, 그 속에는 다기(茶器)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부터 차를 마시는 문인들이 속속 나오게 됐고 차를 파는 가게인 다점(茶店)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를 향유하는 계층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왕의 행사에는 반드시 다군사(茶軍士)가 수행하여 차 시중을 들었다.

극에 달해던 송의 차문화는 최고의 연고차 '용단승설'을 만든 것을 정점으로 나라의 쇠운과 함께 금(金)의 건국, 송의 남천이 이루어져 그 정치(精緻)한 기법이 조금씩 흔들리게 됐다. 하지만 고종의 차정책이나 <북원별록(北苑別錄)> 등의 다서로 보아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서북면 병마사 박경작과 이자현에게 다약을 하사했다.

② 왕족와 양부가 청연각에서 송에서 온 계향어주, 용봉명단 및 과일과 좋은 그릇으로 잔치하고 서대와 의복을 하사했다.

③ 노령거가 귀국할 때 은그릇과 다포(茶布) 등을 가지고 와서 올렸다.

④ 정지상은 '백률사 서루에 붙여'라는 다시를 남길 정도로 차를 즐겼다.

⑤ 아골타(阿骨打)가 세운 금 왕조는 차의 자급(自給)을 꾀하는 한편 송다(宋茶)의 수입을 줄였다.

⑥ 당경: 송대인으로 차를 즐겨 <투다기(鬪茶記)>를 썼다.
채종안: 송대 다인으로 '다산절대(茶山節對)' '다보유사(茶譜遺事)'를 저술했다.
증항: 송대인으로 '다원총록(茶苑總錄)'을 저술했다.
증궤: 송대 시인으로 차를 즐겨 <다산전(茶山傳)>을 찬수하고 '상건명이수(嘗建茗二首)' 등의 다시를 남겼다.

⑦ 서긍: 조문사절로 개경에서 온 송대인으로 <선화봉사 고려도경(宣和奉使 高麗圖經)>을 저술했다. 그 안에 고려차와 다례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⑧ 이청조: 송대 여류문인으로 항주, 월주, 무주 등을 돌며 차를 즐긴 전문가였다.

⑨ 주희: 송대 무원사람으로 차의 고장 무이산 지역에서 자라 자호를 '다선(茶仙)'이라 했다.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의거해 유가의 다례가 행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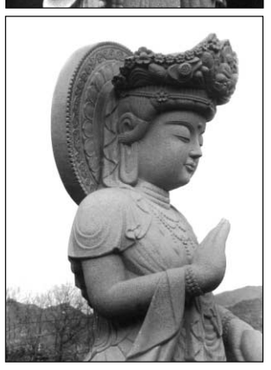
⑩ 고종은 강회(江淮) 지역의 차와 소금 관리를 위해 관원을 두고 통상법, 도매시설의 장소를 지정하는 등 뇌문정을 시켜 노력했으나 결국 다농들의 반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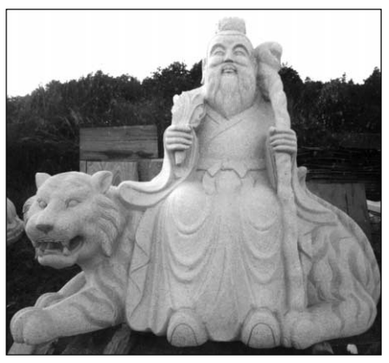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고려시대	1112 왕(예종)이 용봉차를 대신들에게 하사 1115 박경작, 이자현에게 다약(茶藥) 하사 ① 1116 청연각에서 다례행사 1117 송에서 온 용봉차와 음식, 기명(器皿)으로 잔치 ② 1125 이자현이 병들어 차를 하사 1130 노령거 등이 금에서 귀국 ③ 1135 묘청의 난, 정지상의 죽음 ④	송대	1115 금의 건국 ⑤ @ 당경(唐庚), 채종안(蔡宗顔), 증항(曾伉), 증궤(曾几)의 활동 ⑥ 1120 북원공다소에서 처음으로 용단승설을 진상 1121 납차 일부에 한해서 상인거래 허용 1123 서긍(徐兢)의 고려도경 ⑦ 1125 요의 멸망 1127 남송의 시작 @ 이청조(李淸照) ⑧ 1130 주희(朱熹)의 탄생 ⑨ 1131 고종(高宗)의 차 정책 ⑩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새해를 밝게 살아가려면…

문 성주괴공(成住壞空)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이며 만물의 순리임을 알면서도 저희들 앞에 닥친 지구의 재난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도 지구의 환란을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내용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개발의 논리만이 전부인 양 깨부수고 파헤쳤던 몇몇 나라들의 물질지상주의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리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 어찌하면 이런 재난으로부터 두렵지 않으면서 새해를 밝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길을 일러 주십시오.

답 세세생생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지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모든 거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써 아주 한 찰나에 모두 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자기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남의 탓을 합니다. 모두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팔자타령 하고 운명 타령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운명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러니 운명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도, 업보를 벗어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 도리를 몰라서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없다면 무효예요. 모두가 무효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부딪치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거지 내가 없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죠. 나부터 알아야 나를 보호해 나갈 수 있고, 대치를 해 나갈 수 있고, 가정에서 식구들 문제도 대치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대치할 수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대치할 수 있고, 지구적인 일도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인군이 안과 밖을 다 꿰어서 터득한 분이라면,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선과 학을 다 터득한 분으로써 한데 합쳐서 꿰어서 중용을 하는 인군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다 인의롭고 편안하게 잘살 수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발전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무척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위의 큰집 나라에서 와 가지고 공부한 내력을 캐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때리지 않는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든 큰 나라든 머리를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한 사람만 터득한 선지식이 계신다면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게 몹쓸 일은 생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생각으로 우주를 덮고도 남고 싸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도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스님들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잘해 나가는 건지 생각도 해보고 자기가 한 것을 지켜보면서 잘해 나가야 합니다. 생활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데 무슨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제일 높은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들을 언제나 착하고 자비롭게 쓰면서 안과 밖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쓴다면 하늘에서도 딱 접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절로 춤추듯이 흥겨워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언제나 상대와 나를 둘로 보지 마시고 너그럽게 대하며, 만물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지구문제도 타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언제나 착하고 자비하게 쓰면서
안과 밖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이랄까, 아니면 진리랄까,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은 말씀 들어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르신들이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고,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이 그렇게 뜬구름 같은 것인지요? 그저 주어진 생명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유지하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 종이나 쇠들이 낡으면 재생을 해서 다시 만듭니다. 금반지도 금이기 때문에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생이 돼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귀고리로 만들기도 하고, 팔찌로 만들기도 하고, 다시 반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그렇게 금방 다른 모습으로 재생이 돼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헐어지니까 다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그걸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도 자기가 수술을 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재생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죽는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최고의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로입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성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불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를 기름과 운전수와 차로 생각하면, 그 도리를 알고 보면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꽉 차 있고 꽉 차 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빈껍데기만 있다면 없는 거죠. 자기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그리고 뭘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사세요. 그렇게 석 달만 꾸준히, 하여튼 일체를 그렇게 하면 뭐가 뭔지 자기가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도리를 말하는 거지 말로 떨어지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도리는 천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체의 질량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천체의 질량 속의 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목이 마르면 꼭 물을 마셔야 되겠기에 이러는 겁니다. 불교는 살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 도리를 모르고서 항상 타의에서 찾으면서 항상 허무하게 생각한다면 안 되죠. 지금 노인네들도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옇게 새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어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밥 먹을 때도 죽 그릇을 가지고 숟가락을 몇 개 꽂아 갖다 놔도 그걸 먹으면서도 싱글벙글할 거예요, 아마. 절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늙었다는 것이 옷이 헐었다는 얘기인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떠랴 이러구요.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꽉 차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으랴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지도 않을 것이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가 어디서 나와도, 나와서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렇게 즐겁습니다. 허무하지가 않으니 즐거운 겁니다.

요새는 허무하다는 소리를 노인네들은 덜 하는데 외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거 참, 어째 거꾸로 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이 왜 허무한가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것만 같아

문 모두가 공생 공심 공용 공체이니 일체를 내 몸과 같이 보고, 내 생명과 같이 보라고 하시는 스님 가르침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 속에 팽개쳐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이 공격을 해 옴으로써 저도 모르게 나와 남을 따로 보게 되고 그럽니다. 그것이 물론 수억겁을 살아온 습이겠지만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물렁해져서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만 같아서 상황 상황에서 주저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도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도,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것도 나오는 거기다가 그냥 밀어 던지세요. 그렇게 줄창 해 보세요. 그대로만 한다면 이 다음에 꼭 내 말 할 테니까요. 그리고 좋을 거니까요.

그리고 말을 하되 유순하게 하면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바보처럼 비켜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되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 말을 하되 마음속으로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려면 말을 하되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되 말을 해라 이거거든요.

예전에는 스님네들이 밭에 채소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오줌을 져다가 밭에 주는데 스승님께서 "얘야, 가서 공양 좀 빨리 하도록 해라." 하시니까 "누가 오십니까?" "오늘은 달 스님이 오시니까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인사를 안 해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셨다고 하듯이, 여러분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을 놔 버리고 그대로 놓고 가면서, 그대로 맡겨 놓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립이 되고 바꿔지면서 진화가 되면서 여러분을 좋게 이끌어서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뛰면서 생각하고 뛰면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활이 그냥 참선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자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 스님이 오시니까 인사를 해도 아니 되고 인사를 아니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것은 화두를 주기 이전입니다. 화두를 줘서 의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툭겨 주는 일이죠. 그러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백장 선사는 삽하고 괭이하고 가지고 밭을 파러 나갔는데 "야, 이놈들아! 밭을 파도 아니 되고 아니 파도 아니 되느니라." 이러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배의 그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것이 그대로 태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화두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 도리만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손해 볼 것도 없고 바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위패를 절에 모셨는데…

문 작년에 가까운 절에서 아버님 49재를 지내 드리고 만년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무속인 한분이 절에 위패를 모시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아서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인지요? 그리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끼리끼리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십시오.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모이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모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복덕방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요. 그러니 그것이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갖다 틀어넣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입니다.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금이 요만큼 떨어져서 찌그러진 게 있어도 그것은 금방으로 갑니다. 찌그러졌다고 해서 금이 넝마전으로 가고 무쇠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우리 자신이 모두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조상들을 위패를 해서 모시는데 영령은 어디까지나 영령이기 때문에 위패를 해 놔야 거기에 부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모셔 놓으면 영령들이 알지 못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죠. 영어를 못하는 사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상대와 나를 둘로 보지 말고 언제나 너그럽게 대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부처가 있어

나오는 거기다가 그냥 밀어 던지세요!

☞29면에서 계속

람을 미국에 금방 갖다 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말이 통합니까,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7 · 7재 지내고는 향 피워 놓고 초 켜 놓고 그저 맑은 물 위에서 위패를 살라 드리라는 겁니다. 자유스럽게 왕래하시라는 뜻이죠. 자유스럽게 해 드리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초청을 해서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염불 소리를 들어 가면서 뜻과 뜻이 한데 합치게 되면 그냥 자유스럽게 승천을 하게끔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꼭꼭 매어 놓고는 오히려 부모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죠.

가죽 속에다 모시면 안 되나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가죽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 뿌리인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다 입력이 돼서 다 한마음으로 한도량에 계실 텐데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둘 아니게 말입니다. 빗방울이 한 바다에 든다고 해서 그 빗방울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령은 체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는 물방울과 같아서 물방울이 수만 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바다인 것입니다. 물방울이 들어가서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방울이 다시 자유스럽게 나온다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고 발전시키면서 살려면 이 공부는 정녕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길을 몰라서 길을 못 가고 벗어나지 못해서 주머니 속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서 모든 고기들이 살다가 바다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듯이 인간도 역시 그런 바다 속의 고기와 같이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처참하지만 이 굴레 속을 벗어난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벗어나야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가고 생각하면 그대로 오고 생각하면 그대로 생기고, 어떠한 거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설하시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정신계를 무시해서 자기 몸뚱이만 자기인 줄 알고 모두 야단법석이니 그 얼마나 처참하고 가련한 것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양 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스님네들의 의복과 양식과 사찰을 많이 지어 줬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달마 대사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했어도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스님네들한테 갖다 주면 모두 잘되고 공덕이 많겠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 돈을 안 주고 삽니까? 내 집으로 만들려면 돈을 줘야 내 집이 되죠? 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돈을 안 가지고 갑니까? 누가 거저 물건을 줍디까? 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려면 만 원을 가지고 가야 가져옵니다.

양 무제가 절에 가서 공덕이 되게끔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였더라면 아마 공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간 것처럼 내가 집 지을 만큼 돈을 가지고 가서 스님네들에게 드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준 것만큼 벌써 자기가 가지고 갔거든요. 스님네들에게 거저 갖다 준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바로 스님네들이라면 보이는 데서 사 가는 사람은 바로 신도들이죠.

가고 오는 거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가 없을 뿐이지 볼은 들어옵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볼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절에 가지고 가서 스님네들을 줬든 부처님 앞에 갖다 놨든 시주를 했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받은 사이도 없고 그쪽에서 준 사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가게 가서 물건 살 때에 물건만 가져오고 내가 돈 줬으니까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둥글고 자비하고 착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이 세상에 진정한 보배로서 광대한 것입니다. 물건 아닌 물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만이 공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만법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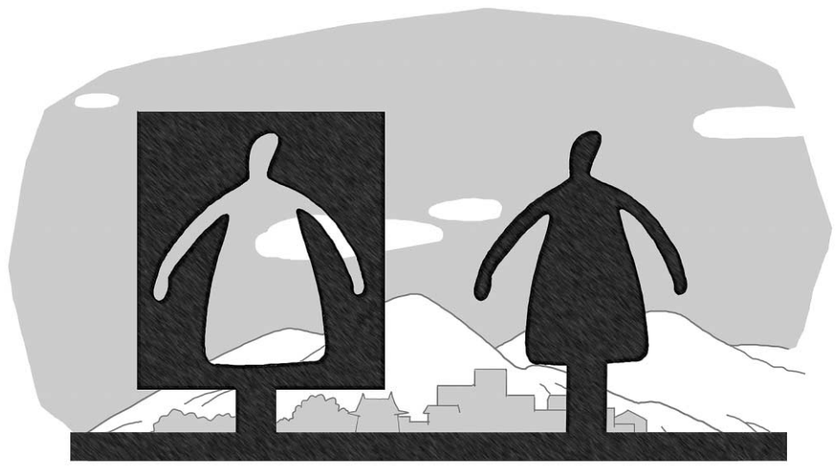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옳고 그르다 하는 것도 그대로 놓고 가라

외계인에 대해서

문 스님 법문 중에 외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지만 외계인들과 우리들의 관계, 또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선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마저 해 주세요.

답 지금 우리가 물질세계로서의 50%만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정신세계로서 치닫는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지리학이니 천문학이니 하고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할 때 첫째 이런 게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스님! 지금 우리는 외계인에게서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무전전화를 나한테서부터, 내 마음속에부터 놔야 남한테 무전전화도 하고 무전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모두 제가끔 나에게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터 놓고 모든 게 파악이 된다면 물리가 터지고, 내가 두루 탐험할 것이고 볼 것이고, 또는 두루 들을 것이고 잘나잘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내가 안팎으로 통신하는 거를 바로 소임으로 할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이라는 이름 없는 부처님 자체는 바로 찐득이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 하셨고, 모든 손도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고장에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손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없는 자리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래 외계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도 어떠한 지역에서 모르게 살면 외계인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모르는 고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생명들이 우리보다 더 고도로 발달이 돼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우리만 이렇게 고도로 발달을 하고 이렇게 진화된 인간으로 우리만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성을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다더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는 생명이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맞을는지도 모르죠. 왜냐? 모습을 꼭 보여야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깐요. 모습 없는 모습, 이것은 우리보다도 벌써 한 계단 초월해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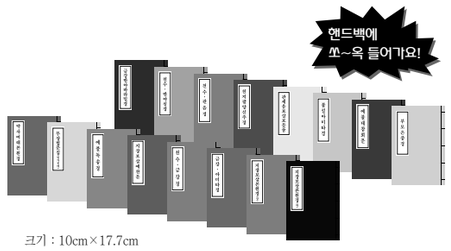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법보시로 좋습니다.

포켓용 한장본 불서 안내



크기 : 10cm×17.7cm

■금강반야바라밀경	142페이지	3,000원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2,500원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2,500원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2,5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2,500원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2,500원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2,500원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2,500원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2,500원
■무상법문집(영가전에)	110페이지	2,500원
■예불독송경	89페이지	2,500원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2,500원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3,500원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3,500원

호신불 열쇠고리



앞면 뒷면1 뒷면2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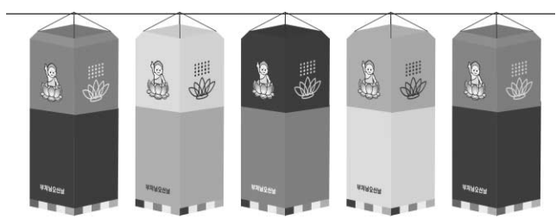
호신불 카드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제작 하였습니다.
■크기 : 대-4.9cm×7.8cm
소-3.6cm×6.1cm
■24K 순금 도금



앞면 뒷면1 반야심경 뒷면2 광명진언 뒷면3 소원성취부 뒷면4 차사고예방부 뒷면5 삼재소멸부

봉축위원회지정 초파일 청사초롱



■미리 주문하세요.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색상 : 분홍, 노랑, 군청, 연두, 빨강

코끼리 옴자 상패

■크기:가로27.5×세로17×높이24cm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대표전화 (02)723-4306 홈페이지 : http://www.gamro.net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지긋 지긋한 '관절염' 물 닿으니 싸~악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아쿠아 피트니스

"자, 물살을 손으로 가르며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세요. 왼 손바닥을 앞으로 밀고, 오른손은 뒤로 밀고…. 어깨 힘을 좀 더 빼세요. 부드럽게~!"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수영장 안,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던 수강생들이 천천히 손을 앞뒤로 움직이며 물속을 걷는다. 약 5회 정도 반복하자, 이번에는 강사가 좁고 긴 원통형 튜브(누들튜브)를 집어 들고 외친다. "이번엔 튜브를 사용해서 어깨관절 푸는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에 힘을 주고 두 팔로 튜브를 잡고서 원을 돌리듯이~" 힘찬 강사의 구령소리에 맞춰 물장구를 치는 수강생들은 대부분 5~70대 의장 · 노년층이다. 모두 2001년 국내최초로 수중운동치료 전문병원으로 개원한 송암한의원 부설 아쿠아센터 관절 · 요통반 회원들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힘들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부력 이용해 노 · 장년층에도 무리없어
미 · 독 · 일 등서 재활치료로 널리 보급
30~35℃ 이상적, 부양기구로 자세 교정

강좌를 듣는 수강생 중에는 오랜 시간 병원을 다니면서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관절염 환자도 꽤 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송암아쿠아센터에서 수중치료를 받아왔다는 신경숙(56 · 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는 "40대 때부터 무릎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였지만 약을 먹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중운동으로 무릎근육을 키우니까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제법 고난이도의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쿠아 피트니스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해 물에서 실시하는 운동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재활치료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수중치료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관절염, 요통, 허리 · 목 디스크, 어깨 통증, 중풍 등의 마비환자, 뇌졸중 환자 등에게 좋고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체중이 무리하게 실려 일어나는 하지정맥류나 퇴행성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충격이 감소되고 관절이 편안해지며, 심장호흡계의 지구력, 근력강화와 근지구력, 유연성 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수영과 달리 관절 · 요통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쿠아 피트니스는 수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심에서 실시된다.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고 관절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을 줄여주는 부양기구를 활용한다.

아쿠아 피트니스를 할 때 이상적인 수영장 수온은 30~35℃.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물 온도보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수온이 높은 이유는 경직된 관절을 풀어주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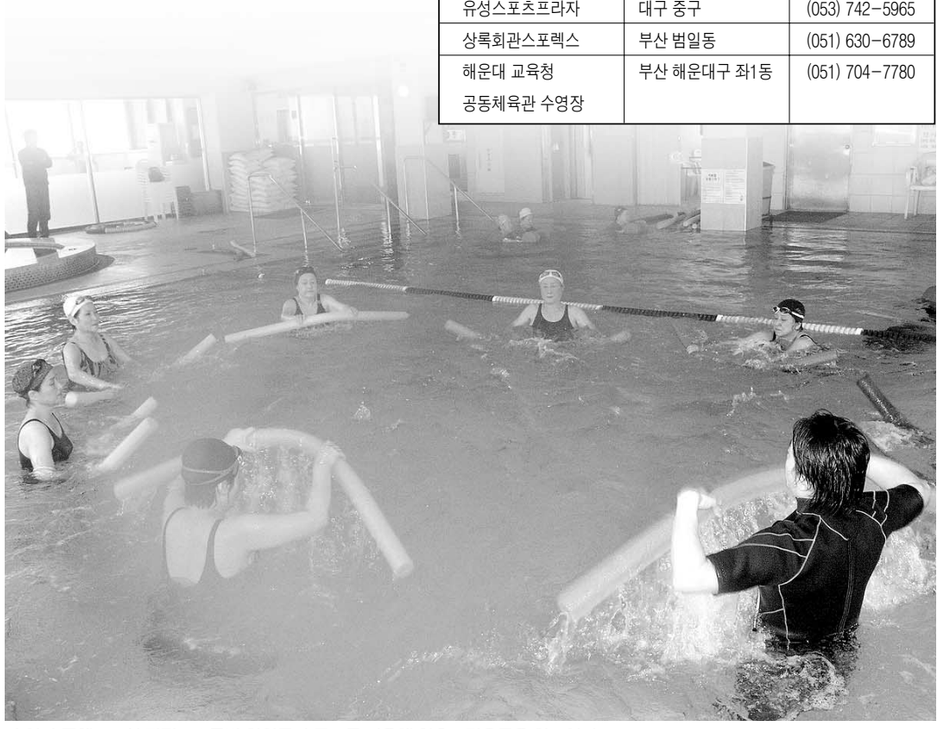
한국아쿠아운동협회 서울 사무국 강성선 기획실장은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연골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하고, 피트니스 시작 전에 몸을 풀어주는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아쿠아 피트니스 시설을 갖춘 기관은 전국에 약 170여 곳으로, 병원 외에도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관, 지역 체육센터 등에서도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아쿠아운동협회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거쳐 국제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교육한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습소는 협회 홈페이지(www.kaea.or.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아쿠아 피트니스 시설

이 름	위 치	문의전화
구로구민체육센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02) 2673-664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서울 청량리동	(02) 3295-1478
서부 재활 체육센터	서울 은평구	(02) 388-6622
성동청소년수련관	서울 성동구 행당동	(02) 2296-4062
송암아쿠아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02) 530-8200
송파체육문화센터	서울 거여동	(02) 402-9621
청구문화체육센터	서울 중구 신당4동	(02) 2231-9363
삼정복지회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31)323-3163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경기도 수원	(031) 257-2137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경기도 안양 비산3동	(031) 380-7236
국민생활관	대전 서구	(042) 483-8601
대덕스포츠센터	대전 유성구	(042) 861-8841
올림픽스포츠센터	충북 제천	(043) 651-8855
춘천문화사회체육센터	강원도 춘천시	(033) 242-8037
군민종합복지회관	전북 순창군	(063) 653-9859
포항실내수영장	경북 포항시 남구	(054) 275-7100
동부여성문화회관	대구 동구	(053) 951-0186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북구	(053) 384-6982
유성스포츠프라자	대구 중구	(053) 742-5965
상록회관스포렉스	부산 범일동	(051) 630-6789
해운대 교육청 공동체육관 수영장	부산 해운대구 좌1동	(051) 704-7780


송암 수중체조교실 관절 · 요통반 회원들이 튜브를 이용해 척추교정운동을 하고있다.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6)

신체는 지혜의 빛 방사하는 만다라

불교문화 풍토에서 성립된 의학은 힌두아유르베다에서와 같이 풍(風), 담즙(膽汁) 그리고 점액질(粘液)이라는 세 체액을 중심적인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첫 천 년 동안 인도의 전통의학은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다. 요가의 정신 · 생리적 수행기법을 기반으로 신체적 개념의 틀이 잡히고, 뒤이어 힌두교와 불교에 나란히 탄트라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불교의술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바로 불교탄트라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불교탄트라의 요체는 살아있는 생애 내에 확실한 해탈을 이루는 비의적 교리와 비밀 수행법이다. 불교탄트라에서는 더 이상 육체를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방해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된 방편으로 삼도록 가르친다. 몸은 지복을 담는 더없이 소중한 그릇이요 잘 개발하면 광채를 드러낼 잠재 에너지가 자리한 곳이라고 내밀한 의미를 부여한다. 탄트라수행의 본질은 몸과 마음의 불순 성분들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내적 연금술에 있다. 삼라만상의 본성은 청정한 것으로 모두 해탈의 방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를 포함한 물질세계(색계)는 법계가 빛의 모습으로 본성을 드러낸 것이며, 특히 신체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방사하는 체내 만다라로 보았다. 연금술이 발달한 것도 이 시기인데, 연금술사들은 수은 같은 복잡한 광물약으로 장수를 보장하고 불사까지 추구하려 하였다.

그런 와중에 7세기 전반 새로 통일된 티베트가 아시아에 강력한 팽창주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8세기부터는 인도에서 밀교적인 탄트라유파가 티베트에 유입되어 고승 파드마 삼바바에 의해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그가 죽은 후 수 세기동안 티베트인들은 베일에 가린, 병과 건강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꿰뚫어 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광대한 히말라야 설원을 돌아다녔다. 병을 치유하고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는 열망은 인류의 영구한 꿈이며, 그 문제에 대해 불교탄트라에서 만큼 미묘하고 깊이 있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다. 위대한 탄트라 성취자 사라하의 말을 빌리면 "학자들은 신성한 교전을 설명할 수는 있으되 육체에 깃든 위대한 지혜는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 주변 세계와 우리 몸 그리고 의식 자체의 본성에 대한 태도를 변환시킴으로써 불교의술은 어떤 불가사의한 초월적인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몸과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미묘한 본질에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인간의 가능성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탄트라의 체취가 물씬 나는 티베트 의성(醫聖)의 계보도. 복식과 외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티베트계와 고대인도 계통의 불교탄트라 의학의 성자(醫聖)들을 묘사하고 있다. <사부의전>을 그림으로 표현한 17세기 탕카.

불교의술의 최고조는 탄트라 성행하던 시기

티베트에도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방법이 수 천년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예를 들면, 소화불량에는 따끈한 물을 마시면 되고 베거나 상처난 부위에는 버터를 녹여 바르면 피가 멎고 상처가 빨리 아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티베트의학은 하나의 전통 의학체계로 2,500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티베트역사상 그 기원은 불교 전래 이전 본교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티베트에는 이미 본교 고유의 상당히 앞선 의학 지식이 존재했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만한 문자가 아직 없었다고 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 오행 쑥뜸기 좌훈기 전통 좌훈요법 첨단기술 접목 -
- 여성 항문 질환, 산후 질 팽창과 요실금 등 -
- 연기, 화상 위험이 없는 쑥뜸기, 쑥좌훈기 출시 -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성기능개선, 신경성과민대장염,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료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 제품의 특징 -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된다. *타이머가 장착되어 편리하다.
*ISO9001 인증제품-쑥뜸기, 좌훈기 *쑥뜸 시 화상위험이 없다.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D.M.I 산업
모사포유 www.moxa4u.com
대구한의대학교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구담사 대한 불교조계종 www.gudamsa.org

태아영가 극락왕생 만등불사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

양력 : 3월 6일(일요일) 증명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태아 영가 왕생극락 1만등 달기 운동

『태아영가 왕생극락 1만등 달기 운동』은 낙태된 아이들에게 등불을 밝히고자 구담사에서 실시하는 자율적인 운동입니다.



낙태된 아이들(태아영가)에게 한생명의 등불로써 광명을 주고 또한 이 광명의 등불로 낙태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태아영가에게 왕생극락 만등불사로 광명을 비추어 새 생명에게 보시하고자 합니다. 만등불사금은 새 생명 살리기 운동과 장애인 돕기에 쓰여집니다.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 217802-04-023881 (예금주 이동순)

2005년 엄마, 아빠 태아영가 49일 천도 참회기도 발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정진합시다.

◉ 기도 입재일 : 양력 3월 6일 (첫째주 일요일) ◉ 기도 회향일 : 양력 4월 24일 (일요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기도 동참금 : 49일 1회 - 49재를 한 번 할 경우 - 10만원 / 49일 7회 - 49재를 7번 할 경우 - 40만원
◉ 위 패 비 : 한 위패당 5천원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 시간 - 오전 8시까지(강변역 2호선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 (매주 차량 운행합니다), (강북 방향 도봉산역 1호선, 7호선 연결),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포천방향쪽) ※입재, 3재, 5재, 7째때만 운행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02)487-3254 /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접수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



엄마!
고마워요.

우리의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장기 불황 속에서도 비싼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우리의 어머니.
그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자녀들을 그저 멀리서 지켜 보시고 '참' 나를 찾는 마음 여행을 떠나세요.

지난 10년간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는 신문으로 독자들을 참마음의 세계로 인도하였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했던 여러분의 등대지기, 현대불교신문사.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사는 마음의 평화와 축복을 위한 안식처로
행복의 지름길을 약속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2005 졸업·입학 기념

구독신청 '大'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을 무료로 드립니다.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 독자 그리고 일반 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00 '아이벗'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http://ibud.buddhapia.com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 전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